



정책자료 2024-02-02

# 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 남양주시 ‘위스테인 별내’ 사례 연구

김도균  
이태영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도균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공동연구진 이태영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정책자료 2024-02-02

### 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 남양주시 '위스데이 별내' 사례 연구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강혜규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정인애드

---

## Acknowledgement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용역 계약(2024. 7. 4.)된 「인구포럼 주제 발굴 연구: 사회주택의 공동체 육아·돌봄에 관한 연구」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





요 약 .....	1
<b>제1장 서론 .....</b>	<b>9</b>
제1절 연구목적 .....	11
제2절 연구내용 .....	17
제3절 조사설계 .....	20
<b>제2장 사회주택과 돌봄 커먼즈 .....</b>	<b>25</b>
제1절 사회주택과 도시 커먼즈 .....	27
제2절 사회적 재생산과 돌봄 커먼즈 .....	35
제3절 위스테이 별내 소개 .....	38
<b>제3장 이웃관계와 공동체 경험 .....</b>	<b>55</b>
제1절 입주 전 주거·돌봄 경험과 입주 계기 .....	57
제2절 입주 이후의 이웃관계와 생활 경험 .....	76
제3절 소결 .....	109
<b>제4장 공동체 육아·돌봄 경험 .....</b>	<b>111</b>
제1절 일상적인 돌봄 경험 .....	113
제2절 육아 만족도/스트레스 .....	157
제3절 돌봄 경험과 주거/일자리 의식 .....	168
제4절 소결 .....	184

---

<b>제5장 공동체 육아·돌봄과 출산 의향</b> .....	<b>187</b>
제1절 출산 의향 .....	189
제2절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	214
제3절 소결 .....	226
<b>제6장 결론 및 시사점</b> .....	<b>227</b>
제1절 결론 .....	229
제2절 시사점 .....	233
<b>참고문헌</b> .....	<b>237</b>
<b>부 록</b> .....	<b>241</b>
[부록 1] 설문지 .....	241
<b>Abstract</b> .....	<b>269</b>

# 표 목차



〈표 1-1〉 인터뷰 그룹 구성 및 진행 일정 .....	21
〈표 1-2〉 연구참여자 정보 .....	21
〈표 2-1〉 사회주택 관련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및 각 조례 내 사회주택의 정의 .....	32
〈표 2-2〉 기업형 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차이 .....	40
〈표 2-3〉 기존 사업의 문제점과 협동조합형 시범사업의 대응 .....	43
〈표 2-4〉 위스테인 별내 사업비 재원 조달 .....	43
〈표 2-5〉 위스테인 별내 사업 및 입주 과정 .....	44
〈표 2-6〉 위스테인 별내 공급 현황 .....	45
〈표 2-7〉 위스테인 별내 임대 조건 .....	46
〈표 2-8〉 남양주 별내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2024년 입주자 모집) 임대조건(56㎡) · 47	
〈표 2-9〉 84타입 기준 주변 지역 민간 임대주택 대비 임대조건 비교 .....	48
〈표 2-10〉 84타입 기준 LH공모형 수도권 타 뉴스테이 사업지 임대조건 비교 .....	48
〈표 3-1〉 이웃관계와 신뢰도, 활동 참여 의사 간 상관관계 .....	87
〈표 4-1〉 이웃관계와 육아 간 상관관계 .....	160
〈표 4-2〉 이웃관계와 육아에 대한 부담감 간 상관관계 .....	163
〈표 5-1〉 가구형태별(가구대표자 50세 이하) 자녀 수 .....	191
〈표 5-2〉 연령집단별 가구당 평균자녀 수 .....	191
〈표 5-3〉 이웃관계와 출산 계획 .....	199
〈표 5-4〉 육아와 출산 계획 .....	199
〈표 5-5〉 입주 후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이웃관계와 출산 결정 .....	200
〈표 5-6〉 입주 후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육아와 출산 결정 .....	200
〈표 5-7〉 입주 후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이웃관계와 출산 의향 .....	201
〈표 5-8〉 입주 후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육아와 출산 의향 .....	201

# 그림 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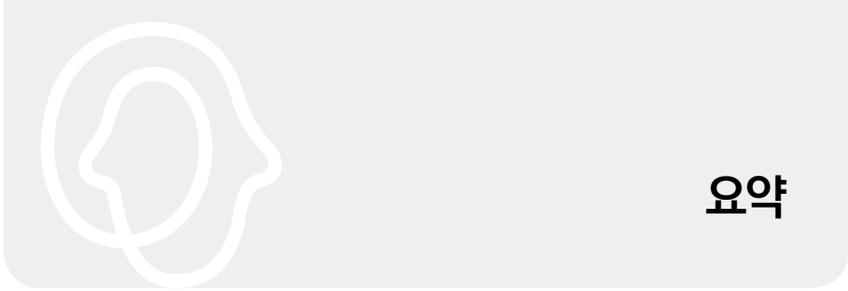
[그림 1-1] 설문조사 참여가구와 참여율 .....	23
[그림 2-1] 3원주의 관점의 주택 분야 적용 .....	30
[그림 2-2] 위스테인 별내 커뮤니티 공간 .....	50
[그림 2-3] 위스테인 별내 공동체 활동 .....	51
[그림 2-4] 위스테인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집행위원회 구성 .....	52
[그림 2-5] 위스테인 별내 생애주기별 공동체 기반 평생교육 구상 .....	53
[그림 3-1] 사회단체 활동 경험 .....	58
[그림 3-2] 단지 내 친인척 거주 .....	58
[그림 3-3] 계층 의식 .....	59
[그림 3-4] 삶의 안정성 .....	60
[그림 3-5] 사회 안정성 .....	60
[그림 3-6] 입주를 선택한 이유 .....	62
[그림 3-7] 입주를 선택한 이유(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63
[그림 3-8] 입주 당시 기대 요인 .....	64
[그림 3-9] 입주 전 주거 환경 .....	65
[그림 3-10]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	77
[그림 3-11] 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 .....	78
[그림 3-12] 도움 요청하거나 받은 경험 .....	78
[그림 3-13] 주민들끼리 사용하는 별명 유무 .....	79
[그림 3-14] 공동체 활동 참여 .....	80
[그림 3-15] 이웃에 대한 신뢰도 .....	81
[그림 3-16] 이웃관계(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와 신뢰도 .....	82
[그림 3-17] 이웃관계(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와 신뢰도 .....	83
[그림 3-18] 이웃관계(이웃 간 도움 주고 받음)와 신뢰도 .....	83
[그림 3-19] 마을 내 활동 참여 의사 .....	84
[그림 3-20] 이웃관계(대화를 나누는 이웃)와 활동 참여 의사 .....	85
[그림 3-21] 이웃관계(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와 활동 참여 의사 .....	85



[그림 3-22] 이웃관계(이웃 간 도움 주고 받음)와 활동 참여 의사 .....	86
[그림 3-23]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	88
[그림 3-24] 자녀 연령별 이웃관계(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 .....	88
[그림 3-25] 자녀 연령별 이웃관계(이웃 간 도움 주고 받음) .....	89
[그림 3-26] 자녀 연령별 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 .....	90
[그림 3-27] 자녀 연령별 이웃에 대한 신뢰도 .....	90
[그림 3-28] 이웃과의 교류 정도(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92
[그림 3-29] 이웃과의 교류 의향(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92
[그림 3-30] 친한 이웃의 수(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93
[그림 3-31]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의 수(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94
[그림 4-1] 자녀 기본 돌봄 현황 .....	114
[그림 4-2] 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 장소 .....	114
[그림 4-3]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 .....	115
[그림 4-4] 방과 후 동네카페, 책방 이용 시간 .....	116
[그림 4-5] 입주 전 육아에 대한 관심 .....	117
[그림 4-6] 친구 부모 아는 경우 .....	117
[그림 4-7]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웃 .....	118
[그림 4-8] 아빠 육아 참여 경험 .....	119
[그림 4-9] 아빠 육아 참여 증가 .....	119
[그림 4-10] 자녀 교과 사교육 현황 .....	120
[그림 4-11] 위스데이 별내 잔디광장 행사 .....	121
[그림 4-12] 위스데이 별내 환경이 육아에 주는 도움 .....	158
[그림 4-13] 자녀 연령별 위스데이 별내 환경이 육아에 주는 도움 .....	159
[그림 4-14] 입주 후 육아부담 감소 .....	161
[그림 4-15] 자녀 연령별 입주 후 육아부담 감소 .....	162
[그림 4-16] 자녀 연령별 위스데이 별내 생활 만족도 .....	162
[그림 4-17] 협동조합 소유/임대에 대한 의견 .....	169

---

[그림 4-18] 선호하는 주거 모델 응답 .....	169
[그림 5-1] 입주가구 출생아 추이 .....	189
[그림 5-2] 미성년 자녀 연령 구조 .....	190
[그림 5-3] 자녀 연령별 혼인 출산 가치관 .....	193
[그림 5-4] 자녀 수별 희망 자녀 수 .....	193
[그림 5-5] 실제 자녀 수와 희망 자녀 수 .....	194
[그림 5-6] 실제 자녀 수와 희망 자녀 수 비교 .....	194
[그림 5-7] 자녀 수별 자녀 계획 .....	195
[그림 5-8] 위스데이 별내 거주가 자녀 계획에 미친 영향 .....	196
[그림 5-9] 입주 후 출산 경험 .....	196
[그림 5-10] 위스데이 별내 거주가 출산에 미친 영향 .....	197
[그림 5-11] 입주 후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잠재적 출산 의향 .....	19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장기화된 초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적인 현상임을 강조하고, 남양주시 '위스테이 별내' 사례를 통해 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이 결합된 '커먼즈(Commons)'적 접근이 어떻게 사회적 재생산 활동의 재구성을 통해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생산과 재생산 활동을 분리하고, 일터와 가정을 분리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시스템의 유지에 필수적인 돌봄 노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폭식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돌봄 노동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도 박탈당하여 왔다. 최근에는 재생산 활동과 돌봄 노동이 경제적 독립과 해방적 삶에 대한 장애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고, 이것은 다시금 재생산과 돌봄노동을 '타인에게 맡기려는 필사적인 쟁탈전'을 강화시켜왔다. 그 결과 돌봄과 재생산 노동은 가능한 한 기피하고 회피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재생산활동 전체가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명목 하에 자본축적에 체계적으로 이용당하는 한편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는 그 가치와 의미가 전면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점점 더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 게다가 육아와 돌봄이 사적 영역으로 고립되고 유폐된 결과 돌봄 노동은 독박을 써야 하는 중노동이자 고역이 되어 버렸기에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왔다.

초저출산 현상이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 및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관련이 있다면, 해법은 생산과 재생산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재생산을 재구성하고 재생산 활동의 의미를 복원하는 것에 있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전면화된 이래로 재생산 활동은 체계적으로 평가절하되고 부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사회해방적 가치들과 신자유주의가 결합되면서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정책들은 경제적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왔던 돌봄 노동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이러한 접근 자체는 재생산 영역이 생산 영역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여전히 재생산과 돌봄은 생산노동에 대한 장애물이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로 치부되며, 다만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반대급부로 경제적 보상이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초저출산 현상이 재생산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한 생산과 재생산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경계투쟁'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를 극복하고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을 새롭게 재구성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하고 있는 '위스데이 별내'라는 협동조합형 아파트를 사례로 해서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의 실험이 어떻게 사회적 재생산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재생산 활동의 의미를 복원시켜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재생산의 경계를 재설정하고 재생산과 돌봄 활동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커먼즈적 접근이 요구된다. 돌봄 노동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 자체가 여성과 여성의 돌봄 노동이 가정 내로 유폐되었기 때문이므로 가정이라는 속박과 고립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영역에서 재생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재생산 활동의 의미를 회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재생산 질서를 구축하는데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적 영역에 갇힌 여성의 재생산·돌봄 노동을 공동체의 영역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젠더화된 노동분업을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와 사회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며,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경계투쟁을 위해 ‘커먼즈’적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위스태이 별내 사례는 커먼즈적 접근을 통해 주거와 돌봄을 결합하여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국내 최초의 아파트형 사회주택 실험인 ‘위스태이’의 경우 지난 4-5년 동안 사회주택을 ‘돌봄+공간’의 맥락에서 운영해 왔다. ‘더함’이라는 사회적 부동산기업이 시행사를 맡고, 입주자들이 모집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아파트의 주거공간과 공유공간 설계에서부터 조합원들의 참여 하에 추진되어 왔다. 1차 모집 단계에서 사회적 경제나 공동체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을 정도로 준비단계에서부터 공동체 활동과 공동체적인 육아·돌봄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육화친화형 아파트로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위스태이 별내의 사례는 주거와 돌봄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재생산을 재구성하는 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집을 단순히 주택 자산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공간으로서 재설정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공간을 설계하는 한편,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을 통해 돌봄과 재생산 노동을 사적 영역에 가두지 않고 공동체의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커먼즈적 접근이 돌봄과 재생산 활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창출해 내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위스태이 별내 사례를 통해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을 지향하는 사회주택 실험이 어떻게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을 재구성해나가고, 이것이 출산 의향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 내용

첫째, 이 연구는 커먼즈적 관점에서 사회주택과 사회적 재생산에 관한 논의들이 이어져온 맥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위스테인 별내의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을 커먼즈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도시커먼즈 운동이 제기하는 쟁점들과 관련해서 사회주택 혹은 사회적 부동산이 갖는 의미를 지적하는 한편, 사회적 재생산 논의에서 돌봄활동을 커머닝으로 해석해온 이론적 맥락을 살펴본다.

둘째, 이 연구는 아파트형 사회주택인 '위스테인 별내'의 공동체 활동, 이웃관계,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 사례의 분석을 통해 사회주택이 기존의 주택이나 주거공간들과 어떻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적 재생산의 경계를 재설정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간주택은 주거안정성을 제공하고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주택구입(housing affordability) 측면에서 단점을 지닌다고 평가받는다. 공공임대주택은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지만 낙인효과 등으로 인해 보편적 주거형태로 확장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관계망 구축을 통해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로서 확장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위스테인 별내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느슨한 공동체'와 '육아 친화형 아파트'를 표방하고,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을 벌여왔다. 이 연구는 남양주 별내에 위치한 아파트형 사회주택인 '위스테인 별내'의 공동체 활동과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 사례를 통해 사회주택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돌봄과 같은 사회적 재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재생산과 돌봄 활동이 어떻게 새롭게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획득해

나가는지 살펴본다.

셋째, 이 연구는 사회주택의 주거권 보장과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이 출산태도나 출산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관련된다고 할 때, 위스데이 별내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돌봄 활동,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의 재구성이 입주민들의 혼인 또는 출산 의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위스데이 별내의 공동체 활동이나 돌봄 경험이 출산 의향이나 출산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출산 의향 등에 대한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입주동기, 공동체 활동 참여도, 주거만족도, 내집마련계획, 입주 전후 혼인·출산 의향, 육아부담 정도, 다자녀 출산 의향, 자녀교육계획 등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그룹인터뷰조사를 통해 '위스데이 별내'의 공동체 활동과 이웃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공동체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긴장이나 갈등 등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들의 경우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공간적 환경이나 육아네트워크, 공동체 관계 등이 어떻게 결합하면서 육아돌봄의 커머닝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공동체 육아·돌봄이 아빠들의 육아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전반적인 결과로서 육아스트레스나 가족간 갈등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동과 공동체 육아·돌봄의 활동이 출산 의향(자녀 계획)이나 출산 결정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입주민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살펴본다.

### 3.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아파트형 사회주택인 '위스데이 별내' 사례를 통해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시도가 어떻게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육아와 돌봄, 출산 의향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위스데이 별내 입주자들은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방향 하에 이웃과 관계를 맺거나 교류를 하는 등 친밀한 공동체 관계를 만들어 왔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웃관계가 친밀할수록 이웃,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의사도 높게 나타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나 무자녀 가구보다 유자녀 가구 집단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이웃관계나 공동체 활동 참여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위스데이 별내의 공간적 구성과 환경, 공동체 이웃관계는 육아·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서로 다른 집 아이들도 돌보는 분위기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틈새돌봄이나 돌봄공백이 발생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듯 공동체 활동과 이웃관계를 토대로 형성되는 돌봄 커먼즈가 존재하고, 지속적인 커먼즈의 과정을 통해 돌봄 공동체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돌봄 환경과 돌봄커먼즈는 아버들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가정내에 고립되어 돌봄이 이루어졌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육아활동이 돌봄 공동체의 존재로 인해 아버들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육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육아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경제적 부담이 크게 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정서적·심리적 차원에서 스트

레스가 감소하고, 가족간 갈등도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위스테인 별내의 거주경험은 출산 의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출산을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위스테인의 거주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입주 후에 출산을 경험한 가구들도 위스테인 거주가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출산 의향이나 출산 결정에는 공동체 이웃관계나 공동체 육아돌봄에 대한 만족도, 육아스트레스 감소 등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스테인의 주거환경과 돌봄 커먼즈가 1인 가구의 혼인·출산이나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가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생산 활동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공간과 지역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그동안 주거와 돌봄이 별개로 다루어져온 것과 달리, 사회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주거공간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과 돌봄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거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근본적인 인구학적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생활표준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출산 태도나 의향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출산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동안 돌봄활동은 저렴한 돌봄 노동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커머닝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주요 용어: 사회주택, 커먼즈, 사회적 재생산, 경계투쟁, 주거, 돌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조사설계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새삼 저출산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미 한국사회는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왔다. 2002년에는 1.17쇼크, 2005년 1.08쇼크라는 말이 회자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흐름 속에서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4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는데, 특히 2018년 출산율이 1.0 밑으로 하락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 현상의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고,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보육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되었고, 일과 양육의 양립을 위한 보편주의적 보육 정책의 기초가 확립되어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들이 수립되었다. 1차 기본계획의 보완계획에서는 주거정책이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으로 포함되어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이 채택되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책기초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책대상의 범위가 저소득층 중심에서 맞벌이가구 등으로 확대되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 내실화 등이 추진되었고, 계획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상보육이 정치적 의제가 되면서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3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기혼여성,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보육 중심 접근에서 더 나아가서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청년일자리나 주거문제 등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되었다. 특히 주거문제가 저출산 대책의 핵심 아젠더로 등장하게 되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사업과 기업형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등 청년 집단의 주거사다리 강화가 정책의제로 포함되었다. 또한 무상보육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여론에 대응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이 추진되었고,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나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등이 강조되었다(김도균 외, 2017). 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아우르는 가운데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설정하는 등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기존의 기본계획들이 거의 모든 정책수단을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장기화된 초저출산 현상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적인 현상임을 강조하고, 남양주시 '위스데이 별내' 사례를 통해 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이 결합된 '커먼즈(Commons)'적 접근이 어떻게 사회적 재생산 활동의 재구성을 통해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sup>

재생산 활동 또는 돌봄 활동이란 '인간 주체를 형성하고, 신체화된 존재를 유지시키며, 사회적 존재를 키워내는 활동'에 다름 아니다(프레이저, 2023; Aulenbacher et al., 2018). 하지만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생산과 재생산 활동을 분리하고, 일터와 가정을 분리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

---

1) 이 연구는 인구감소 자체를 위기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초저출산 현상 자체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재생산이나 돌봄 활동이 직면한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회현상 중의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시스템의 유지에 필수적인 돌봄 노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폭식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돌봄 노동은 경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미를 박탈당하여 왔다. 또한 일터와 가정의 분리를 통해 재생산 노동이 사적 영역으로 국한되고, 여성들이 가정내로 고립되면서 돌봄노동의 부담은 여성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최근에는 젠더화된 노동 분업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재생산 활동과 돌봄 노동이 경제적 독립과 해방적 삶에 대한 장애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고, 이것은 다시금 재생산과 돌봄노동을 '타인에게 맡기려는 필사적인 쟁탈전'을 강화시켜 왔다. 그 결과 돌봄 노동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대부분이 여성들인 저학력자, 중·고령자 또는 이민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가속화되어 왔다. 즉, 자본주의가 초래한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가 지속적으로 돌봄과 재생산 활동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로 치부한 결과 재생산의 영역은 철저하게 생산에 종속된 범주로 고착되어 왔으며, 돌봄과 재생산 노동은 가능한 한 기피하고 회피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프레이저, 2023).

이렇게 재생산활동 전체가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명목 하에 자본축적에 체계적으로 이용당하는 한편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는 그 가치와 의미가 전면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점점 더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가 되어 버렸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아마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재생산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는 경제적 독립과 해방적 삶에 대한 장애물로 인식되고, 자신의 인적 자본을 계발하고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 게다가 돌봄 노동이 사적 영역으로 고립되고 유향된 결과 돌봄 노동은 독박을 써야 하는 중노동이자 고역이 되어 버렸기에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왔다.

사회적 재생산이 처한 이러한 문제는 출산 행위와 저출산 정책에도 잘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현대 사회에서 혼인과 출산은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택하기 힘든 선택지가 되어 버렸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의 마련과 함께 혼인과 출산을 뒷받침하는 돌봄 노동을 타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혼인과 출산 선택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았던 반면, 현재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도 하락하고 있는 경향이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 정책은 점점 더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돌봄과 재생산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재생산 활동 자체가 점점 의미를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 노동력 공급을 위해 출산율을 유지하려다보니 출산과 육아에 대한 반대급부로 출산장려금이나 내집마련 지원 등 경제적 보상은 증가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사회적 재생산이 처한 위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초저출산 현상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관련이 있고, 이런 점에서 문제의 핵심은 생산과 재생산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재생산을 재구성하고 재생산 활동의 의미를 복원하는 것에 있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전면화된 이래로 재생산 활동은 체계적으로 평가절하되고 부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사회해방적 가치들과 신자유주의가 결합되면서 더욱 심화되어 왔다(프레이저, 2023).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은 경제적 가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왔던 돌봄 노동에 대해 다양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접근 자체는 재생산 영역이 생산 영역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여전히 재생산과 돌봄은 생산노동에 대한 장애물이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로

치부되고 있을 뿐이며, 다만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제적 보상의 형태로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초저출산 현상이 재생산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한 생산과 재생산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경계투쟁’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로 인해 재생산 노동이 체계적으로 부정되어온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프레이저, 2023).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하고 있는 ‘위스데이 별내’라는 협동조합형 아파트를 사례로 해서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의 실험이 어떻게 사회적 재생산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재생산 활동의 의미를 복원시켜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페데리치(Federici, 2013) 같은 여성주의자들은 사회적 재생산의 경계를 재설정하고 재생산과 돌봄 활동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커먼즈적 접근을 요구한다. 돌봄 노동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 자체가 여성과 여성의 돌봄노동이 가정 내로 유폐되었기 때문이므로 가정이라는 속박과 고립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영역에서 재생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재생산 활동의 의미를 회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재생산 질서를 구축하는데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적 영역에 갇힌 여성의 재생산·돌봄 노동을 공동체의 영역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젠더화된 노동분업을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페데리치, 2013). 즉 경제와 사회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며,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경계투쟁을 위해 ‘커먼즈’적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위스데이 별내 사례는 커먼즈적 접근을 통해 주거와 돌봄을 결합하여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위스데이 별내의 공식 사업명칭은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며, 기업형민간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중 협동조합 특화형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국내 최초의 아파트형 사회주택 실험인 '위스데이'의 경우 지난 4-5년 동안 사회주택을 '돌봄+공간'의 맥락에서 운영해 왔다. '더함'이라는 사회적 부동산기업이 시행사를 맡고, 입주자들이 모집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아파트의 주거공간과 공유공간 설계에서부터 조합원들의 참여 하에 추진되어 왔다. 1차 모집 단계에서 사회적 경제나 공동체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을 정도로 준비단계에서부터 공동체 활동과 공동체적인 육아·돌봄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육화친화형 아파트로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사실 주거와 돌봄은 사회적 재생산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는 곳'으로서 집 혹은 주택은 사실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고 휴식을 취하는 등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다름 아니다. 집이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공간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나 육아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Power and Mee, 2020).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주택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대표적인 가계자산이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노후, 교육, 혼인,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응 등 생애과정 전반이 자산 의존적이 되어가고, 내집마련을 하지 못하면 혼인과 출산을 생각하기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사회적 재생산 영역이 자산 의존적인 방식으로 제도화됨에 따라 자산소유 여부와 자산소유 규모에 따라 생애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의 기회 자체가 결정되는 경향이 심화되어 왔다(김도균, 2018). 게다가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거

공간의 설계는 근대적인 성별분업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재생산 활동을 가정 내에 고립시키는 경향을 강화시켰다. 돌로레스 헤이든(Hayden, 1982) 같은 여성주의자들이 20세기 미국의 주택설계가 여성들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비판한 것처럼 주거 공간은 젠더화된 노동분업 및 재생산 활동의 가정 내 유희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위스테인 별내의 사례는 주거와 돌봄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재생산을 재구성하는 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집을 단순히 주택 자산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공간으로서 재설정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공간을 설계하는 한편,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을 통해 돌봄과 재생산 노동을 사적 영역에 가두지 않고 공동체의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커먼즈적 접근이 돌봄과 재생산 활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창출해 내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위스테인 별내 사례를 통해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을 지향하는 사회주택 실험이 어떻게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을 재구성해나가고, 이것이 출산 의향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내용

첫째, 이 연구는 커먼즈적 관점에서 사회주택과 사회적 재생산에 관한 논의들이 이어져온 맥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위스테인 별내의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을 커먼즈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도시커먼즈 운동이 제기하는 쟁점들과 관련해서 사회

주택 혹은 사회적 부동산이 갖는 의미를 지적하는 한편, 사회적 재생산 논의에서 돌봄활동을 커머닝으로 해석해온 이론적 맥락을 살펴본다.

둘째, 이 연구는 아파트형 사회주택인 '위스데이 별내'의 공동체 활동, 이웃관계,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 사례의 분석을 통해 사회주택이 기존의 주택이나 주거공간들과 어떻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적 재생산의 경계를 재설정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간주택은 주거안정성을 제공하고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주택구입(housing affordability) 측면에서 단점을 지닌다고 평가받는다. 공공 임대주택은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지만 낙인효과 등으로 인해 보편적 주거형태로 확장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커뮤니티 기반의 사회관계망 구축을 통해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로서 확장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위스데이 별내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느슨한 공동체'와 '육아 친화형 아파트'를 표방하고,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을 벌여왔다. 이 연구는 남양주 별내에 위치한 아파트형 사회주택인 '위스데이 별내'의 공동체 활동과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 사례를 통해 사회주택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돌봄과 같은 사회적 재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재생산과 돌봄 활동이 어떻게 새롭게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획득해 나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사회주택의 주거권 보장과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이 출산태도나 출산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관련된다고 할 때, 위스데이 별내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돌봄 활동,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의 재구성이 입주민들의 혼인 또는 출산 의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위스테인 별내의 공동체활동이나 돌봄 경험이 출산 의향이나 출산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출산 의향 등에 대한 양적·질적 조사를 통해 입주동기, 공동체 활동 참여도, 주거만족도, 내집마련계획, 입주 전후 혼인·출산 의향, 육아부담 정도, 다자녀 출산 의향, 자녀교육계획 등을 분석할 것이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사회주택과 사회적 재생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고찰한다. 사회주택이 기존의 주택유형들과 어떻게 다른지, 사회주택의 차별성은 무엇인지를 기존의 논의를 통해 검토할 것이다. 또한 공동체 육아돌봄과 관련해서 그동안 커먼즈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던 사회적 재생산과 돌봄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스테인 별내가 사회주택과 공동체 돌봄활동, 또는 돌봄 커먼즈라는 이론적 틀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실제 사업이 추진된 과정, 입주 전 다양한 활동과 참여, 입주 이후 공동체 활동과 돌봄 활동 등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3장부터 5장까지는 설문조사와 그룹인터뷰 조사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과 육아돌봄 경험, 출산 의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우선 위스테인 별내에 어떤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으며, 입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웃들 간의 관계나 공동체 활동 경험을 증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다. 사회주택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공동체 지향이 결합되어 육아나 돌봄이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커머닝(commoning)의 과정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돌봄활동, 아버들의 육아참여, 육아스트레스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공동체 활동이나 공동체 관계, 공동체 육아·돌봄이 출산 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우선 자녀유무, 자녀연령, 자녀 수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다양한 집단들에서 공동체 육아·돌봄의 경험이 출산 의향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 양적, 질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 제3절 조사설계

####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위스데이 별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그룹인터뷰 조사와 설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sup>2)</sup> 첫째, 사회주택의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출산 의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그룹 인터뷰조사(FGI)를 실시한다. 사회주택의 차별화된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6개 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 조사를 진행한다. 둘째, 그룹인터뷰조사를 보완하고 일반화하는 차원에서 사회주택의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위스데이 별내'에 거주하는 482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가구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설문문항에는 입주동기, 공동체 활동 참여도, 주거만족도, 입주 전후 혼인·출산 의향, 육아부담·스트레스 정도, 다자녀 출산 의향, 돌봄공백 경험 등을 포함한다. 그룹인터뷰와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설계는 다음과 같다.

---

2) 그룹 인터뷰 및 설문조사 과정에는 김준석(제주대 사회학과), 이에원(제주대 사회학과), 홍서진(제주대 사회학과)이 조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사 전반에 걸쳐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 2. 그룹 인터뷰 조사(FGI) 설계

그룹 인터뷰 조사는 혼인, 출산, 연령 등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된 6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각 그룹 당 4명씩 총 24명이 그룹 인터뷰 조사에 참여하였고, 각 조사는 2시간 내외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그룹 구성 및 일정 일정과 연구참여자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1〉 인터뷰 그룹 구성 및 진행 일정

구분	특징	인터뷰 일정
1그룹	영유아 자녀 양육자 그룹	2024년 7월 19일
2그룹	초등학생 저학년 양육자 그룹	2024년 7월 19일
3그룹	초등학생 고학년 양육자 그룹	2024년 7월 20일
4그룹	영유아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 양육자 그룹(혼합)	2024년 7월 19일
5그룹	1인 가구 및 기혼 무자녀 가구 구성원	2024년 8월 12일
6그룹	시니어 주민	2024년 8월 12일

〈표 1-2〉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대	혼인여부	양육 자녀 수
1	A	남	30대	○	1
2	B	여	30대	○	2
3	C	남	40대	○	1
4	D	여	40대	○	1
5	E	여	40대	○	3
6	F	여	30대	○	2
7	G	여	30대	○	2
8	H	남	50대	○	3

## 22 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 남양주시 '위스테인 별내' 사례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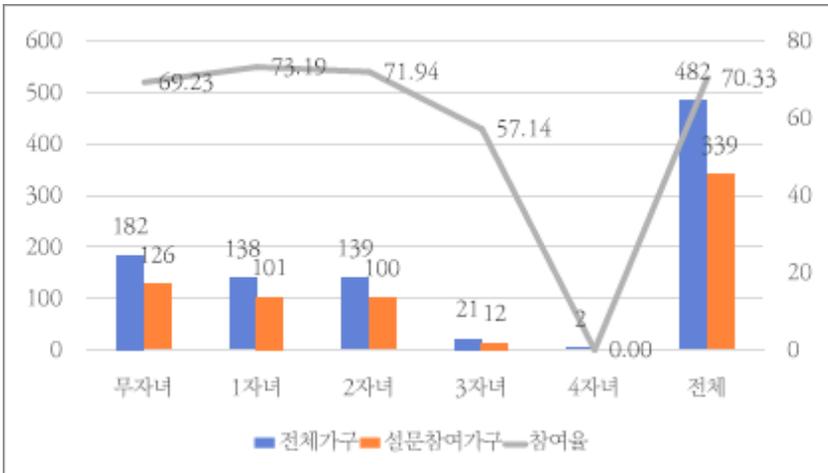
구분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대	혼인여부	양육 자녀 수
9	I	여	30대	o	2
10	J	여	40대	o	2
11	K	여	50대	o	1
12	L	남	40대	o	1
13	M	남	40대	o	3
14	N	남	30대	o	3
15	O	여	40대	o	2
16	P	여	40대	o	2
17	Q	여	30대	x	0
18	R	여	30대	o	0
19	S	남	40대	o	0
20	T	여	40대	o	0
21	U	여	80대	o	-
22	V	남	60대	o	-
23	W	여	60대	o	-
24	X	여	70대	o	-

### 3. 설문조사 설계

위스테인 별내 전체 공급 세대 규모는 491세대이며, 현재 9세대가 비어 있고 총 482가구가 거주 중이다. 설문조사는 전수조사로 진행되었고, 가구별로 가구원 한 명이 대표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가구별로 배포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2주 정도의 시간을 준 후에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482가구 중 총 339가구가 설문에 참여하여 응답률은 대략 70%에 달한다.

전체 가구 구성과 설문조사 참여가구를 자녀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자녀 이상 가구에서 참여율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무자녀 가구는 전체 182가구 중 126가구 참여(참여율 69.23%), 한자녀 가구는 전체 138가구 중 101가구 참여(참여율 73.19%), 두자녀 가구는 전체 139가구 중 100가구가 참여(참여율 71.94%)하였다. 반면 세자녀 가구는 참여율이 57.14%에 불과하였고 네자녀 가구는 총 2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모두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의 참여율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이 육아돌봄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설문조사자료가 모집단을 대표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림 1-1] 설문조사 참여가구와 참여율



설문문항은 9개 범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1. 기초항목, 2. 신뢰, 3. 참여, 4. 의식조사, 5. 주거환경, 6. 경제활동, 7. 여가 및 가족 생활, 8. 혼인 및 출산 가치관, 9. 자녀 양육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8. 혼인 및

## 24 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 남양주시 '위스데이 별내' 사례 연구

출산 가치관은 가구주 나이가 50세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9. 자녀 양육은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설문지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 사회주택과 돌봄 커먼즈

제1절 사회주택과 도시 커먼즈

제2절 사회적 재생산과 돌봄 커먼즈

제3절 위스테이 별내 소개



## 제 2 장 사회주택과 돌봄 커먼즈

### 제1절 사회주택과 도시 커먼즈

#### 1.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

한국에서 사회주택(social housing)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아직 사회주택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국내 법률이 없어 제도 차원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는 다소 구성적인 특성을 갖는다. 게다가 주택 종류는 건축 유형, 공급 또는 소유 주체, 점유 형태, 사용 방식, 공급 대상, 자원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때에는 이러한 기준을 활용해 사회주택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최경호, 2024, pp.53-55).

이러한 개념상의 불명확성이 한국적인 특성만은 아니다. 사회주택은 한 국가의 주택 시스템(housing system) 내에서 규정할 수 있는데, 주택 시스템은 문화적 특수성을 갖는 동시에 맥락 의존적이다. 따라서 사회주택이라는 용어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한 국가의 주택 시스템 안에서 다양하게 해석된다. 다만 개별 국가들의 주택 시장에 양질의 주택에 접근할 수 없는 가구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주택 유형이 존재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사실이고, 일반 주택시장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주택이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배분되는 주택 유형을 사회주택에 관한 일반적인 수준의 이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오르나 로젠펠트, 2017, p.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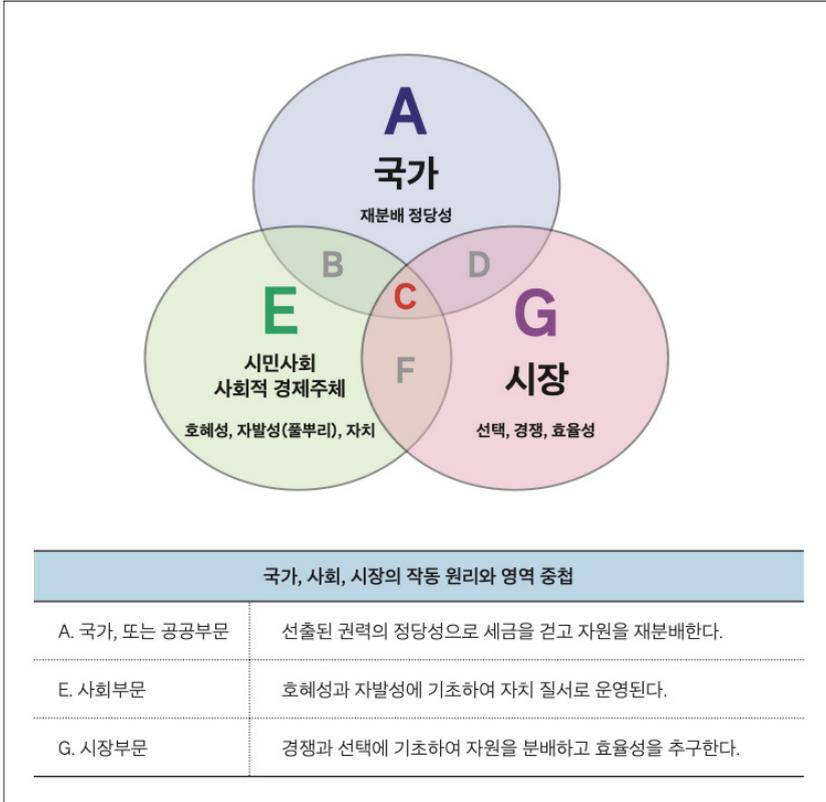
외국의 사례에서도 사회주택 유형에 대한 명칭은 상이하고 개념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캐나다에서는 사회주택

(social housing), 프랑스에서는 적정가격 주택(housing at moderate rent, HLM) 또는 사회주택, 덴마크에서는 일반주택(general(normal housing), 오스트리아에서는 제한 영리 주택(limited-profit housing) 또는 국민주택(people's housing), 스페인에서는 공공(공적) 보호 주택(publically protected housing), 미국에서는 공공주택(public housing)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오르나 로젠펠트, 2017, p.8; 최경호, 2024, p.105). 이들 국가에서 사회주택은 개념적으로도 다양하게 정의 되는데, 독일과 핀란드의 경우 공공의 장려금(독일)이나 국가 보조금(핀란드)을 받고 임대료 등 조건에 있어 정부 통제를 받는 부담가능한(affordable) 주택을 의미하고, 덴마크에서는 사회가족주택(social family Dwellings), 고령인 사회주택, 청년 사회주택의 3가지 유형을 집합적으로 지칭한다. 영국에서 사회임대주택(social rent housing)은 지방정부 또는 법률에 의해 자격을 인정 받은 민간 등록임대인이 소유하며, 사회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의 임대료 정책에 따라 목표 임대료가 제시된다. 미국에서 사회주택은 공공주택과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공공주택은 입주 자격이 있는 저소득 가구, 노인, 장애인에게 안전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고 공급되는 주택 유형이다(오르나 로젠펠트, 2017, pp.10-11). 이처럼 사회주택에 대한 명칭과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주택은 공공이 법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규정한 조작적 정의에 의존하고 있다(최경호, 2024, p.107). 그리고 각 국가의 사회주택에 대한 규정 사이에서 공통점을 추출해 사회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도모해보자면, 사회주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공공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점, 저소득층 또는 특별한 수요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점, 비영리 또는 공공이 공급 주체인 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이희숙, 2021).

한국의 주택 시스템에서 ‘저렴하고 장기간 임대 가능한 주택’(강세진, 2021)이라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사회주택은 주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급되어 왔다. 영구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사회주택이 소개되었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는 주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는 의미에서 사회주택이 사용되었다. 이후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이 지닌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등장했고, 2010년대 이후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등장하면서 주거 부문에서도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이희숙, 2021). 따라서 2010년대 이후 한국에서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거취약 계층에 공급하는 주택 유형으로 규정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경향에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과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최경호, 2024, p.83). 그리고 이같은 접근은 사회주택의 구성 요소 중 공급 대상과 사회적 목적 뿐 아니라 공급 주체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사회주택을 규정함에 있어 사회적경제 주체라는 공급 주체를 부각시킨 관점은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적 접근이 갖는 한계에 대응하는 국가-사회-시장의 3원주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최경호(2024, pp.60-62)는 빅터 페스토프(Victor Pestoff)의 ‘복지 삼각형’ 개념을 활용해 주택 분야에도 3원주의적 관점을 적용하기를 제안한다. 이 제안에 따라 국가-사회-시장의 3원주의 관점에 입각해 주택 유형을 이해하면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의 개념 차이도 명확해지고, 대안적 주택 정책의 입안의 가능성도 커진다.

[그림 2-1] 3원주의 관점의 주택 분야 적용



출처: 최경호(2024). p.64.

위의 그림에서 국가(A)의 작동원리는 정당성에 입각한 재분배이다. 시민사회(E)의 작동원리는 호혜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자치질서이다. 마지막으로 시장(G)은 경쟁과 선택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영역이다. 이같은 작동원리들은 각 부문이 주도하는 주택의 공급 과정을 규정한다. 그리고 작동원리 간 중첩 영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주택과 공공주택을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사회주택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중첩된 B, 시민사회와 시장이 중첩된 F, 그리고 세 영역이 모두

중첩된 C가 해당한다. 공공주택은 국가와 시민사회가 중첩된 B, 국가와 시장이 중첩된 D, 그리고 역시 모든 부문이 중첩된 C가 해당한다. 공공주택이지만 사회주택은 아닌 D 영역의 경우 공공이 건설해 분양하고 첫 번째 분양 받은 시민이 집을 팔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나 일반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짓는 임대주택에 공공이 지원하는 ‘뉴스테이’ 혹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포함된다. 반면, 사회주택이지만 공공주택이 아닌 F의 경우 공식적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어진 주택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최경호, 2024, p.65).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공공주택은 시민사회와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사회주택은 국가와 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차이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종합하면 사회주택은 “호혜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지원을 활용하여 주거 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최경호, 2024, p.66)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법률로는 아직 사회주택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서울특별시(2015)를 시작으로 사회주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여러 지역에서 제정되었으며 이들 조례를 통해 한국에서 사회주택이 현재 어떤 식으로 규정되고 있는지 추측해볼 수 있다. 이들 조례 역시 공통적으로 공급 주체로서 ‘사회경제적 주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역시 일관적으로 사회주택의 공급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목하고 있다.

〈표 2-1〉 사회주택 관련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및 각 조례 내 사회주택의 정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사회주택 정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제2조 1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제2조 1항)
경기도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 (제2조 1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제2조 1항)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제2조 1항)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제2조 1항)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거나 운영·관리되는 임대주택 (제2조 1항)
울진군 (경상북도)	울진군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청년,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 임차인 거주불안을 보완하기 위한 주택 (제2조 1항)

## 2. 도시 커먼즈로서 사회주택

사회주택은 도시 커먼즈 실천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 도시 커먼즈를 이해하기 앞서 커먼즈(Commons)라는 개념은 1968년 생태학자 개럿 하딘 (Garrett Hardin)의 문제제기로부터 유명해졌다.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논문을 통해 가속화된 인구

과잉의 문제는 공유지 혹은 공동자원(Commons)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딘은 책임성과 같은 개인적 덕목에 이러한 문제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동의된 상호강제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는 1970년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본격화된 시장화, 민영화의 주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하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다른 방식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논자다. 오스트롬은 국가와 같은 강력한 외부 강제력의 개입을 통한 개입이나 사유재산권 설정을 통해 자원을 관리하는 시장주의적 대응이 아니라 자발적인 집합 행동과 자치를 통해 커먼즈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한 사례를 분석하여 커먼즈 논의를 확장했다(Ostrom, 1990). 오스트롬의 연구 이후 커먼즈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지속가능한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적인 규범의 형성과 작동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이같은 접근들은 주로 촌락(rural)의 전통적인 공동체가 관리하는 공동목장이나 공동어장, 숲과 같은 커먼즈에 관심을 가져왔다(박인권, 2021; 윤여일, 2022).

그런데 최근 들어 전통적인 촌락 커먼즈가 아니라 도시에서 커먼즈를 형성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sup>3)</sup>가 위치한 지방은 기존의 촌락 커먼즈가 갖고 있던 조건들과 달랐기 때문에 도시 커먼즈적인 지향에서 전개된 사회운동적 실천들은 내재된 곤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도시 커먼즈가 촌락 커먼즈가 다른 점 첫 번째는 도시의 경우 토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자원과

3) 한국의 학계에서는 '도시 커먼즈'를 크게 두 가지 용례로 활용한다. 첫째, 촌락 커먼즈와 대비되는 도시 속 커먼즈 내지는 도시적 커먼즈(urban commons)이다. 둘째, 커먼즈로서의 도시(city as commons)다. 두 번째 용례는 도시를 시민들의 구상과 협력에 의해 (재)생산되는 생활 세계의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다(윤여일, 2022). 이 연구에서는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커먼즈라는 의미를 가진 첫 번째 용례로 '도시 커먼즈'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자산이 사유화되어 있고, 산림과 어장과 같이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자원이 적다는 점이다. 둘째, 도시의 경우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공동체를 이루기 어렵다. 셋째, 도시는 촌락에 비해 공간의 규모가 넓고, 경계가 개방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윤여일, 2022). 이러한 특징의 영향을 받아 도시 커먼즈는 촌락 커먼즈와 달리 특수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첫째, 커먼즈의 존재에 필수적인 공동체(communities)의 불확정성에 따른 어려움이다. 공동체의 불확정성은 공동체 내부의 유대와 동질성을 약화시키고, 이는 지속가능한 커먼즈 관리를 어렵게 한다. 둘째, 도시 커먼즈는 촌락 커먼즈와 달리 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특정 권리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자원의 관리를 위한 규범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셋째, 사유화된 자원과 도시를 주도하는 자본주의 질서는 도시 커먼즈의 존재를 위협한다(박인권 외, 2019).

도시 커먼즈가 마주한 이상의 곤경은 커먼즈의 세 가지 구성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커먼즈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자원과 이를 유지하는 관리 주체이자 이용 주체로서 공동체(communities), 그리고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치적인 규범과 제도가 필요하다(Kip et al., 2015; 박인권, 2021). 도시의 경우 공동체 형성이 어렵고, 공동체의 경계를 배타적으로 구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적인 규범의 등장이 난망하며, 사유화된 공간에서 안정적인 공동자원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도시 커먼즈의 존재는 항상 위협받게 된다(박인권 외, 2019).

특히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자원으로서 '공동의 공간'이 부재한 도시 커먼즈의 곤경은 커먼즈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곤경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회적 부동산'의 가능성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박인권, 2021). '사회적 부동산(social real estate)'은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성

회복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확보하고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최명식, 박윤미, 2019; 박인권, 2021), 공동자원(부동산)과 공동체(일정한 배제성과 유연한 경계), 제도(자치적인 규범)라는 커먼즈적 요소를 갖춘 도시 커먼즈적인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명식, 2022).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주택(부동산)으로서 사회주택은 사회적 부동산의 속성을 가진 도시 커먼즈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사례로 다루는 위스테이 별내 역시 마찬가지다. 위스테이 별내의 개발 과정과 입주 이후의 일상은 “호혜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지원을 활용하여 주거 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최경호, 2024, p.66)이라는 사회주택의 개념과도 상응하며, 공동자원과 공동체, 제도라는 커먼즈의 요소를 두루 갖추어 도시 커먼즈의 곤경에 대응하는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 제2절 사회적 재생산과 돌봄 커먼즈

최근 몇 년 사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돌봄’(care)의 공백을 정책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이를 정책화하고 있으나 전체 사회정책의 기초가 돌봄을 수행하는 개인과 가족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돌봄 정책의 강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전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는 총체적으로 돌봄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돌봄의 위기는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사회관계, 공동체, 경제와 문화 전반이 재생산되기 어려워진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 위기의 한 양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백영경, 2017).

그동안 사회적 재생산과 관련된 연구는 생물학적 재생산, 노동력 재생산, 돌봄 제공의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다뤄져왔다(Bakker, 2003; 2007). 한국에서 사회적 재생산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돌봄에 대한 주제들이 다수였고, 크게 임금 노동과 젠더 노동 관점에서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왔다. 이들 연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돌봄 이슈를 저임금 노동과 젠더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함으로써 사회적 재생산을 개인적인 삶의 질의 문제로 제한하고,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공동의 과업이라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박윤희, 백일순, 2021).

커먼즈(Commons) 논의는 사회적 재생산 논의에서 '사회적'이 가려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커먼즈는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체제를 거치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적 경로를 경유하는 고착화된 접근을 성찰하고 새로운 대안적 경로를 제시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커먼즈 개념의 등장은 공공성의 중심을 국가에서 시민으로 이동시켰다고 볼 수 있다(박윤희, 백일순, 2021).

그러나 커먼즈와 관련된 주류 담론에서 재생산 논의가 간과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커먼즈 논의가 여전히 생산의 영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재생산 논의를 소홀히 다뤄왔다고 비판한다(박윤희, 백일순, 2021). 페데리치(Federici Silvia)는 사회적 재생산과 커먼즈 논의를 결합해 사회적 재생산의 커머닝(commoning)을 주장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논자다. 그는 자본주의에서 여성의 재생산 노동이 어떻게 착취되는지 분석하고 그것이 자본주의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해왔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먼즈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페데리치는 남미의 여성운동,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논의를 발전시켰다. 1980년대 남미의 칠레와 페루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생필품이 귀해지자 여성들이 공동부척을 통해 공동체를 조직하고 재생산 비용을 절약해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아프리카의 사례에서는 여성들이 토지를 사유화하는 것에 반대하여 자급농업의 80%를 여성들이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커먼즈는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발전되어 온 역사를 갖고 있다(Federici, 2013; 2019; 박윤희, 백일순, 2021). 이러한 논의를 통해 페데리치는 여성과 공동자원의 역사에 주목하며 여성의 역사에서 커먼즈를 배우고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자원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젠더화된 재생산의 문제를 커먼즈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페데리치, 2013; Federici, 2019; 박윤희, 백일순, 2021). 페데리치는 여성들이 생산 영역 중심의 커먼즈 논의를 비판하면서 수행하는 사회적 재생산의 커먼즈는 재생산의 문제를 가정의 영역에서 해방시켜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Federici, 2019; 박윤희, 백일순, 2021).

이처럼 커먼즈는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국가와 시장으로 이분화되어 고착화된 기존의 사회적 재생산 논의에 대안적 관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는 복지국가에 대한 생태주의적 비판과도 연결된다. 가속화된 생태위기와 기후위기는 복지국가 제도에 대한 비판의 지점을 추가한다. 생태주의적 접근은 복지국가의 생산주의적 편향과 노동사회라는 전제, 그리고 국가 주도적 복지 제공이라는 특성이 생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Fitzpatrick, 2003; 홍덕화, 2018). 그리고 이러한 비판을 근거로 생태적 복지는 탈성장과 탈노동 지향, 복지의 지역화·공동체화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홍덕화, 2018).

생태적 복지의 이러한 원리는 복지 커먼즈라는 구상과 공유 기반을 형성한다. 복지에 있어 지역 공동체를 강화할수록 복지 정책을 커먼즈적인 시각에서 해석할 여지가 확대되며, 생태적 복지와 복지 커먼즈는 긴밀한 관계가 된다(백영경, 2017; 홍덕화, 2018).

이 연구에서 다루는 위스테인 별내의 경우 시장으로부터 공급되는 서비스나 국가에 의한 복지 수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의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돌봄의 공백을 메꾸는 사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커먼즈적인 시도이자 지역공동체에 의해 주도되는 복지 커먼즈로서 설명할 수 있다.

## 제3절 위스테인 별내 소개

### 1. 설립과정

#### 가.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도입(뉴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으로의 전환

정부는 2015년 1월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뉴스테이'(Newstay)를 도입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도입의 배경으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수요 증가를 지목했다. 그전까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에 집중되어 있었고, 거주 기간과 임대료 상승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등록 임대주택 제고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산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임대주택 공급 측면에서 정부는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 민간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도심 내 공공부지, LH 보유 토지, 그린벨트 지역 등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용자 지원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취득세와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이 정책적으로 제시되었다(국토교통부 외, 2015). 또한, 8년의 임대무기기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사업을 유지하거나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졌다. 한편, 수요자 측면에서는 뉴스테이 정책을 통해 공급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통장 보유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주택기금의 출자와 저리 용자, 세제 지원 등 전방위적인 공공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었다(권순형, 2017; 남철관 외, 2021).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적 기능은 최장 8년의 임대기간과 연간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하는 규정 밖에 없었다. 반면,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사업자가 시장가격으로 책정하여 주변시세와 비교해 저렴하지 않았고, 무주택 등 기존 공공이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도 폐지했기 때문에 주거 불평등 완화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7년 11월 기업형 임대주택의 명칭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내용적으로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꾀했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의 자격조건을 제한했고, 초기 임대료 수준을 통제했다. 또한 특별공급을 확보해 주거지원계층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아래 표는 이와 같은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2-2〉 기업형 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차이

구분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제한 없음	무주택자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료	제한 없음	일반공급: 시세 90~95% 특별공급: 시세 70~85%
특별공급	없음	청년: 19~39세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고령자: 65세 이상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연 5% 이내
의무임대 기간	8년	10년

#### 나. 협동조합형 시범사업<sup>4)</sup> 시행

본 연구의 대상지인 위스데이 별내의 경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에 하에 도입된 협동조합 참여 특화형 사업을 통해 공급된 임대주택이다. 2016년 9월 국토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과정에서 공급 방식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협동조합 참여 특화형 사업을 공고했다. 특화형 사업으로 도입된 협동조합형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기존의 임대 리츠<sup>5)</sup> 사업과 동일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으나, 협동조합 등이 민간 사업자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반드시 포함하여 3개 이상 5개 이내 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했다. 그 외에도 정부는

4) 협동조합형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최초 도입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의 사업 다양화를 위한 것이었고, 이후 전체 사업 기조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위스데이(Westay)로 불리게 된다.

5)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근거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뜻한다.

협동조합형 특화 사업의 사업신청자는 입주 개시 전까지 사업지구의 임차인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입주자 주택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할 것을 주문했고, 사업자는 입주 완료 시점까지 입주자 주택협동조합에 민간 출자 지분 전액을 양도하도록 했다(남철관 외, 2021).

2016년 10월 협동조합형 특화사업의 실행을 위해 LH는 경기도의 고양 지축 B-7BL 토지(32,650㎡)와 남양주 별내 A1-5BL 토지(30,631㎡)를 대상으로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고, 같은 해 12월 ‘더함 컨소시엄’(더함(사업주관사), 계룡건설(시공사), 대한토지신탁(자산관리), 이하 더함)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더함은 사업 선정에 따라 위스테이 지축과 위스테이 별내를 각각 개발하여 공급하였으며, 위스테이 별내의 경우 2020년 8월, 위스테이지축은 2022년 4월에 입주가 진행되었다.

시범사업의 주관사인 더함은 기존 뉴스테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문제를 여러 방면으로 진단하고, 협동조합형 사업의 의미를 살려 문제에 대응했다. 기존 뉴스테이 사업은 과도한 자본이익과 자본이익의 민간 사업자로의 귀속 문제를 통제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의 전환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으로의 변화는 주로 임차인 자격과 임대료 조건 등을 통해 기존 뉴스테이 사업에서 결여된 공공성을 보완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조치가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 이익의 문제에 개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하는데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한 임대주택 사업에서는 시행과 시공이 구분되지 않으며,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자본을 투자하여 법인을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 건설사업자는 높은 도급공사비를 책정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전체 사업비의 증가는 입주자들의 주거비

상승으로 귀결된다(사회혁신기업 더함, 202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재무구조에서 개발단계의 자기자본 20% 중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우선주 16%를 제외한 보통주 4%는 입주 이후 6%로 비율이 조정되는데,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입주 이후 보통주 6%는 건설사업자가 소유하게 된다. 이같은 구조는 주택의 입주자인 임차인과 건설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건설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들며, 운영 과정에서도 건설사업자의 수익이 중시되는 경향이 강화된다.

건설사업자가 지배하는 재무구조 하에서 분양 전환 시 발생하는 자본 이익 역시 건설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기존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수요 측면에서 공공이 입주 조건을 제한하고 임대료 책정에도 개입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공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발(건설)과 운영, 분양 전환까지 모든 과정에서 건설사업자의 이익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형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더함은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 개발 사업의 이익 극대화 경향을 통제하고 입주자 협동조합으로의 자본 귀속을 통해 민간 사업자로의 자본 귀속 문제에 대응했다. 입주 이후 보통주 6%는 모두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유하게 된다.

또한, 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운영 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건설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입주 전부터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 공용 시설에 대해 참여형으로 설계하고 입주 전 관계를 형성해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사회혁신기업 더함, 2021). 아래 표는 그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3〉 기존 사업의 문제점과 협동조합형 시범사업의 대응

기존 뉴스테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문제점	협동조합형 시범사업을 통한 대응
과도한 자본이익과 자본이익의 민간사업자 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과 시공 분리를 통한 개발 사업의 이익극대화 경향 통제</li> <li>• 입주자 협동조합으로의 자본 귀속</li> </ul>
운영 단계에 대한 고려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형 설계(커뮤니티 시설)</li> <li>• 입주전 관계 형성</li> <li>•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커뮤니티 시설 운영</li> </ul>

출처: 사회혁신기업 더함(2021)의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함.

## 다. 위스데이 별내 개발과 운영

위스데이 별내는 토지매입형으로 추진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사업비는 토지비 619억원을 포함한 1,962억원 규모로 책정되었다. 토지는 LH에서 제공한 택지를 조성 원가로 매입했고, 전체 사업비는 출자와 용자,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했다. 주택도시기금은 개발단계에서부터 전체 사업비의 16%에 해당하는 314억원을 출자했으며, 25% 규모인 491억원을 용자로 제공했다.

〈표 2-4〉 위스데이 별내 사업비 자원 조달

구분		개발단계				운영단계			
자기 자본	출자	우선주	주택도시 기금	314억원	16%	우선주	주택도시 기금	274억원	14%
		보통주	더함	58억원	4%	보통주	사회적 협동조합	118억원	6%
			대한토지 신탁	15억원					
		계룡건설	5억원						
타인 자본	용자	주택도시기금	491억원	25.02%	주택도시기금	491억원	25.02%		
		민간금융기관	747억원	38.07%	민간금융기관	747억원	38.07%		
	임대 보증금	임대보증금	332억원	16.90%	임대보증금	332억원	16.90%		

출처: 남철관 외(2021). p.49.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된 위스데이 별내는 8년의 임대 의무 기간을 갖는다. 임대주택이 운영되기 시작하고 8년이 지난 시점에 임대 리츠는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리츠 청산 이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관련한 논의가 위스데이 별내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는 위스데이 별내의 사업 및 입주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2016년 12월 사업 선정 이후 2017년 4월 사업 시행자인 더함 컨소시엄은 1차 조합원 123세대(전체 입주대상의 25%)를 우선 모집했다. 이들은 입주자 협동조합인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로 사회적경제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1년 이상의 공동체 활동 경험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전체 입주자 중 25%는 정책지원계층, 2%는 재능기부자로, 앞서 선정된 1차 조합원들과 함께 총 52%가 특별공급 세대에 속한다. 모집 대상 별 규모와 입주 현황은 <표 2-5>에 정리되어 있다.

<표 2-5> 위스데이 별내 사업 및 입주 과정

시기	내용
2017년 4월	1차 조합원 모집(123세대(25%), 설립동의자)
2017년 8월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허브리츠 신규 설립
2018년 3월	공동주택 착공
2018년 7월	2차 조합원 모집 및 임대차 계약
2020년 8월	입주 완료

출처: 남철관 외(2021). p.48.

〈표 2-6〉 위스테인 별내 공급 현황

타입	특별공급(세대)			일반공급 (세대)	계(세대)
	설립동의자	정책지원계층	재능기부자		
60A	27	37	4	10	78
60B	1	-	-	7	8
74A	17	67	4	85	173
74B	2	-	-	77	79
84A	51	19	2	4	76
84B	11	-	-	10	21
84C	8	-	-	24	32
84C-1	1	-	-	2	3
84D	5	-	-	16	21
계	123(25%)	123(25%)	10(2%)	235(48%)	491(100%)

출처: 남철관 외(2021). p.33.

## 2. 사회주택으로서 위스테인 별내

위스테인 별내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스테인 별내는 알려진대로 협동조합형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급된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와 공급자, 운영자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같은 구조 하에서 개발단계에서부터 협동조합을 통한 지분출자가 있었고, 시행과 시공이 분리되었으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 이익을 입주자 협동조합으로 귀속시키는 구조를 안에서 개발을 통한 이익극대화 경향을 통제해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협동조합 구조를 통해 개발과 공동체 운영 과정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역시 위스테인 별내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앞선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최경호(2024, p.65)는 뉴스테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일반 기업의 영리 목적 사업에 공공이 지원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택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공공지원의 형태를 차용하면서도 주택의 공급 과정과 운영을 사회적경제 주체가 담당하고 자본 이익 역시 입주자 협동조합으로 귀속시킨 위스데이 별내의 경우,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이라는 구조와 그것을 활용한 실천을 통해 사회주택으로 위치하게 된다.

둘째 위스데이 별내는 부담가능한(affordable) 주거를 목표로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특징으로 한다. 아래 표는 위스데이 별내의 임대료로 월소득 200만원(10분위 중 2분위) 계층도 부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주택단지의 관리를 입주자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 등 생활비용도 절감되고 있다.

〈표 2-7〉 위스데이 별내 임대 조건

구분	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선택 세대 수
60타입	85,000,000 (표준)	281,000	20
	30,000,000 (최소)	428,000	22
	162,500,000 (최대)	73,000	43
74타입	100,000,000 (표준)	384,000	60
	30,000,000 (최소)	572,000	62
	213,000,000 (최대)	80,000	122
84타입	110,000,000 (표준)	415,000	31
	35,000,000 (최소)	617,000	35
	233,700,000 (최대)	82,000	86
계			481

위스테인 별내의 임대 조건을 공공임대주택, 일반 민간임대주택, 그리고 다른 뉴스테인 아파트와 비교하면 위스테인 별내의 임대조건이 부담가능한(affordable)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위스테인 별내와 인접한 남양주시 별내 지역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급 면적이 세대원수에 따라 제한되어 있고<sup>6)</sup>, 소득 구간 별 임대조건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서 위스테인 별내와 단순 비교가 되지는 않지만, 위스테인 별내 60타입과 면적이 가장 비슷한 전용면적 56㎡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정리한 아래 표와 <표 2-7>을 비교해 볼 때 위스테인 별내의 임대조건이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크게 높은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 남양주 별내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2024년 입주자 모집) 임대조건(56㎡)  
(단위: 원)

구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1구간	26,789,000	228,020
2구간	30,616,000	260,600
3구간	38,270,000	325,750
4구간	49,751,000	423,480
5구간	61,233,000	521,210
6구간	68,887,000	586,360

아래 표 2개는 각각 84타입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민간 임대주택과의 임대조건, LH 공모형 수도권 지역의 다른 뉴스테인 사업지와 임대조건을

6) 세대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18㎡(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18㎡와 46㎡), 2인 가구는 46㎡, 3~4인 가구는 46㎡와 56㎡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비교한 것이다. 주변 지역의 일반 민간임대주택이나 수도권 지역의 뉴스테이 임대주택과 비교해보면, 위스데이 별내의 임대조건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 2-9〉 84타입 기준 주변 지역 민간 임대주택 대비 임대조건 비교

단지명	시행사	평균 매매가	평균 전세가
위스데이 별내	더함		2억7,400만원
별내아이파크2차	현대산업개발	4억9,000만원	3억8,000만원
별내푸르지오	대우산업	4억4,000만원	3억5,000만원
별내리슈빌	계룡건설	4억2,000만원	3억3,000만원

출처: 사회혁신기업 더함(2021). p.28의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함.

〈표 2-10〉 84타입 기준 LH공모형 수도권 타 뉴스테이 사업지 임대조건 비교

사업지	시행사	보증금 등(원)	월 임대료(원)
남양주별내 A1-5BL	더함	1억5,000만	45만
위례 A2-14	대림산업	4억4,500만	44만
수원 호매실	현대건설	1억300만	62만
화성 동탄2 A14	대우건설	8,000만	89만

출처: 사회혁신기업 더함(2021). p.28의 내용을 저자가 재구성함.

### 3. 공동체 활동과 공동체 육아 돌봄

위스데이 별내의 또 다른 특징은 아파트 공동체 문화이다. 위스데이 별내의 아파트 공동체는 시공 단계에서부터 참여형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 공간과 이곳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모임, 그리고 입주자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된다.

위스테인 별내의 커뮤니티 공간은 법정 기준의 2.5배인 300㎡에 달하며, 카페, 도서관, 키움터(유아놀이방), 자람터(다함께돌봄센터), 세탁실, 공유부엌, 목공실, 체육관, 방송국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위스테인 별내의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물리적 배경에는 바로 이 커뮤니티 공간들이 존재한다. 착공 이전부터 설립된 입주자들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커뮤니티 공간의 활발한 운영에 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을 주도했다.

참여형 설계 과정은 위스테인 별내 커뮤니티 공간의 특징을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위스테인 별내의 일부 커뮤니티 공간들은 시공 단계에서부터 참여형 설계를 통해 만들어졌다. 참여형 설계 과정은 착공 이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용 공간의 기본적인 뼈대는 이미 설계된 대로 시공이 되었으나, 참여형 설계 과정을 통해 가벽을 삭제/추가하거나 가구를 배치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장비와 집기를 선정해 공간 내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스테인 별내의 커뮤니티 공간 중 참여형 설계 과정을 통해 설계된 장소는 도서관, 창작소, 체육관, 카페, 어린이집이 있다(남철관 외, 2021).

50 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 남양주시 '위스데이 별내' 사례 연구

[그림 2-2] 위스데이 별내 커뮤니티 공간



동네카페



마을창작소



키움터(유아놀이방)



자람터(다함께돌봄센터)



동네부엌



동네책방

출처: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2024a).

위스टे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은 위스टे이 별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공동체적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한다([그림 2-3] 참조). 위스टे이 별내 입주자는 전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1세대 1조합원), 협동조합은 입주 전부터 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교육 위원회, 약속 위원회 등 필요에 따라 입주민 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체 활동을 준비했다. 현재는 백개의학교 소위원회, 돌봄 소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소위원회 등 위원회가 추가되어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이 더욱 확대되었다([그림 2-4] 참조).

[그림 2-3] 위스टे이 별내 공동체 활동



동네책방 어린이 프로그램



잔디광장에서 공동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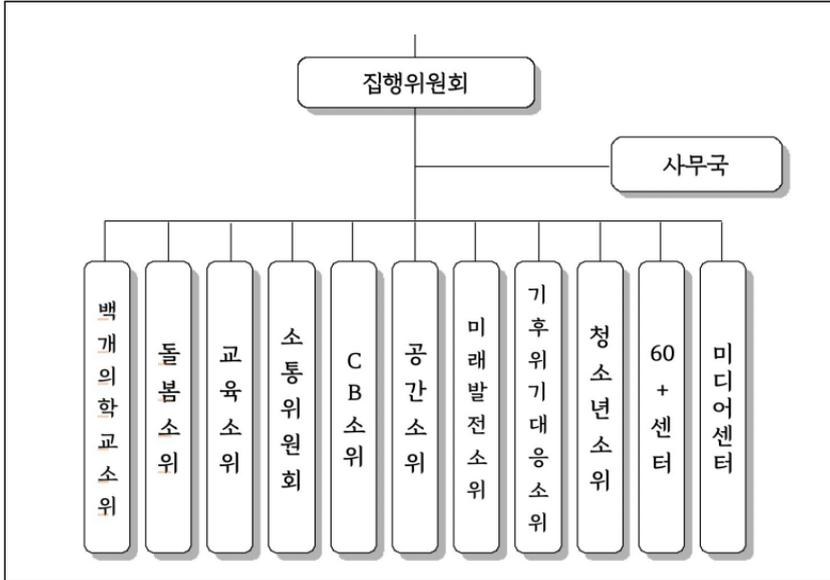
단지 내 물놀이



카페 스캐아에서의 돌봄 프로그램

출처: 위스टे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202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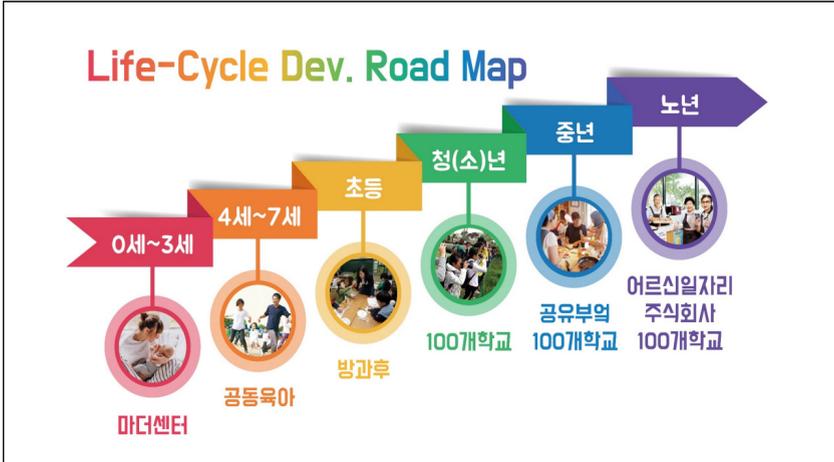
[그림 2-4]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집행위원회 구성



출처: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2024a).

입주 후부터 주민들을 중심으로 운영된 ‘백개의 학교’ 프로그램은 위스데이 별내가 지향하는 공동체 기반 학습 플랫폼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에는 36개 강좌가 총 443회 운영되었으며 2023년에도 15개 강좌가 개설된 바 있다. ‘백개의 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위스데이 별내에서는 키움터, 자람터와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 돌봄 및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이 이뤄지고 있으며, 60+센터에서는 노인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진행된다. 이처럼 위스데이 별내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은 공동체적인 방법을 통해 생애주기별 돌봄을 수행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위스टे이 별내 생애주기별 공동체 기반 평생교육 구상



출처: 위스टे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2024a).

한편, 위스टे이 별내의 입주자들은 단지 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시도하고 있다. 위스टे이 별내의 주민들은 로컬푸드 중심으로 식품과 잡화를 취급하는 ‘협동상회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며, 건강한 어린이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 협동조합을 만들어 ‘카페 스깨아(‘스스로 깨치는 아이들’의 줄임말)’를 운영한다. 협동상회와 카페 스깨아는 리츠 소유의 아파트 상가에 입주해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시니어들이 택배를 배달하는 마을 택배 회사 ‘60플러스협동조합’은 남양주시니어클럽과 제휴하여 활동하고 있다.<sup>7)</sup>

7) 정원각. (2024.3.14.). [사회적경제기업, 그 생생한 현장을 가다] 미래의 주택협동조합 위스टे이 별내사회적협동조합. LIFEIN.





## 제3장

### 이웃관계와 공동체 경험

제1절 입주 전 주거·돌봄 경험과 입주 계기  
제2절 입주 이후의 이웃관계와 생활 경험  
제3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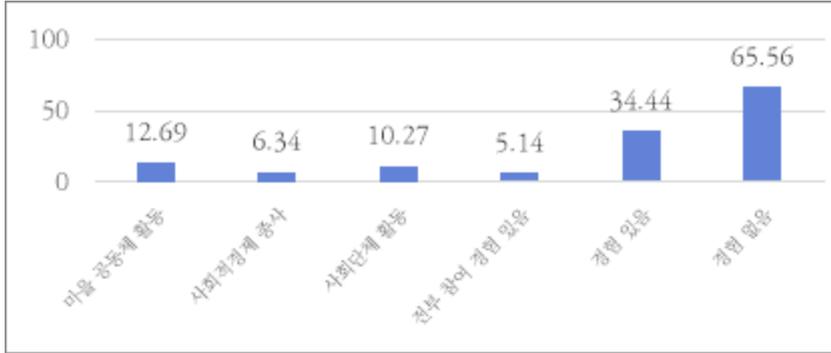
## 제 3 장 이웃관계와 공동체 경험

### 제1절 입주 전 주거·돌봄 경험과 입주 계기

#### 1. 입주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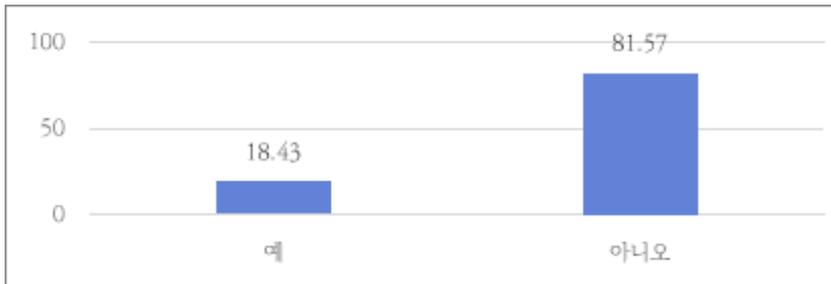
위스태이 별내는 시작부터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아파트로서 ‘느슨한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경험이나 사회단체활동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1차 조합원 모집은 사회단체활동 경험이나 재능기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집하였다. 2017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할 때 1차 모집과 2차 모집이 진행되었는데, 1차 모집 때는 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거나 재능기부가 가능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모집을 했으며, 2차 모집은 일반모집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총 응답자 339명 중에 114명으로 34.44% 정도가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합원 중에 1차 조합원으로 설립동의자 또는 재능기부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체 491세대 중에 27% 정도였기 때문에 설문조사에서는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사회단체 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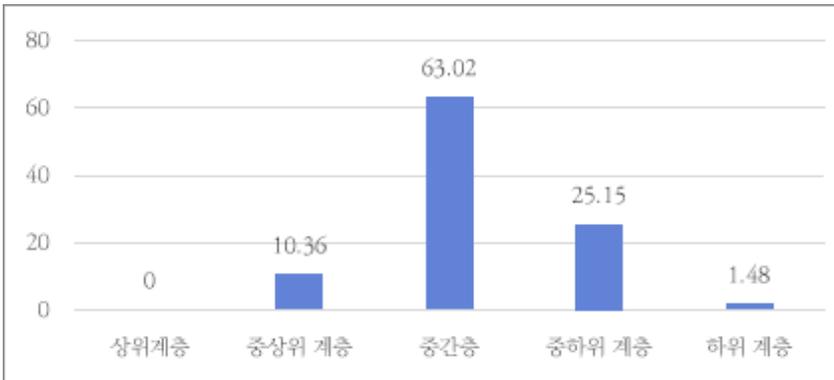
위스데이 별내의 경우 부모나 배우자부모, 자녀와 단지 내에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들이 있다. 위스데이 별내는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 자격에 제한조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당시에 자녀돌봄이나 부모돌봄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부모나 배우자부모와 함께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현재 단지 내에 부모나 배우자부모, 자녀세대 등 친인척이 거주하는 경우는 응답자 339명 중 61명으로 18.43%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 단지 내 친인척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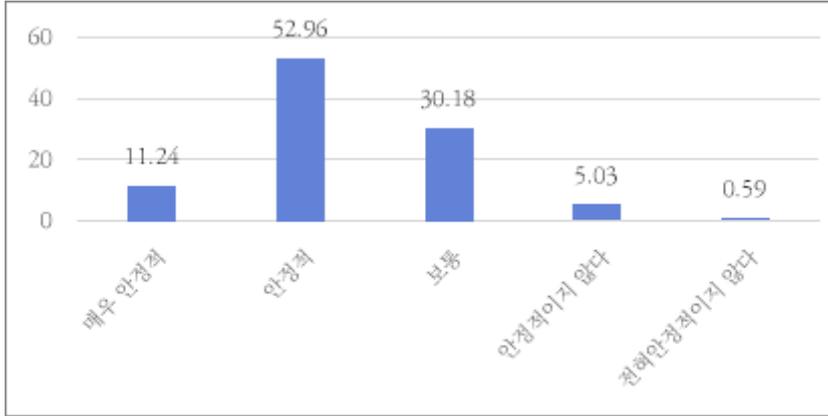
입주자들의 주관적인 계층의식을 살펴보면 스스로를 중간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63.02%로 상당 부분이 스스로를 중간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하위계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2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상위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10.36%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스스로를 하위계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48%에 불과하고, 상위계층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아예 없음을 알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스스로를 중간층의 범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림 3-3] 계층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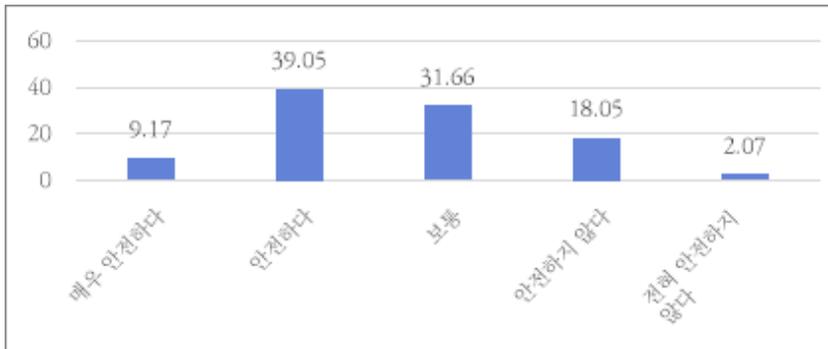
위스테인 별내 입주민들은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현재 삶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52.96%이었으며, 매우 안정적이라는 응답도 11.24%에 달했다. 반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5.62%에 불과했다.

[그림 3-4] 삶의 안정성



한국 사회에 대한 의식은 어떨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을 때, 안전하다는 응답은 39.05%,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은 9.17%로 절반 정도가 한국 사회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0% 정도였다.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정성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사회 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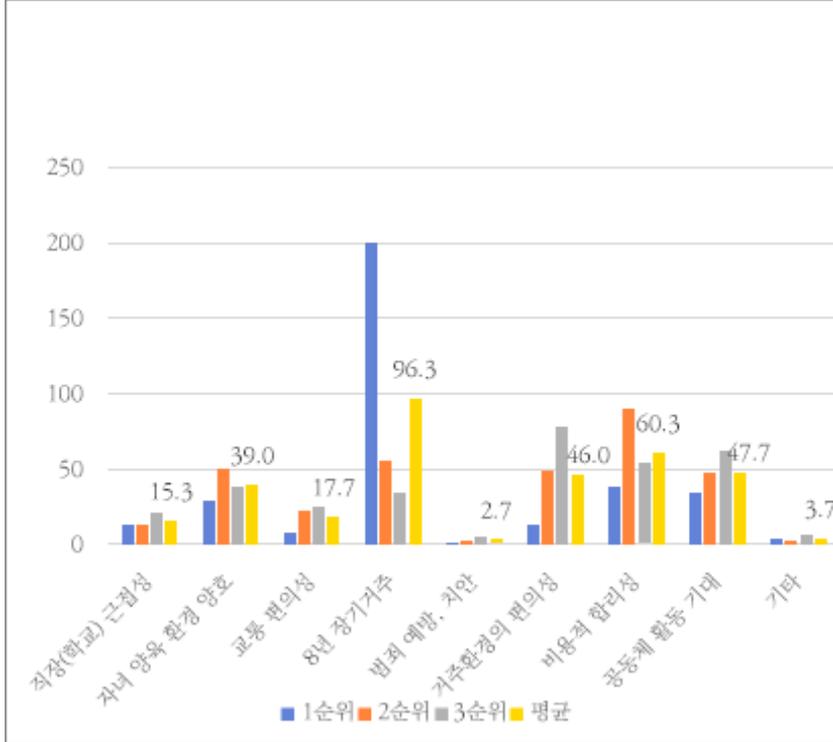


## 2. 입주계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스데이 별내는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아파트 시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당시 신청자들은 협동조합형 아파트가 무엇인지, 공동체를 지향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없었다. 그렇다면 위스데이 별내 입주를 신청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위스데이 별내에 입주 신청을 하게 되었을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 위스데이 별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거주하고 있을까?

먼저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입주를 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자. 설문조사에서 위스데이 별내 거주(입주)를 선택한 이유를 우선순위로 3개까지 선택할 수 있게 질문을 하였다. 그 중에서 8년 동안 장기거주가 가능(안정적인 주거확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비용적 합리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대, 거주환경의 편의성(다양한 주거 서비스 제공), 자녀 양육 환경이 양호해서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다. 주로 주거·주택문제가 입주를 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였음을 할 수 있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대나 자녀양육 환경 때문에 입주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 입주를 선택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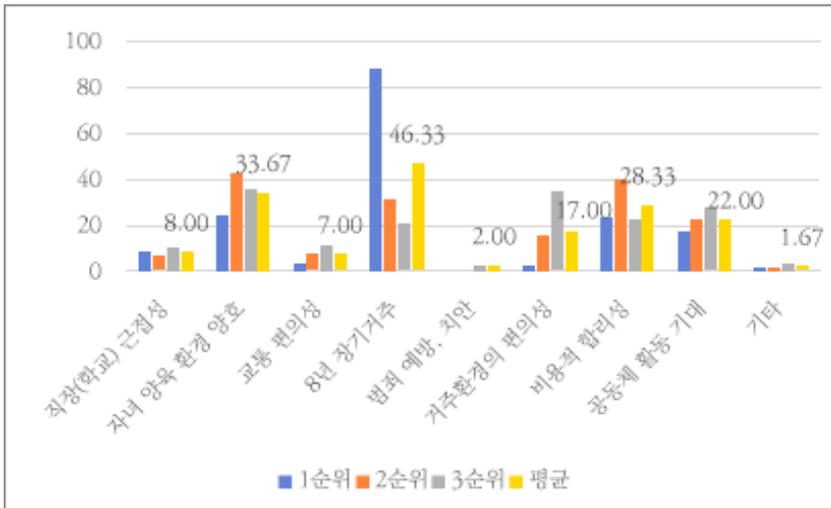


주: 그래프 내 수치는 각 항목의 1-3순위 평균 응답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스टे이 별내는 육아친화형 아파트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고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만을 대상으로 위스टे이 별내에 입주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 환경을 고려해서 입주를 했다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여전히 8년 동안 장기거주가 가능(안정적인 주거확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다음으로 자녀 양육 환경이 양호해서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조합원을 모집하던 당시에는

협동조합형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집 당시에는 주거 안정성이나 주거비 절감 등 가시적인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모집 단계에서부터 자녀 양육환경이나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대 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림 3-7] 입주를 선택한 이유(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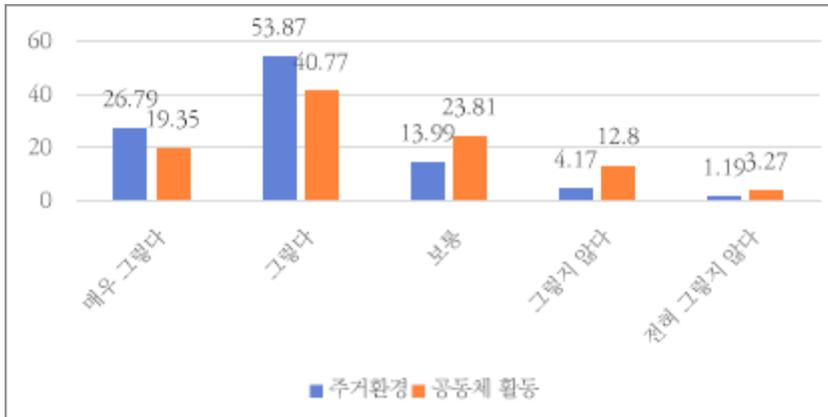


주: 그래프 내 수치는 각 항목의 평균 응답률(%)

다음으로 입주 당시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입주했는지 살펴보자. 입주를 선택한 이유가 주로 주택·주거, 공동체·육아 등에 있었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대한 기대와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대가 입주 선택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요인을 비교해 보면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대보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가 입주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입주 당시 주거 환경에 대한 기대가 입주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3.9%,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6.8%로서 합계 80.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입주 당시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대가 입주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질문에는 60.2%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공동체 활동 유경험자들이 주축이 되어 사업이 추진된 결과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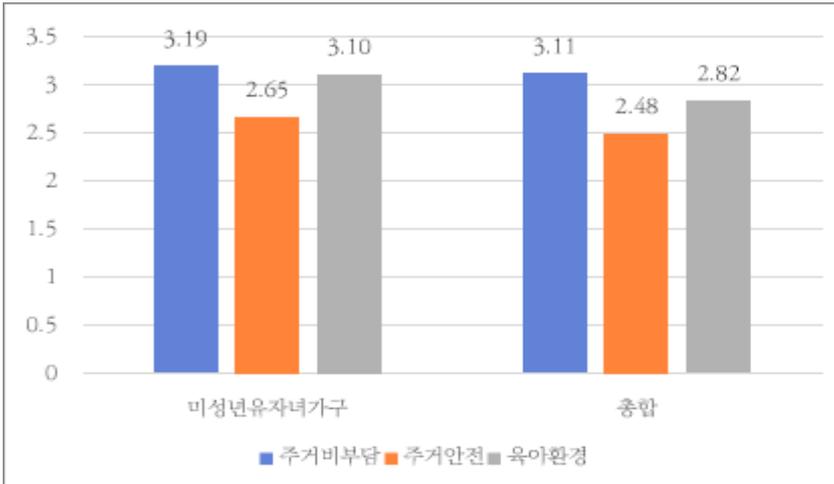
[그림 3-8] 입주 당시 기대 요인



다음으로 입주전의 주거환경에 대해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비 부담 같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어려움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입주 전 주거비(또는 대출금)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이 있다'(주거비 부담)는 질문은 5점 척도로 평균 3.11점이었던데 반해, '입주 전에 살던 곳은 안전하지 않았다'(주거안전)는 질문은 평균 2.48점, '입주 전에 살던 곳은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았다'(육아환경)는 질문은 평균 2.82점이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면, 주거비부담과

육아환경 요인에서 평균 점수가 각각 3.19, 3.10으로 약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주거비나 육아환경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그림 3-9] 입주 전 주거 환경



주: 설문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 3. 입주전 주거·돌봄 경험

#### 가. 주거불안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체로 주거문제와 돌봄환경은 입주자들이 위스테인을 선택하게 된 대표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인터뷰에서도 경제적 부담이나 불안정한 임대기간, 열악한 주거환경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울 또는 수도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사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한다. A는 지방에서 살다가 위스테인에 입주

하게 된 경우이고, 지방에서 살기 전에는 서울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 신혼 때 부부 두 명의 소득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집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알아보려고 해도 부부 두 명이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안 돼서 공공임대도 신청할 수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던 터라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를 꺼리게 되었다고 한다.

A: 아파트들의 가격을 당시에 봤을 때에도 **둘이 벌어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그럼 대안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인데..사실은 편견도 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신혼부부인 2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M은 결혼하고 빌라에서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빌라에 살면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를 신청했었는데, 탈락한 후부터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 한다. 2년마다 이사를 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임대아파트 신청한 것도 안 되다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컸다고 한다. 또한 2년마다 이사를 하게 되면서 주거지가 서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출퇴근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것도 스트레스가 심해진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위스데이 별내를 알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M: 빌라에 4년 살다가..분양 전환형 공공임대 민간 임대라고 하죠...그걸 넣어봤어요...넣어봤는데 똑 떨어졌어요...한 번 떨어지니까 이거 봐라 이거 어떡하지..그러던 와중에 이제 미래에 대한 이 위기감이 들면서 이제 어떡하지 **2년마다 이제 옮기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 그러던

와중에 와이프가 이제 검색하다가 위스데이 아파트 모집한다고..

M: 2년이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2년 재계약하면서도 같은 조건으로 알아보게 되면은 또 더 먼 데로 수도권에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위기감이 사실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사실 직장 왕복 거리가 2시간, 편도로 2시간이었거든요...근데 거기서 더 멀어지게 생긴 거예요.

N도 마찬가지로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조건, 그리고 위스데이가 가격적으로도 매우 매력적이었던 점이 입주를 선택하게 된 주요 계기였다고 한다.

N: 저도 빌라나 이런 데 살았었으니까 **그냥 옮겨다니는 거죠. 자기 딱 예산에 맞게..** 올리면 또 옮겨 다니고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N : 가격적인 거가 엄청 크긴 했죠. 그리고 **어쨌든 안정성이 컸고.. 이제 8년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주어지고..**크게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감하죠.

임대 살면서 이사 다니는 것이 힘들어서,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 다니게 하고 싶어서, 내 집을 마련하더라도 이자 부담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무리해서 대출을 받다보니까 내 집이더라도 여전히 경제적 부담은 지속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힘들었다고 한다.

E: 한 7년 정도 이상을 전세를 살면서 계속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마음**

좋이면서 이사지를 또 계속 찾아야 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주거 환경 그리고 그때는 한 30년이 넘은 빌라에서 있다 보니까 주변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아이가 좀 안전하게 학교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그래서 이제 고양시로 이사를 하면서 조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자가를 소유하게 됐었는데..**자가가 있다 해도 이제 대출이 계속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이가 막 태어나거나 태어날 예정인 경우와 같이 아이들이 어린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은 위스데이 별내에 입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의 하나였다. 어찌어찌 서울에 살 집을 마련해서 살더라도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기존에 살던 곳은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 비좁고 위험해서 이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B는 서울에서 세 가족이 12평 집에서 비좁게 살았는데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게 되면서 집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가진 돈으로 서울에서 네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기는 어렵도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위스데이 별내라는 아파트가 마침 평수도 넓고 거기다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아파트가 어떤 건지는 잘 몰랐지만 일단 4인 가족이 안정적으로 괜찮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감사했으며, 입주 당시에 공동체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B: 아기가 이제 돌이 지나고 서울 집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저희가 12평에 살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아서 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일단 집이 있다면 어디라도 가자. 거기 가면 **8년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 근데 공동체 아파트야.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기대 반 걱정 반** 저는 그렇게 온 것 같아요.

B: 합격 소식 딱 듣고 임신한 배를 잡고 뛰었어요... 일단 갈 곳이 있다... 서울에서 저희가 가진 돈으로 이제 4인 가족 집을 살아야 되는데 이견 **택도 없다** 이거 어디 갈 수도 없다. 지금 사는 것도 기적인데 근데 됐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너무 감사한...

## 나.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 경험

자녀가 어린 세대들 중에서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위스테인대로 이주한 경우도 많았다. 임대아파트 생활 자체는 만족스러운 편이었으나 아이가 태어나고 가족이 늘어나게 되면서 평수가 너무 작아서 이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경우들이 많았다. 더 넓고 좋은 주거환경으로 이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상황에서 공동체 활동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단 가성비 좋은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F: 임대 아파트...작은 평수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어서 이사에 대한 고민은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이제 **우연찮게** 위스테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때는 사실 공동체.. 뭐 이런 활동이나 삶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렴한 주거비에 넓은 평수 그리고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많이 고려..

L: **첫 번째 욕망은 넓은 집으로 가자.** 그 다음에 어쨌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되게 좁은 공공임대주택에 살았는데.. 아이가 크다 보니까 좋은 환경으로 일단 옮겨보자는 이제 전망들이 있었죠.

P: 저는 공무원 임대주택을 4년 살았었어요...그때는 애가 없었고 애가 이제 태어나서 거기 살았는데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았거든요...근데 협동조합이 어찌고 막 얘기를 하셔서 저도 **약간 걱정이 돼 가지고** 그래도

한번 넣어보자

O: 저는 별내 여기 국민임대 살다가..30년 거주할 수 있고 근데 평형이 작아요. 51형이니까 20평 남짓하죠...되게 만족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크고 하면서 이제 **너무 집이 좁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는 우선적으로 가격적으로..너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위스데이 별내는 8년 동안 거주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평형도 넓게 설계된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아파트였으며, 시행사인 '더함'은 입주자 모집할 때 8년 동안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경험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 게다가 공공임대 아파트는 지원자격도 까다로워서 입주하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들도 있었다. 그래서 일단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위스데이 별내가 공동체 활동이나 협동조합형 아파트로 추진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도 일단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공동체 활동이나 참여 같은 것에 대한 걱정이 한편으로 있더라도 충분히 감내하고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거문제 해결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었고, 공동체 활동이나 생활에 대한 관심은 후순위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위스데이 별내는 보통 공공임대아파트에 비해서 평수도 넓고,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가격도 메리트가 있으면서 지원 자격도 까다롭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아파트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다.

## 다. 입주전 돌봄환경

입주자들 중에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들은 입주 전에 살던 곳의 주변 환경이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사를 하게 된 경우들도 많았다.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경우들도 있었다. 달동네나 오래된 동네, 재개발 지역에서 살았던 경우 집에 벌레도 많이 나오고 언덕빼기도 많아서 물리적 조건 자체가 아이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

D: **걸어 올라가는 데만 한 30분 걸리는 그런 달동네였고** 재개발 지역 이었고. **바퀴벌레와 지네가 막 일상적으로 나오는...** 아이를 낳고 이제 여기 와보니까 제가 그 이전 집에서 애를 못 키웠겠구나라는 게 현타가 딱 오더라고요

G: **저희도 이제 서울에서도 약간 옛날 동네다 보니까.. 언덕도 많았고요. 길도 좁고.. 학교 가는 길도 되게 좁은 인도를 통해서 신호등 여러 번 건너고.. 놀이터 같은 곳도 가려면 이렇게 많이 가야 되고**

집밖이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다. 아이를 데리고 집밖에 나가면 위험요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였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에서는 오토바이나 자동차 때문에 골목길에 나서는 것조차 힘든 경우들이 많았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시기에 오토바이나 차 때문에 집밖에 나가기가 너무 위험해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C: 애가 걸음마를 떼고 막 걸어야 되는 시기에 그 **빌라 앞에 나와서 애를 걷게끔 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지나가고 차 지나다니고..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애를 (몸짓과 함께) 이렇게 안고 걷게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는 아니다..

공공임대 아파트가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낀 경우도 있다. 입주 초기에는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도 엄마들끼리 공동육아 형태로 육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잘 지냈는데, 2년 주기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L: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도 공동육아 형태의 그룹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친해진 아이들의 엄마들이 공동육아 형태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근데 이제 2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는 거죠. 더 살 거냐 말 거냐 그때..좀 다른 분위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 불편한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 4. 고령자들의 입주 계기

앞에서 위스데이 별내는 부모나 배우자부모와 함께 입주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고령자들의 경우 자녀가 신청해서 단지 내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된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위스데이 별내에는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함께 입주할 수 있게 아예 가벽 형태로 거주공간을 분리해서 설계한 세대들도 있는데, U가 그런 경우이다. U는 현재 손녀가 하나 있는데, 자녀세대와는 가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자녀는 원래 출산 계획이 없었고, 부모를 근거리에서 돌볼 목적으로 위스데이 별내에 두 세대를 신청해서 입주한

경우인데, 입주 전에 우연히 아이가 생겨서 현재 할머니인 U가 손녀를 돌보면서 지내고 있다. X의 경우는 손자녀는 없지만 자녀가 부모를 돌볼 목적으로 함께 살자고 해서 입주하게 된 경우이다. W에 따르면 단지 내 나이든 사람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입주하게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U: 지금 만 4살 반 되는 손녀(돼지띠??)가 하나 있어요...딸네 식구랑 같이 입주를 해서 손녀를 돌보고 있고...이렇게 분리가 돼서 따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현관문이 따로 있고 실내에 가벽이 있는데...이제 가벽을 안 뜯 채로 완전히 2세대...거실도 둘 주방도 둘 화장실도 둘... 걱정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우리가 만나서 앉아서 놀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렇게 편하고 좋은 데가 없을 거다 그러거든요.

U: 딸이 결혼해서는 아이는 안 가질 거다. 이제 그러니까 나도 이제 혼자 살고 있었고 딸애는 \*\*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고...자기들 마음속으로는 이제 엄마 따로 떨어져 살고 보니까 마음에 늘 걸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이제 같이 살면 되겠다 그러고는 뭐 나한테 물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신청해놓고 그러고 집은 짓고 있는 사이에 아이가 왔어요...애가 이제 입주 전에 태어났죠....나이가 있는 엄마 혼자 두기 그러니까 같이 이제 생활하겠다고

X: 딸이 \*\*에 살고 저는 \*\*에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이사 와가지고 다 합쳤어요...딸하고 우리 사위가 자식은 없어요. 우리 어른만 살지. 아직은..이 집에는 애가 없는데 어머니 같이 살자고..자꾸 이제 이사 가면 엄마 일로 살러 오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그리고 와보니 너무 좋아요.(웃음)

W: 생활하시는 분들이 가족끼리 따로 한 동에서 딸 며느리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사돈끼리도 살고..바로 밑에는 딸이 살고 바로 위에는 시부모가 살고...그런 집안들이 좀 있어요. 여기

V는 현재 위스테인 별내 노인회장을 맡고, 60플러스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뷰 참가자 중에 유일하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이다. 자녀들은 모두 분가해서 살고 있고, 자신은 지인의 소개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취지에 공감을 해서 노후를 보내기에 좋게다고 생각해서 입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V: 지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기는데 집은 뭐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직 꿈을 펼치기는 그렇지만 여기서 노후를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식의 권고를 받고...

## 5. 1인 가구/무자녀 기혼가구의 입주 계기

1인 가구나 무자녀 기혼가구의 경우들은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위스테인 별내를 알게 되어 입주한 경우들이 많았다. S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위스테인 별내 사업을 알게 되어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입주를 하게 되었다. 입주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입주 후에 결혼해서 거주하고 있다. R의 경우는 이전부터 남양주시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결혼을 준비할 때쯤 위스테인 별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신혼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S: 3년간은 혼자 살았고 지금 결혼해서 지금 1년 됐습니다...제가 이제

좀 사회적 경제 이쪽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위스테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걸 처음부터 이제 알게 됐었고...사실 자세히 모르고 좋은 일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근데 여러 가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혜택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참여하게 됐고요.

R: 저는 남양주시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계속 해 왔었구요. 그래서 초창기에 별내동에 사회주택 협동조합 아파트가 생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관심 갔고..기획부터 조금 초창기 때부터 같이 활동을 하면서 입주하게 됐고 그러고...저희가 막 여기 아파트 협동조합 아파트가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돌 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서 그러면 신혼생활을 여기서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T는 서울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주변에 협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로 신청해서 입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협동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었지만, 장기 전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력적이어서 신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T: 저희도 큰 평수에 남편하고 저랑 둘이 살고 있고요. 저는 서울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여기로 이사 왔어요...입주 전에 결혼해서 살고 있고 여기 위스테이를 좀 기획하고 협동조합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얘기를 들어는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그냥 들은 적이 있었고 여기 이제 입주 모집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 좀 얘기를 해줘서...장기 전세라든지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좀 설득해서 왔습니다.

Q는 1인 가구로 입주해서 지내고 있는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광고를 보고 우연히 알고 신청해서 입주하게 된 경우이다. 광고를 보고 끌려서 신청했고, 또 자신의 전공 특성을 살려서 재능기부자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하게 되었는데 주거환경이 좋아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한다.

Q: 혼자 들어오게 돼서 4년간 계속..처음에 이제 SNS 광고를 보고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또 운이 좋게 제가 미술 전공했는데 그 지도자 같은 프로그램 그거를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때 경쟁률이 원래 더 치열했는데...재능 기부 그걸로 해가지고 좀 운 좋게 추첨이 잘 돼서 들어오게 됐는데 집이 너무 좋고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이나 그리고 주변 환경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서울 살 때보다 좀 여유도 생기고 좀 쉬는 느낌이 나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냥 모집 광고 같은 게 약간 그 스토리에 있었는데 그거를 우연히 봤는데 뭔가 약간 뿔이 찌르르 와서

## 제2절 입주 이후의 이웃관계와 생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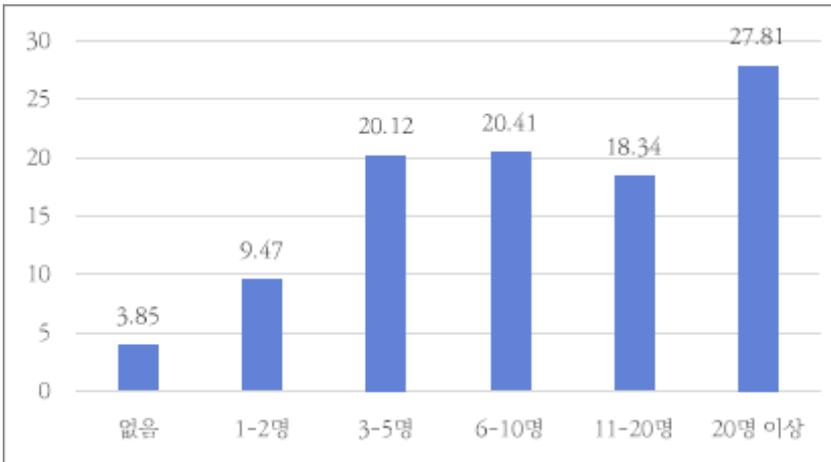
### 1. 설문결과

#### 가. 이웃관계

설문조사에서는 위스데이 별내의 이웃관계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 등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위스데이 별내가 표방하는 것처럼 주민들 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서로 간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며, 서로 간의 교류도 활발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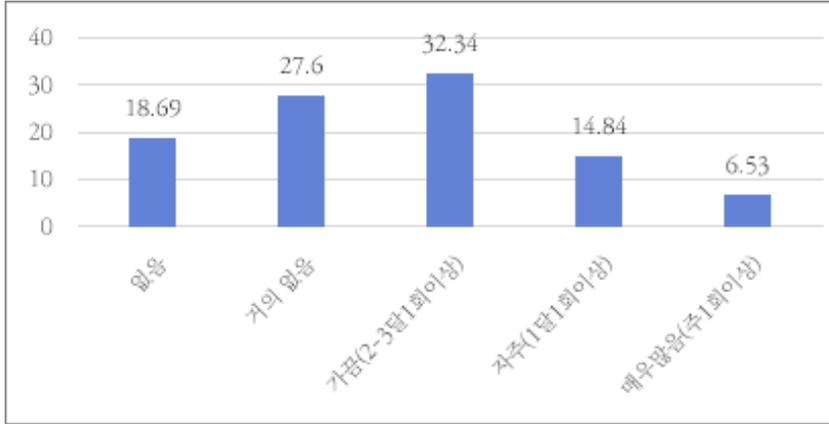
우선 위스테인 별내 안에 서로 알고 대화를 나누는 이웃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최소 1-2명 이상 서로 알고 대화를 나누면서 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응답자 338명 중에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이 5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5-70%에 달하며, 27.8%는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이 20명 이상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림 3-10]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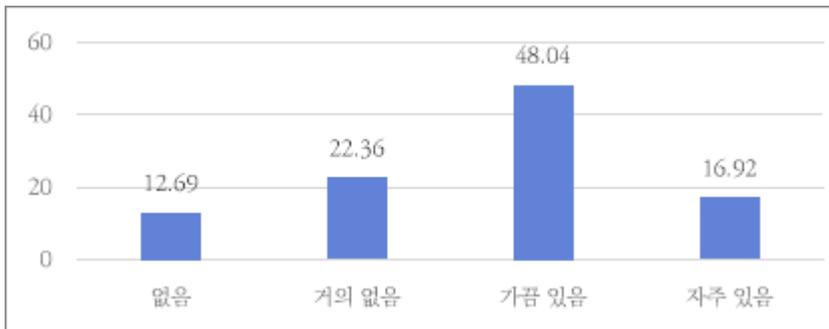
입주 후 마을 이웃들의 집에 방문하거나 집에 초대할 경험을 물었을 때에는 절반 이상이 최소 2-3달에 한 번 이상 이웃을 초대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서로 방문하거나 초대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정도의 가벼운 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웃 간 방문이나 초대 경험이 없거나 (18.7%) 거의 없는 경우(27.6%)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한 달에서 한 번 이상 또는 매주 방문하거나 초대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20% 정도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



단지내 주민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거나 받은 경험은 어느 정도나 될까? 입주 후 마을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65% 정도는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끔 있다는 응답은 48%, 자주 있다는 응답도 17% 정도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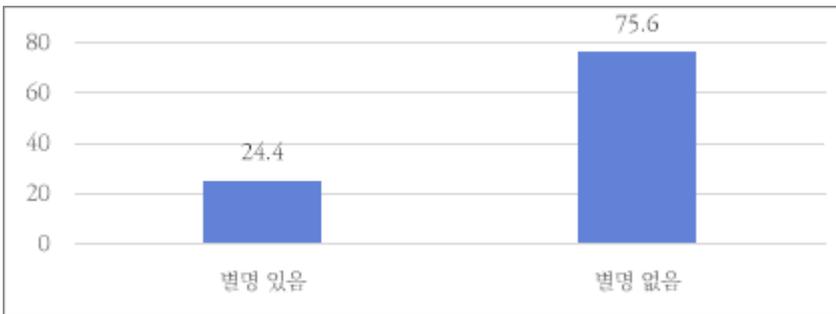
[그림 3-12] 도움 요청하거나 받은 경험



위스테인 별내에는 주민들끼리 서로를 부를 때 별명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관행은 공동육아와 관련이 있다. 보통 공동육아 모임이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어른들이 별명을 하나씩 지어서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하는데, 이런 관행과 경험이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많고,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공동육아와 같은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별명으로 불리는 어른들이 있다.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는 것은 공동체 활동이나 이웃관계에 훨씬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가족구성원 중에 위스테인 주민들끼리 사용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25% 정도가 아이들이 또는 주민들끼리 부르는 별명이 있다고 응답했다. 앞에서 살펴본 문항들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략 응답자의 20-30% 정도는 이웃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위스테인 별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sup>8)</sup>

[그림 3-13] 주민들끼리 사용하는 별명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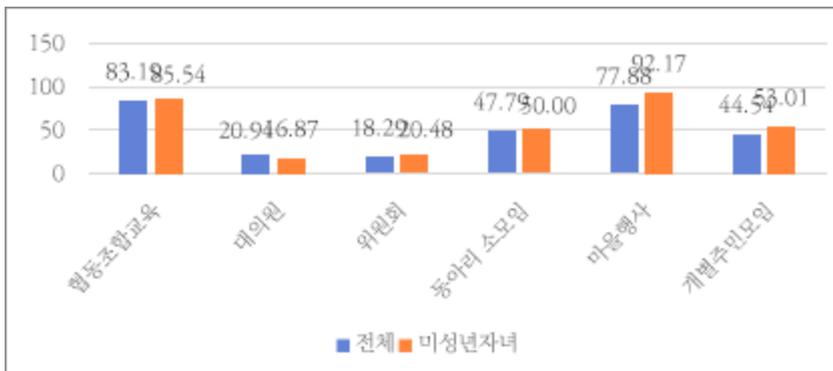
8)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들이 이웃관계나 공동체 활동에 소극적일 것으로 가정한다면 전체 주민의 15-20% 정도가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 나. 공동체 활동의 종류와 참여

위스데이 별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 전체는 협동조합 조합원이고, 조합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대의원들이 뽑혀서 활동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내에 다양한 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시기별로 마을행사도 다양하게 진행되며, 다양한 동아리 소모임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민모임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공동체 활동별로 참여도를 살펴보면 의무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협동조합 교육을 제외하면 마을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45% 정도는 동아리 소모임이나 개별 주민모임 같은 것에도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만으로 국한해서 보면 참여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거의 대부분(응답자의 92.2%)이 마을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성년 자녀 가구는 동아리 소모임이나 개별 주민모임도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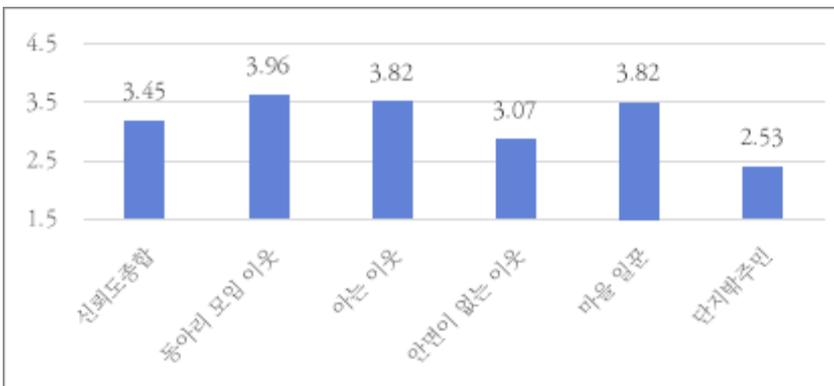
[그림 3-14] 공동체 활동 참여



## 다. 이웃에 대한 신뢰도

그렇다면 위스테인 별내 주민들은 이웃 또는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동아리, 모임을 함께 하는 이웃’, ‘얼굴을 알고 있는 이웃’, ‘안면이 없는 이웃’, ‘마을 일꾼’, ‘단지 밖 주민’으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5점 척도로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동아리, 모임을 함께 하는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3.96으로 ‘높음(4점)’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모임을 함께 하지 않더라도 알고 지내는 이웃이나 마을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마을 일꾼에 대한 신뢰수준도 3.82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안면이 없는 이웃인 경우 신뢰수준은 3.07로 ‘보통(3)’ 수준임을 알 수 있고, ‘단지 밖 주민’에 대한 신뢰도는 2.53으로 보통 이하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단지내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고, 서로 알고 지내거나 모임을 함께 하는 이웃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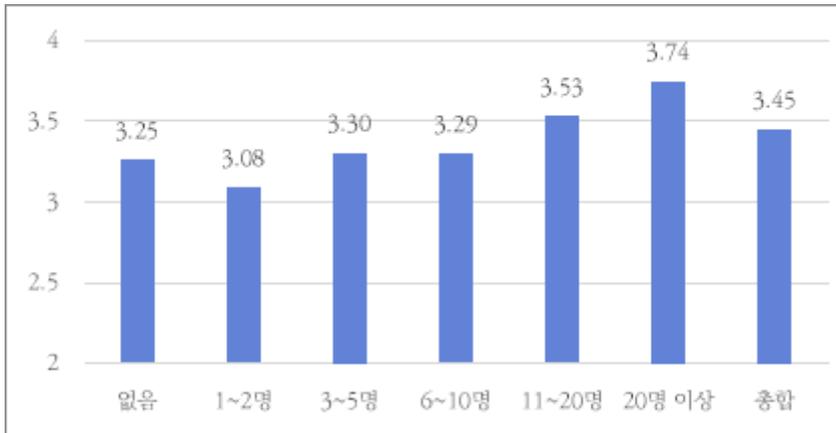
[그림 3-15] 이웃에 대한 신뢰도



주: 설문문항은 ‘매우 높음(1점)~매우 낮음(5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종합은 개별 문항들의 평균 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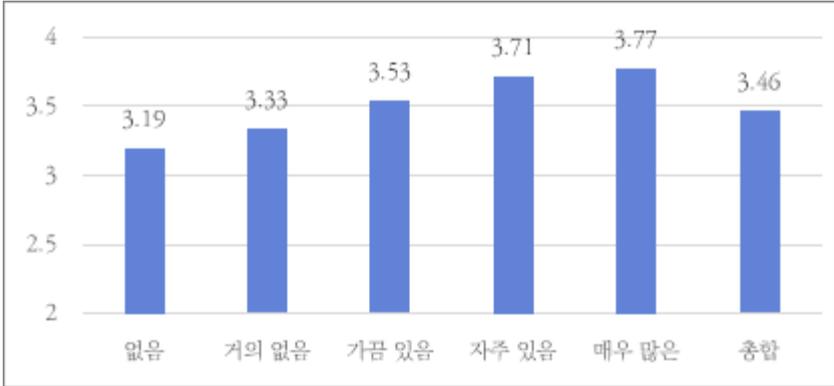
주변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이웃관계의 친밀성 정도, 공동체 참여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뢰도종합 평균값을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 규모를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신뢰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초대를 하거나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도 차이가 존재하며, 도움을 받거나 준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도 차이가 뚜렷하다.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 서로 초대하거나 방문하는 정도에 따라 신뢰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3-16] 이웃관계(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와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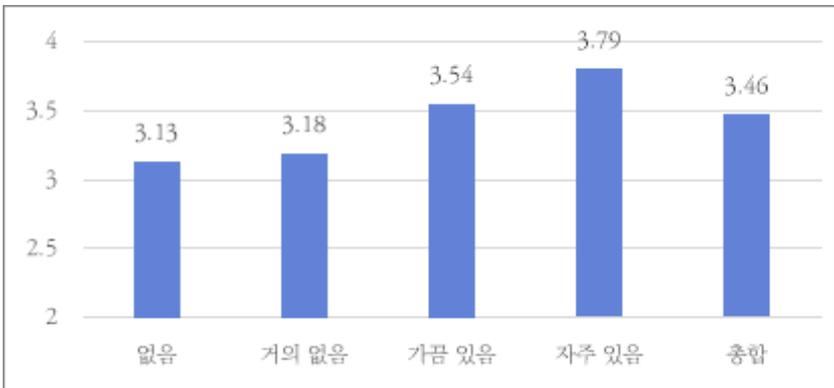
주: 설문문항은 '매우 높음(1점)~매우 낮음(5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17] 이웃관계(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와 신뢰도



주: 설문문항은 '매우 높음(1점)~매우 낮음(5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18] 이웃관계(이웃 간 도움 주고 받음)와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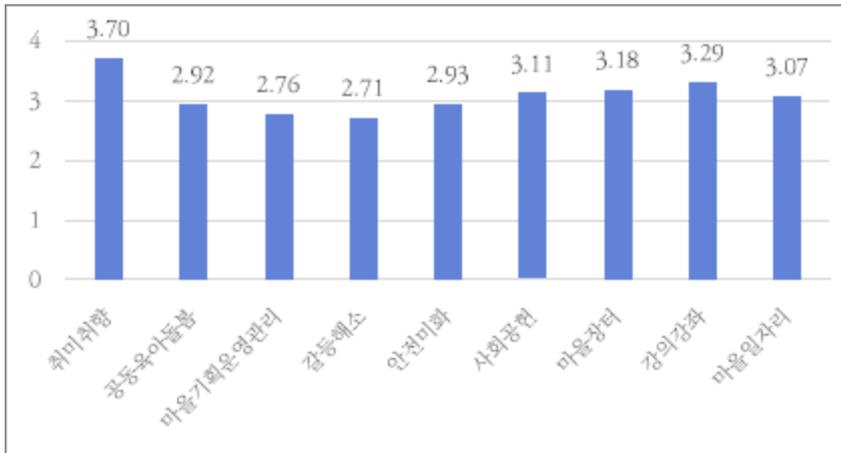
주: 설문문항은 '매우 높음(1점)~매우 낮음(5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 라. 활동참여의사

마을내 다양한 활동에 대한 향후 참여 의사에서도 이웃에 대한 신뢰도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취미취향, 공동육아·돌봄, 마을기획·운영·

관리, 마을 내 갈등해소, 안전·미화, 사회공헌(봉사, 캠페인), 마을장터, 강의·강좌, 마을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향후 참여의사를 물어본 결과는 [그림 3-19]와 같다. 전반적으로 참여의사가 '보통' 정도로 높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취미·취향 분야가 3.70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강의·강좌, 마을장태, 사회공헌, 마을 일자리 등의 순으로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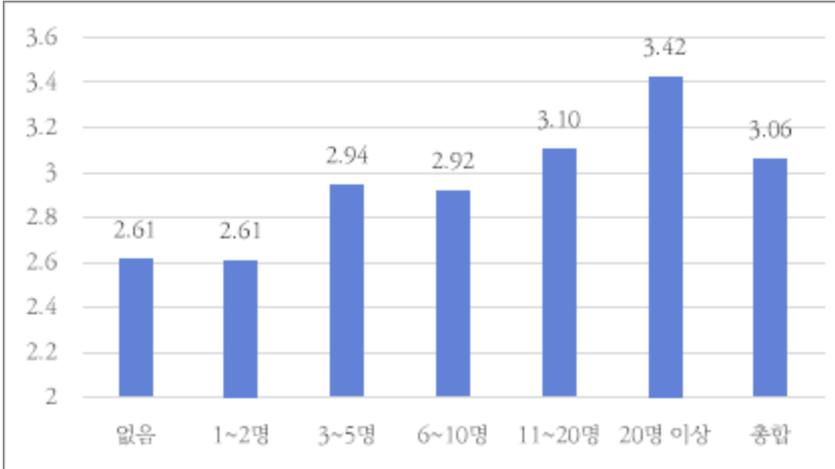
[그림 3-19] 마을 내 활동 참여 의사



주: 설문문항은 '매우 높음(1점)~매우 낮음(5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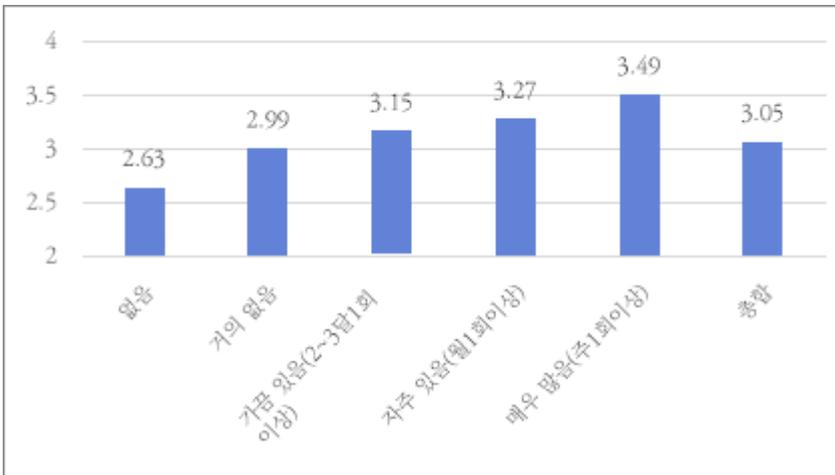
전반적인 활동 참여의사는 이웃관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이 많을수록, 서로 방문하거나 초대하는 등 교류가 활발할수록, 도움을 주거나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아파트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가 뚜렷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20] 이웃관계(대화를 나누는 이웃)와 활동 참여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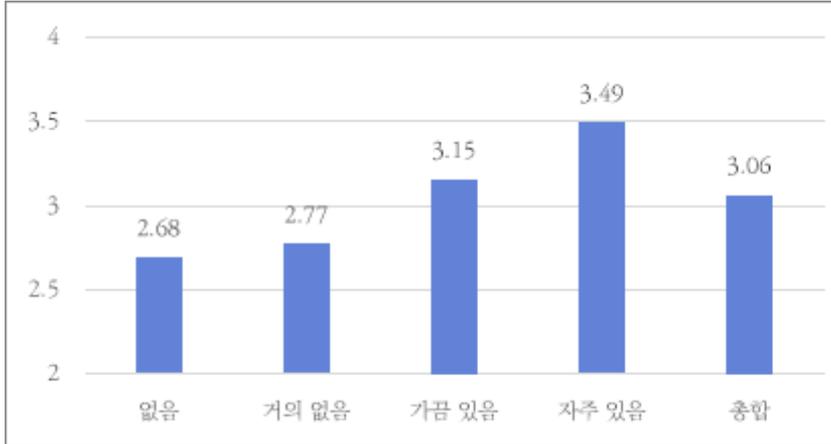
주: 설문문항은 '매우 높음(1점)~매우 낮음(5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21] 이웃관계(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와 활동 참여 의사



주: 설문문항은 '매우 높음(1점)~매우 낮음(5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22] 이웃관계(이웃 간 도움 주고 받음)와 활동 참여 의사



주: 설문문항은 '매우 높음(1점)~매우 낮음(5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 마. 이웃관계와 신뢰도, 활동참여의사

지금까지 살펴본 이웃관계와 신뢰도, 활동참여의사 간의 상관관계도 뚜렷하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 도움을 주고받은 정도, 단지내 활동참여의사, 이웃에 대한 신뢰도 변수 간에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는 <표 3-1>과 같다. 이웃관계를 측정하는 세 가지 변수(서로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 도움을 주고받은 정도) 간에는 상관계수가 0.678에서 0.7316 까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웃관계와 활동참여의사, 이웃에 대한 신뢰도 간에도 상관계수가 0.285에서 0.402 정도로 확인된다. 이웃과의 관계는 실제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행위나 이웃에 대한 신뢰도, 공동체활동 참여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 이웃관계와 신뢰도, 활동 참여 의사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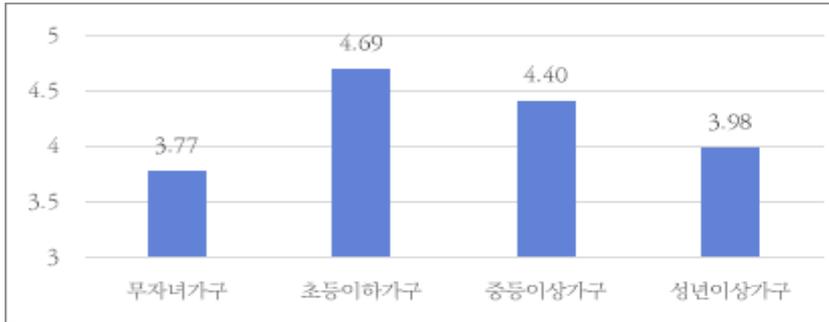
구분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이웃간 방문 또는 초대	도움 요청하거나 받은 경험	활동 참여 의사(종합)	이웃에 대한 신뢰도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1				
이웃간 방문 또는 초대	0.7316	1			
도움 요청하거나 받은 경험	0.678	0.7173	1		
활동참여의사(종합)	0.3759	0.3284	0.4024	1	
이웃에 대한 신뢰도	0.3489	0.2853	0.3786	0.3757	1

## 바. 자녀 연령별 가구 형태에 따른 차이

자녀 연령별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이웃관계나 이웃에 대한 신뢰도, 활동참여의사에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 위스태이 별내에는 다양한 가구 형태가 존재하는 한편, 초등학교 이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아파트 공동체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자녀 가구,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 성인자녀를 둔 가구로 구분해서 이웃관계나 신뢰도, 활동 참여의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가구형태별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알고 지내는 이웃에 대해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평균 수치가 4.69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략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이 10명 안팎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경우에도 4.40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성인자녀를 둔 가구나 무자녀 가구의 경우 대략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이 5명 안팎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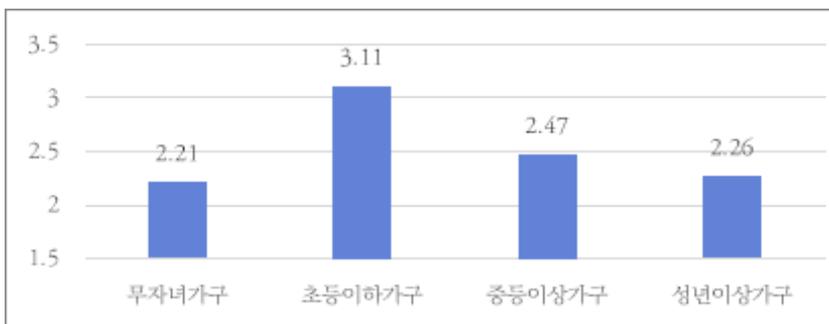
[그림 3-23]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주: 설문문항은 '매우 높음(1점)~매우 낮음(5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이웃 간에 서로 방문하거나 초대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의 평균 수치는 3.11로 최소한 2-3달에 한 번 이상 이웃을 방문하거나 초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나머지 가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평균수치가 2.21, 2.26, 2.47로 유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없는 경우 이웃 간에 서로 방문하거나 초대하는 경험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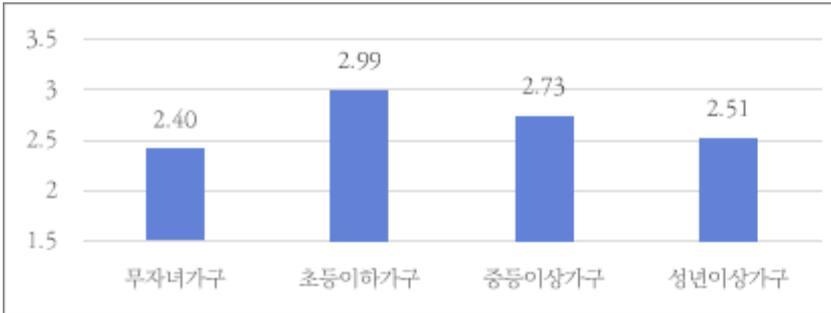
[그림 3-24] 자녀 연령별 이웃관계(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



주: 설문문항은 '매우 높음(1점)~매우 낮음(5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은 경험도 초등학교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수치는 2.99로 ‘가끔 있음(3)’을 알 수 있다. 반면 나머지 가구의 경우에는 2.40-2.73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어릴수록 이웃 간 교류나 도움을 주고 받는 정도가 뚜렷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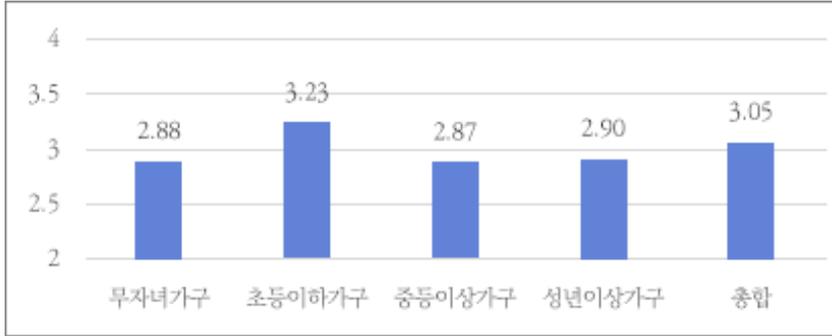
[그림 3-25] 자녀 연령별 이웃관계(이웃 간 도움 주고 받음)



주: 설문문항은 ‘매우 높음(1점)~매우 낮음(5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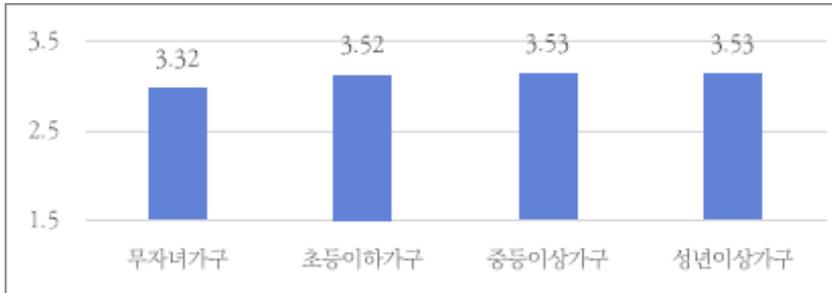
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에서도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만 활동 참여 의사가 높은 편이고, 나머지 가구의 경우에는 참여 의사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웃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가구형태별로 뚜렷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로 이웃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자녀가 있는 경우 거의 같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간의 차이도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림 3-26] 자녀 연령별 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



주: 설문문항은 '매우 높음(1점)~매우 낮음(5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27] 자녀 연령별 이웃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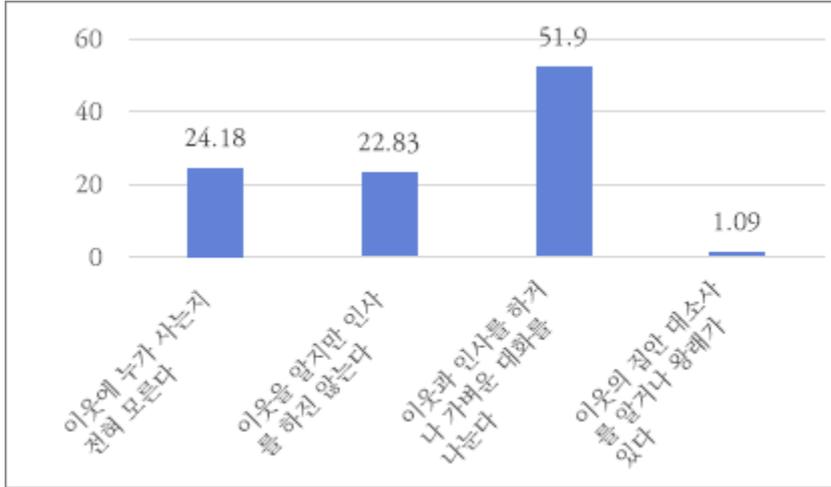
주: 설문문항은 '매우 높음(1점)~매우 낮음(5점)'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 사. 서울시 행복주택 사례 비교

위스테인 별내의 이웃관계와 아파트 생활문화는 도시지역의 일반적인 생활문화와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른 도시 지역 아파트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서울시의 S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21년 4차 조사부터는 행복주택 거주자가 패널조사에 포함되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행복주택은 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위스테인 별내의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임대주택 패널자료에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만을 추려서 이웃관계나 생활문화를 개략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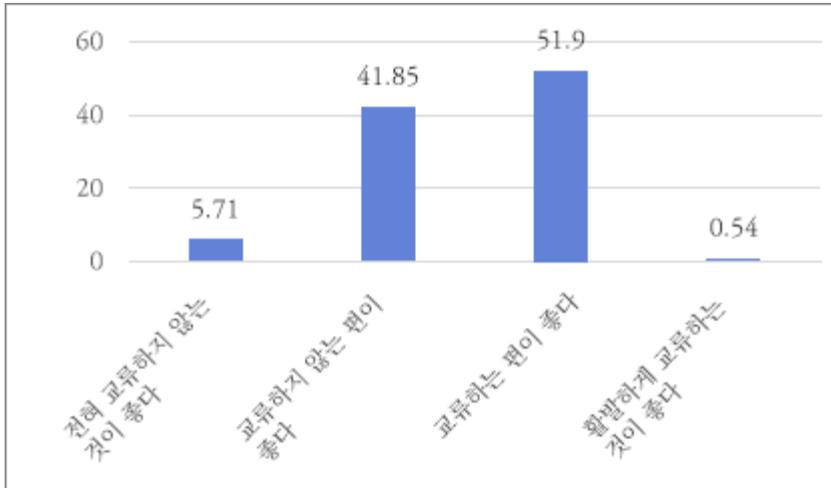
먼저 이웃간의 교류 정도를 보면 이웃과 인사를 하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정도는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45% 정도는 이웃을 알지만 인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아예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교류의향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교류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반면, 교류하지 않는 편이 좋다 또는 전혀 교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이 45%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류도 활발하지 않고, 교류 의향도 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8] 이웃과의 교류 정도(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출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공개용 데이터(4차 가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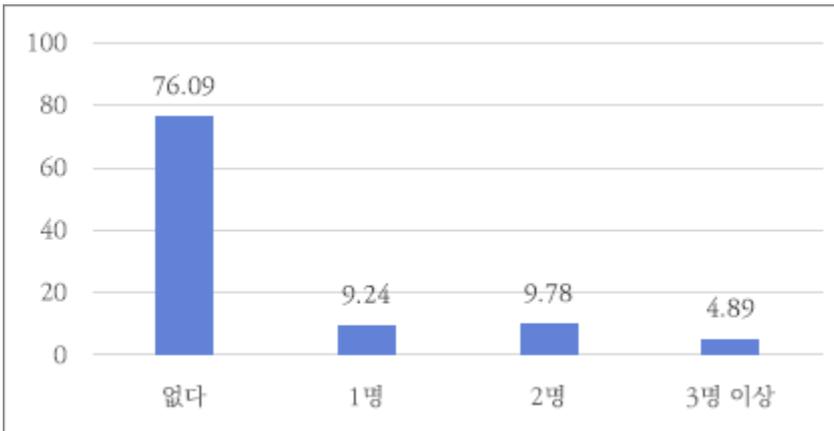
[그림 3-29] 이웃과의 교류 의향(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출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공개용 데이터(4차 가구용).

친한 이웃이 있는지 물었을 때에도 친한 이웃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6.09%로 4명 중 3명은 친한 이웃이 없다고 응답했다. 친한 이웃이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 정도에 불과하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이 없다는 응답도 73.37%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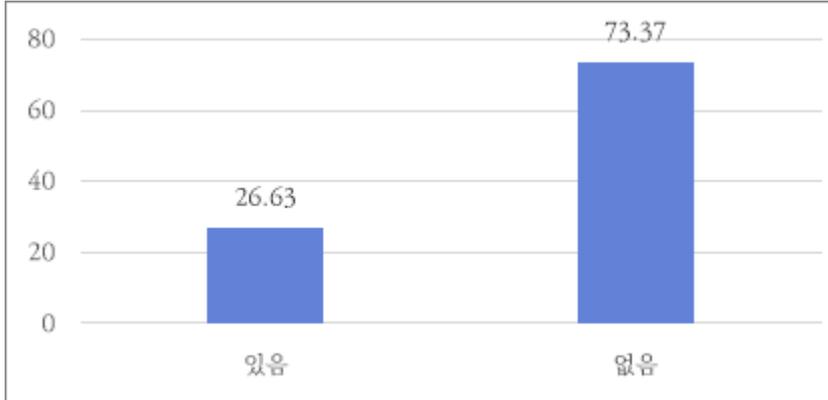
[그림 3-30] 친한 이웃의 수(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출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공개용 데이터(4차 가구용).

위스테인 별내와 서울시 행복주택 신혼부부 거주자를 비교해보면 이웃 간 관계나 교류, 생활문화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스테인 별내에서는 입주자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면서 방문이나 초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이웃 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31]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의 수(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출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공개용 데이터(4차 가구용).

## 2. 미성년 유자녀 가구의 생활 경험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상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인터뷰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터뷰를 통해 위스데이 별내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 경험을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뚜렷이 나타나듯이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가 어릴수록 공동체 생활 경험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인터뷰 조사결과를 가구형태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가. 집·가족의 범위 확장

F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모두 외부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친구 관계가 없다보니 집안과 집밖이 명확히 구분되었었는데 아이들이 '놀자람'이라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다니고 이웃간에 교류가 생기다보니 집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웃도 가족 같이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B는 이웃 주민들이 다들 아이들을 가족 같이 대해 준다고 말한다. 이모 삼촌 같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아이들을 예뻐해 주시는 등 주민들이 공동체로 살아 가기로 작정한 사람 같다고 얘기한다.

F: 아파트 내에서 친구나 이런 관계가 적어서 그때는...우리 집만 딱 집이고 문 밖은 이제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돌봄센터 다니면서..**아이가 집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웃도 뭔가 가족처럼 느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저는 같이 했던 것 같아요.

B: 이곳은 그냥 그 **공동체로 융합되어서 살기로 작정한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그래서 **아기들도 밖에 나가면 뭔가 이렇게 다들 가족 같은 느낌이랄까** 이모 삼촌 같은 느낌 있잖아요...

## 나. 따로 또 같이

이웃관계가 친밀하더라도 그러한 관계가 사적 영역을 침범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성향에 따라 느슨한 형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한다. D은 사회단체에서 활동해 왔고, 그래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의 경험이 많았지만 원래 성격은 내향적인 편이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는 것에 대해 많이 걱정을 하면서 입주했는데 ‘따로 또 같이’라는 생활이 잘 이루어져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한다. P도 성격이 내향적이어서 사람들과 많이 관계를 맺거나 하는 편이 아닌데 카톡방을 이용

해서 교류를 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도움 받을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

D: 원래 성격은 I여가지고. 내향형이어 가지고...공동체라고 하는 걸 지향하니까. 되게 걱정하면서 왔어요. 되게 걱정하고 사실 하면서 왔는데 생각보다 **따로 또 같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에서 추구하는게 좀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P: 저는..극 I여가지고 별로 관계를 많이 맺지는 않고 그랬잖아요...위스데이의 공식적인 맘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교류들도 있어요. 물건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 얘기 갑자기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 약을 구한다든지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안정감도 되게 큰 것 같아요.

## 다. 타인의 시선

공동체적 관계가 느슨한 형태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좀 더 잘 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다. L은 입주민들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일종의 강박 같은 게 있어서 착하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관찰된다고 한다. J와 I은 이웃들이 대부분 안면들이 있다 보니까 주위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행동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이나 행실도 신경 쓰게 되는 등 공동체적 관계가 사람들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L :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 생활**한다는 거에 어떤 강박? 제가 볼 때는

강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어서 아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되게 착해요...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젠틀..

J: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그게 다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그냥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분리수거조차도 되게 엄청 깨끗하게 잘하고...

I: 저도..남의 시선을 되게 신경을 쓰게 됐고. 이 아파트 살면 다들 착한 이유가 다들 이렇게 익명성이 없고 다 공개돼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아이한테도 “여기 니가 잘못하면 누가 내가 니 엄마인 거 다 안다.” 이러면서 행실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웃음) ..익명성이 보장이 좀 안되는 거 같아요. (웃음) 그래서 다들 착한 거 같아요.

## 라. 공동체의 진입장벽

공동체 생활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도 엿볼 수 있다. 입주자들 중에는 기존의 모임나 네트워크에 결합하기가 쉽지 않아서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공동체적 관계가 공동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폐쇄성이나 배타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위스테인 별내에 올 때는 공동체에 대한 기대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괴리감, 소외감, 박탈감을 느껴서 힘든 경우들도 있었고, 기존에 형성된 공동체에 신참자가 참여할 때는 불가피하게 진입장벽 같은 게 있어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

I: 초반에는 이제 여기서 뭔가 다 **공동체를 어쨌든 기대하고 왔는데**. 어떤 커뮤니티가 활발히 돼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괴리감에 힘들어 있었던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O: 주변 분 보면은 이제 이분은 원해요. 근데 이미 유닛들은 돼 있어 거기에서의 좀 **약간 소외감 박탈감** 그런 거를 좀 고충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F: **아무래도 공동체라는 게..시간이 쌓여야** 그 히스토리들을 좀 알아야 더 친밀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을 같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사실 진입 장벽이 조금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의 공동체들이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 새로운 모임들이 생겨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한다. 기존의 모임들이 구성원간의 친밀성이 높아서 신참자들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그룹,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는데, 주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 아이들을 매개로 해서 엄마들 모임, 아빠들 모임 같은게 자연스럽게 생겨서 이런 저런 모임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F: 우리가 **그룹 그룹별로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조직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그룹을 만들지 않는 한은 조금 진입하기 어렵다** 이런 멘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I: 자연스레 그냥 이런 거 보면서 **“우리도 해볼까?”** 해서 이런 커뮤니티가 **되게 많아져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긴 해요...아까 그 위꿀아도 그런 모임이고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태어난 그 아이들의 엄마들 모임 또 있고.

이제 1학년 들어가면 이제 1학년 들어가는 엄마들끼리 또 모아보자 해서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크고 작은 공동체가 되게 많아진 거죠...**

공동체나 모임 내에서 긴장이나 갈등 같은 것도 있다. L이 말하는 것처럼 모임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모임이 잘 안 되기도 하는 등 모든 모임들이나 공동체 활동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L: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가지고 되게 적극적이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갈등이 생기면..무슨 갈등이지 도대체 잘 지내다가 **갑자기 다 찢어지네** 막 이러면 사람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웃음) ...“저 사람이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나?” 이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 3. 1인 가구/무자녀 기혼가구의 공동체 참여

설문결과에서도 1인 가구나 무자녀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활동 참여나 이웃관계 형성에서 소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는 그러한 면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인 가구나 무자녀 기혼 가구가 많이 참여하는 활동은 위스데이 나눔활동이다. 아파트 주민 대부분이 가입해 있는 전체 단톡방이나 네이버카페를 통해 이런 저런 나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눔 활동 같은 것은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3년 동안 헬스장 이용하는 것 외에 어떤 활동도 참여한 적이 없고,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마을장터에도 가본 적이 없더라도 나눔 같은 것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도 한다.

T: 네 전체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활발한 활동은 나눔** 뭔가 자기한테 필요 없는 물건들 이렇게 올리면은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S: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면서 **모임 하나도 안 나가고 모임을 거의 한 아무것도 안 나가고 한 2~3년 살아온 것 같고요.** 대신 네이버 카페 나눔 같은 거는 엄청 열심히 해서 저는 가구를.. 굉장히 많은 걸 그걸로 채웠어요...그리고 그냥 저도 헬스장만 열심히 이용하고 다른 건 거의 이용을 안 했다가..근데 확실히 육아 중심으로 많은 게 활성화된 건 대부분 육아 커뮤니티들이긴 해요...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 열린 장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Q는 미술·디자인 쪽 일을 하고 있어서 1차 조합원 모집 때 재능기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한 의무감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계획이 모두 취소되긴 했지만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의무감을 항상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지내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별로 없다보니 관계를 맺고 친해지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도 아파트 전체 김장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종종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Q: **재능기부로 들어왔잖아요...**수업 준비서 같은 것들 적고 사실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0시간을 이제 수업을 해야 될 걸 예정하고 있었으니까..그래서 좀 부담이 컸고 **뭔가 봉사 정신을 좀 가져야 된다** 라는 그런 부담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이렇게 어울리는 성격이 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들 결혼도 하셨고 저는 혼자인데 혼자 계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해지기도 많이 어렵고 해서

Q: 저번에 김장김치 같이 담그는 그게 있어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좀 제가 혼자 살면 그럴 경험을 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되게 유익했던 것 같고 종종 한 번씩 그렇게 참여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됐으면 좋겠고...보통 이제 이웃이랑 요즘은 이렇게 가깝게 안 지내는 편이잖아요..

아이가 없는 경우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이 많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동네책방도 처음에는 1층에 어른들을 위한 책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 공간으로 바뀌었고, 동네장터 같은 것도 점점 동력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나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아이가 없을 경우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현재는 취미 활동 위주의 동아리 모임도 참여하는 게 없다보니 위스데이 별내가 주는 환경적 이점 외에 특별한 장점은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T: 도서관이 잘 돼 있는 걸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거든요...1층에 한 부분은 이제 어른들 책이 있고..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다 아이들 공간으로 바뀌었더라고요...매월 하는 동네 장터 이런 거..점점 아무래도 동력이 조금씩 준다는 게 느껴지고..그리고 점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이벤트나 물건들이 많아서 점점 좀 참여할 게 없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거리가 멀어지는 건 확실히 있어요..

T: 처음에는 여러 취미 활동 위주로 동아리 모임이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막 열리고 이랬는데 저희가 딱 코로나 때 입주를 시작해서 모임이 갑자기 중단된 것도 있고..점점 실제 만나서 하는 모임들이 좀 줄고..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없어요.

T: 그냥 여기가 저희가 전에 살던 그런 환경보다 좋은 아파트라는 그런 **넓고 깨끗하고 이 단지 안에 쾌적한 그런 환경 때문에 저는 장점이지** 저희가 뭔가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아파트의 장점은 저는 특별히 모르겠고..

하지만 평상시에 별로 이웃들과 교류가 없고 활동에 참여하는게 없어도 주변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들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기도 한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아이 하나가 아파서 급하게 약을 구하게 되었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쉽게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아파도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한다. 또 사소한 것이지만 영어사전이 급하게 필요했을 때 쉽게 사전을 구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정이 느껴지고 안전망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S: 저번에도 얼마 전에 올라왔던 게 어떤 아이가 그날 아파서 아침에 어디 에버랜드가 학교에서 가는데 아픈데 약이 새벽이니까 없는 거예요. 새벽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카톡방에 혹시 약가지신 분 sos를 쳤는데 바로 대답을 해가지고 그 약 먹고 애가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아파도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겠구나** 이런 거 그리고 저도 그때 뭔가 갑자기.. 영어 사전이 하나 필요했어요...혹시 영어 사전 빌려주실 분 올리니까 바로 반응이 와서 그냥 빌려서 잘 쓰고 다 반납하시면서 이런 과자 같은 거 살짝 갖다 드리고 이런 약간 조금 그런 **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 4. 고령자 가구의 공동체 참여

위스테인 별내가 육아 친화형 아파트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아이들 육아모임나 돌봄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다. ‘60플러스센터’라는 고령자 모임이 있어서 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처음에 입주했을 때 어르신들은 서로 아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제대로 인프라도 갖추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했다. 우울증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60플러스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다. 기존 경로당 같은 모습을 탈피해서 천자쓰기, 만보걷기 같은 다양한 활동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벌여 왔다. 현재는 어르신들이 활기도 찾고 우울증도 많이 없어졌다. 센터에 모여서 체조도 하고 요가도 하고 점심도 해먹고 차도 마시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센터에 나오는 분들은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인터뷰 내내 참가자들은 위스테인 별내는 천국이라는 말을 자주 했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 보였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80여명이 등록했는데 현재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서 고민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문턱이 높아서 못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V: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입주해서 서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울증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때..동아리를 만들어서 잠깐 집에서 나오도록 하자 60플러스로 끌어들이고..옛날에 경로당 체제를 벗어나서 화투나 치고 담배나 피고 라면 끓여 먹고 소주 먹든 그런 경로당을 탈피해서 어떤 액티비티하게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자..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천자 쓰기 동아리 만보걷기 동아리 하다 보니까 그 **우울증 같은 게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활기를 찾게 되더라고요...**서로 다 알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것도 하나하나 풀어내다 보니까..그래서 지금은 아까는 **천국이라고 그러잖아 천국**. 여기 보면 **비디오 틀어 놓고 치매 예방 체조도 하고 요가도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다가오고 방문하면 문턱이 아주 높아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최초로 등록되신 분들이 한 80여 분 되시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지금 39분 회비를 걷어요.

U: 나도 전에 살던 데서는 경로당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때 생각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경로당에 발 들여놓지 않고 생을 마치겠다 딱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경로당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1년에 두 번 봄 가을에 여행도 시켜주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지...**

U: 거기서 뭐 놀고 운동도 하고 일주일에 세 번 아니 다섯 번 우리는. 월화수목금 5번인데 이제 뭐 **요가도 하고 또 체조도 하고 치매 예방 차원에서** 근데 우리끼리 이제 유튜브 틀어 놓고 그거 따라서 하고...뭐 운동하고 이제 또 주방에서는 **우리끼리 점심도 해먹고, 운동하고 끝나서 이제 차도 마시면서 간식도 먹고..**

또 손녀를 돌보면서 지내다보니 8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책모임에도 참여하기도 한다.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모임에 참여해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참여하면서 활기차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세대별로 나뉘어서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위스데이 별내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세대간 분리나 장벽 없이 세대간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U: 나는 이제 손녀가 있으니까 이제 교육 문제에도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입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령인데 나 받아주겠느냐고 그랬더니 환영한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모임이 있거든요... 책을 구입을 해서 그걸 읽어가면서 이제 자기 이제 의견 또는 경험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V: 배우고 있는 한은 뭐 노년은 없다고 그러잖아. **계속 끊임없이 배우려고 그러는 그런 시스템이 저희 데 있어요.** 왜 비교가 되거든. 계간지 갖고 와서 독서동아리 할 때도 보면은 서로 주제를 같은 주제를 나눠 주고 모여서 토론하잖아요. 그러면 왕성하게 토론이 돼요. 거기에 또 더군다나 자기의 삶의 가치, 그것까지 보태면 어떤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고 그러잖아 어르신 하나 돌아가신다 그러면은...그냥 안주하지 않고 또 위를 쳐다보고 가는 그런 게 고령화 사회가 아마도... 정지하지 않고 더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예전에 도시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교류도 없었는데, 위스태이 별내 살면서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고 교류도 많아졌다고 얘기한다. 위스태이 별내에서는 코로나 때 아파트 잔디광장에서 결혼식이 치러진 적도 있었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베란다에서 박수 쳐주기도 하는 등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낸다고 한다. 더구나 손녀를 돌보다 보니까 손녀 때문에 너무 많이 알려져서 불편할 정도라고 말하기도 한다.

V: 다들 단독주택 임대 아파트 빌라 이런 데...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1년 3년 4년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여기는 이제 다 알아요. 심지어 여기 소문 들으셨겠지만 여기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했었어요. 아시죠. 베란다에서 막 박수 쳐주고..서로 인사 잘하고 서로 다 알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힘이죠.

U: 저도 아파트에서 쪽 살았었는데..이웃집하고도 그냥 보면 문 인사 정도 하지 그거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여기서는 사실 너무 많이 알아서.. 손녀 이름이 \*\*인데 \*\*할머니를 얼마나 많이 알려져 가지고..

아파트 텃밭도 이웃들이 서로 교류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역할하고 있다. 단지 내에 텃밭은 매년 돌아가면서 분양을 해서 이용하는데, 봄부터 여름까지는 분양 받은 가구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가을에는 아파트 전체 김장을 위해 김장채소를 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전체 주민이 다 이용할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이용하다보니 서로 텃밭을 공유해서 가꾸기도 하고 또 재배한 것을 같이 나눠먹기도 한다. 앞에서 김장이 아파트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텃밭도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U: 여기 텃밭이 있거든요...우리 텃밭을 이제 가봤더니 어느 젊은 엄마가 오이랑 가지랑 그걸 이제 거두면서 \*\*할머니 오이 하나 맛보세요. 오이도 따주고 가지도 따주고 또 이제 뭐 고추 기르시는 분들이 고춧잎 따서 이제 이렇게 나물 해 드시라고 주고 우리 텃밭이 아주 그냥 얼마나..

U: 가을에는 그리고 김장용품을 심어서 전체 동네 김장을 하고..봄부터 여름까지는 이제 개인 분양을 해요...한 번 당첨됐던 사람은 안 되고 한 번 골고루 돌아가는 거니까..한 번도 이제 신청 안 했던 분이..신청해 갖고 우리 같이 합시다...상추 심고 뭐 토마토 방울 토마토 심고 그래 가지고..두 집이 나눠 먹고 토마토도 두 집 애들이랑 같이 따서 먹고..

그 텃밭이 아주 보물 같은 단지요.

## 5. 아파트 갈등/층간 소음

위스태이 별내에도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있고, 주된 갈등 요인 중의 하나는 층간소음 문제이다. 입주 준비 단계에서부터 '갈등조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 교육도 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개입해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실제로 심했던 경우에는 형사재판까지 넘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체로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 간에 만남도 주선하고 관계도 형성하면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한다. 아이들이 있는 집인 경우에는 아랫집 아이를 초대해서 같이 놀고 지내는 등의 방식으로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마찰을 해결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갈등조정 위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N: 가까운 지인이 이제 위아래로 층간 소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결국에는 거기는 이제 경찰서로 넘어가서 형사로 판결도 받았어요... 아랫집이 너무 컴플레인이 심했고 그걸로 갈등이 있었는데 아랫집이 도를 넘어서 형사 판결을 받긴 하셨어요...

D: 저희가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하는 게 층간 소음이었거든요...이제 그런 갈등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좀 심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윗집 사람이 아는 사람이면 화가 덜 나는 거잖아요. 관계 이슈잖아요...갈등조정위원회에서 계속 이제 같이 만남도 주선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자체 정화가 되는 거예요...

C: 애들 있는데 소리 나면 당연한 거고 막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해주는 분위기도 있고 만약에 아랫집에 아이가 저희는 아랫집에 초등학생이 살고 있는데 그 초등학생을 저희 집에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놀아 어차피 아랫집 니네 집 뛰어 놀아.

V: 몇 건이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갈등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층간소음이라든가..갈등조정위원회라는 팀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입주민들이 도움이 되죠. 든든하고. 실제 층간 소동이 일어났을 때도 딱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시켜주고 그런 게 참 잘 돼 있어요.

## 6. 외부의 시선

이러한 위스데이 별내의 공동체 생활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입주 초기에는 위스데이 별내에서 마을행사 같은 걸 하면 타단지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로 소문이 나서 농담식으로라도 부러움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위스데이 별내가 다른 임대아파트들과 다르게 평수도 넓고, 공유공간도 넓게 잘 설계되어 있어서 주변에 가장 비싼 아파트단지인 아이파크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여서 주변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K: 처음에는 ..행사 같은 거 하고 이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막 시끄럽다고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고 이랬던 적도 몇 번 있는데..지금은..위스데이 산다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약간 부러운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로 이렇게 소문이 좀 나 있어요...그래서 이제 그냥 농담식으로는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I: 여기서 행사 같은 게 있다고 이런 거 이렇게 놀러 오라고 하면은 조금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아파트 사람끼리 그래도 하는 거 아니냐.”..

J: 위스테인에서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한다고 계속 소문이 나고 있고..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경제력을 많이 고려해서 작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작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살고 싶은 아파트라도 작으면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그 평형대가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임대라고 해도 그래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I: 아이파크 가야죠. (웃음)..당연히 아이파크.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렇지만 환경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뭐 여 아파트도 못지 않다. 아이파크를 안 가보셨죠?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이렇게 공유 공간이나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던고 놀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 제3절 소결

3장에서는 위스테인 별내라는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아파트가 어떻게 공동체 관계와 생활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주택이라는 공간은 일상적인 생활과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는 허브이자 앵커로서의 역할을 한다. 도시의 기간구조가 사회생활을 형태짓는 것처럼 기간구조로서의 주택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에서 돌봄 활동의 가능성을 역동적으로 구조짓는다고 할 수 있다(Power and Mee, 2020; Hayden, 1982).

위스데이 별내 사례를 통해 주거공간과 공동체 돌봄 활동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입주 당시 8년 간의 장기임대가 주는 안정성, 그리고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주거공간과 여유로운 커뮤니티 공간 등이 입주를 하게 된 중요한 계기들이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환경이나 공동육아에 대한 기대도 주요 고려 사항이었다. 또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공간 구성과 설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제로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물리적·구조적 조건은 입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입주 후에는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방향 하에 이웃과 관계를 맺거나 교류를 하는 등 친밀한 공동체 관계를 만들어 왔다. 이웃관계가 친밀할수록 이웃,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나 무자녀 가구보다 유자녀 가구 집단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이웃관계나 공동체 활동 참여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노력들은 집과 가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또한 1인 가구나 무자녀 가구 등도 이웃과 긴밀하게 교류를 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기회들이 있다.



## 제4장

### 공동체 육아·돌봄 경험

제1절 일상적인 돌봄 경험

제2절 육아 만족도/스트레스

제3절 돌봄 경험과 주거/일자리 의식

제4절 소결



## 제4장 공동체 육아·돌봄 경험

### 제1절 일상적인 돌봄 경험

#### 1. 설문결과<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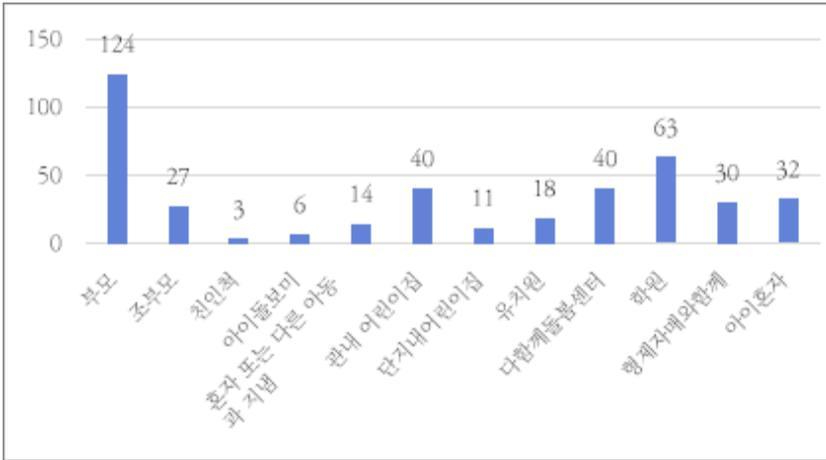
설문조사에서는 자녀의 기본적인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 보았으며, 해당 되는 사항들을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은 우선적으로 아동의 부모가 돌봄을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원(예체능 포함,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이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관내 어린이집과 단지내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형제·자매와 함께 지낸다거나 아이 혼자 있는 경우 등의 응답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단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조부모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상 어느 정도 크면 특별히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지내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는 환경적 요인도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시간(저녁, 휴일 등)을 주로 보내는 장소로는 집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별내동 바깥이라는 응답도 높은 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까운 공원·산책로 등의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그런데 순위 별로 보면, 1순위에서는 대부분이 집이라고 응답한 반면, 2순위 응답으로는 잔디광장, 공원·산책로, 별내동내, 별내동바깥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 놀이터나 키움방 등에서 여가시간을 보낸다는 응답도 비슷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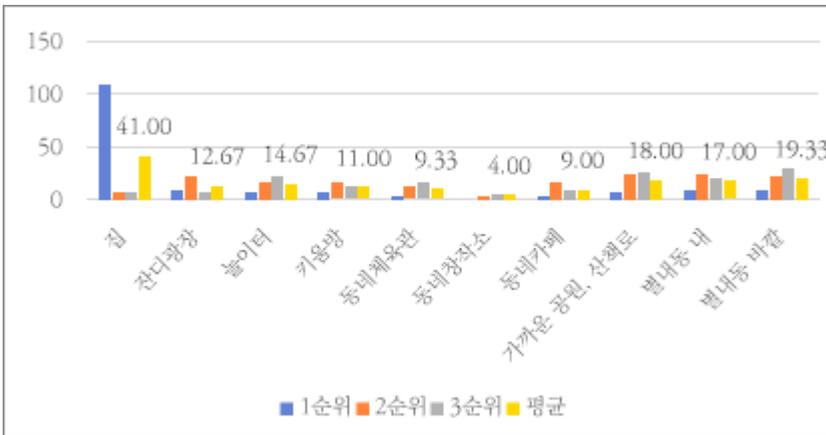
9) 4장에서 다루는 설문조사 결과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했음을 밝힌다.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자녀 기본 돌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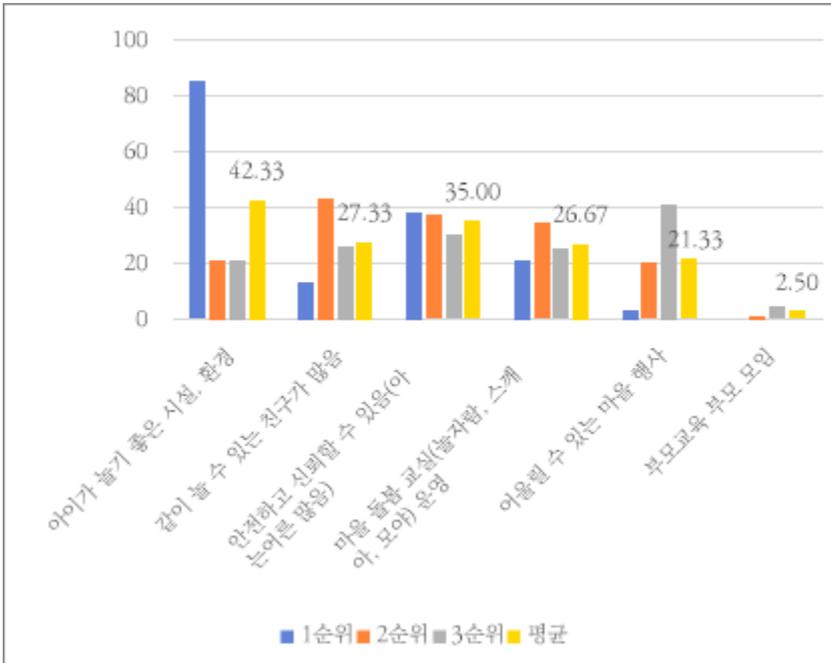
[그림 4-2] 자녀와 함께 하는 여가 장소



주: 그래프 내 수치는 각 항목의 평균 응답률(%)

위스태이의 어떤 환경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우선순위 3가지를 물었을 때에는 1순위로 ‘아이가 놀기 좋은 시설, 환경(잔디광장, 놀이터, 키움방, 창작소, 빈 공간 등)’이 꼽혔다. 2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것은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많음’이었으며, 3순위로는 ‘어울릴 수 있는 마을 행사(세시절기 행사, 놀이축제, 풍날 등)가 많음’이 꼽혔다. 순위 상관 없이 응답 평균을 구해보면, 여전히 ‘아이가 놀기 좋은 시설, 환경(잔디광장, 놀이터, 키움방, 창작소, 빈 공간 등)’이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으며, 그 다음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음(아는 어른이 많음)’으로 많은 응답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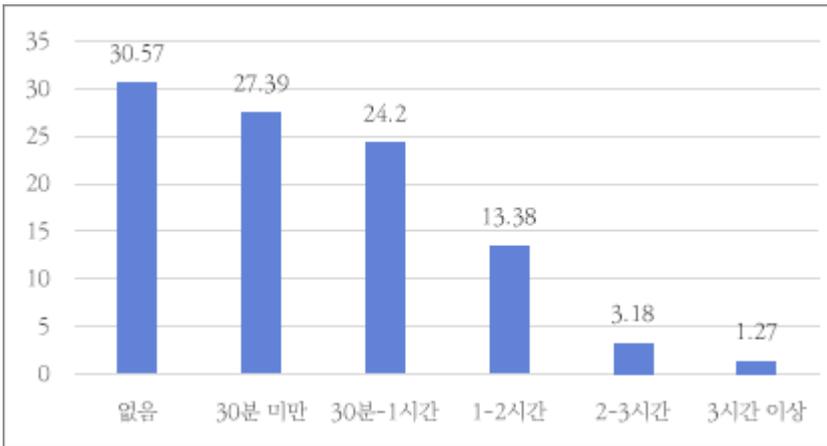
[그림 4-3]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



주: 그래프 내 수치는 각 항목의 평균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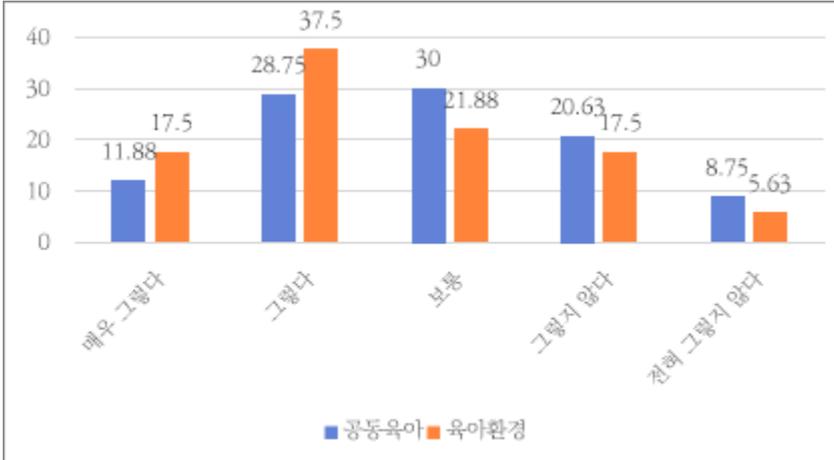
아이들이 방과후에 동네카페나 동네책방 등 단지내 공유공간에서 지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되는지 물었을 때, 절반 정도는 1시간 미만라고 응답했다. 아이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1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는 17% 정도였다.

[그림 4-4] 방과 후 동네카페, 책방 이용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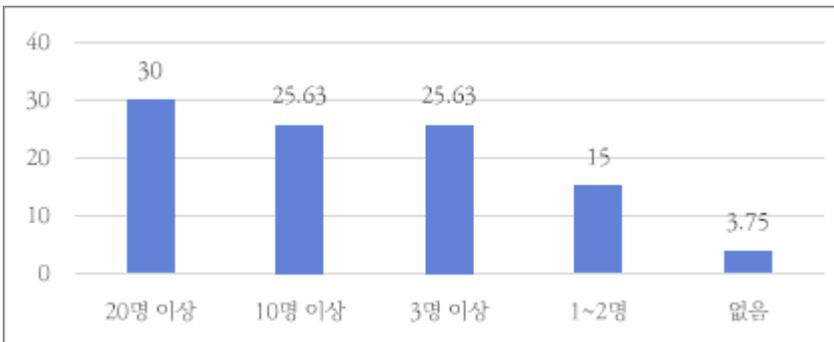
입주 당시 공동육아나 육아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 보자. 위스데이 별내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부터 육아친화형 아파트를 표방했고,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바 있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 전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는 질문에 대해 40% 정도가 관심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30% 정도 된다. '입주 당시 육아환경에 대한 기대가 입주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5%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25% 정도된다.

[그림 4-5] 입주 전 육아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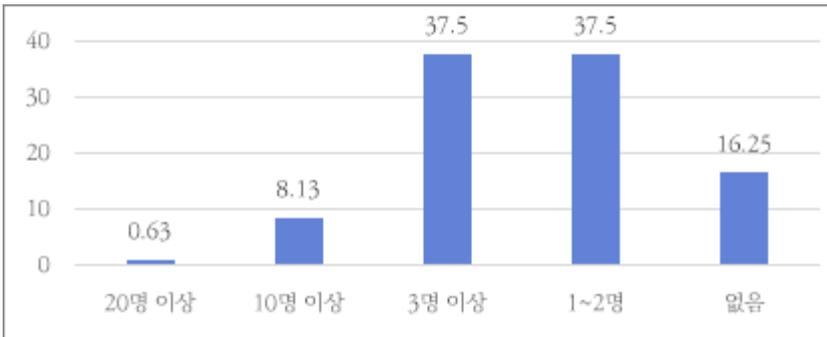
위스태이 별내에 살고 있는 아이 친구(또래의 형, 누나, 동생)의 부모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대부분이 친구의 부모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20명 이상 친구 부모를 안다고 응답한 경우도 30%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6] 친구 부모 아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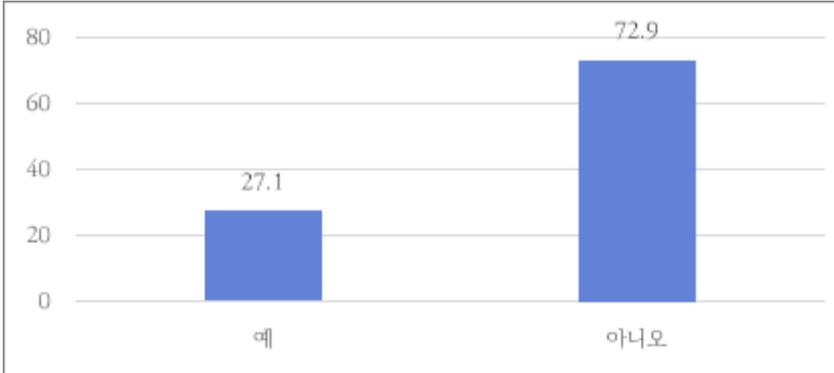
급한 경우에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70% 이상이 아이를 급하게 맡길 수 있는 이웃이 2-3명 정도 있다고 응답했다.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6% 정도였으며, 10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0%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이다.

[그림 4-7]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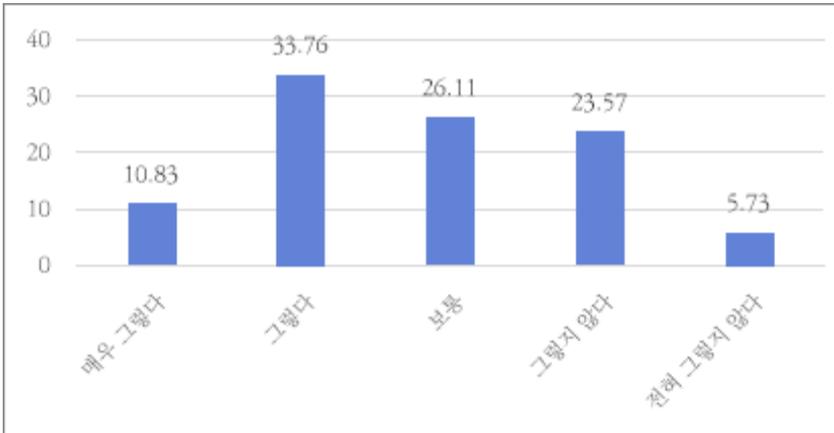


위스데이 별내의 돌봄 환경과 공동체 육아는 아빠들의 육아참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설문조사에서는 아빠 육아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아빠들의 육아시간이 늘었는지 살펴보았다. 위스데이에는 '위꿀아'(위스데이 꿀꿀이 아이들)라는 아빠 육아모임 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사에서 이러한 아빠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았다. 위스데이 별내의 아빠 육아모임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응답자의 27.1%가 이러한 육아모임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위스데이 별내 입주 후 남성 양육자의 육아·돌봄 시간이 늘었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45% 정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정도였다.

[그림 4-8] 아빠 육아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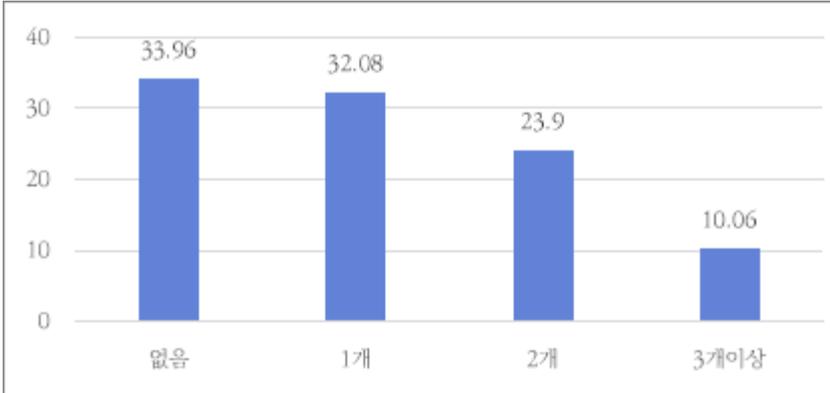


[그림 4-9] 아빠 육아 참여 증가



현재 자녀에게 영어, 수학, 논술 등 교과 관련 사교육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는 대략 70% 정도가 1개 이상 교과 사교육을 한다고 응답했다.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34% 정도였으며, 3개 이상 한다는 응답은 10% 정도였다.

[그림 4-10] 자녀 교과 사교육 현황



## 2. 돌봄 활동의 재구성

### 가. 돌봄 친화적 공간 구성

먼저 공간 환경적 측면에서 위스데이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주는 이점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된다. 무엇보다 아파트 주차장이 지하에 있어서 차가 다니지 않고, 단지 중앙에 커다란 잔디밭이 있고, 아이들이 잔디밭에서도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이다.<sup>10)</sup> 아파트의 공유 공간도 매우 넓다. 커뮤니티 시설 공간만 약 2천 8백여 평으로 일반적인 아파트단지보다 공유 공간이 2.5배 이상 많다. 공간이 넓고 안정감을 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연령 이상이면 잔디 광장 같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노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

10) 아파트단지에서 종종 논란이 되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논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림 4-11] 위스데이 별내 잔디광장 행사



출처: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2024a).

K: 여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땅 위에서 놀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잔디밭이 넓게 있어서..들어오면 느껴지는 안정감이 일단 있어요...

L: 예전 살던 데 비해서 엄청 많이 만족을 하죠.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해요.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넓어서 특히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고...

O : 아파트 아이들 분위기는 뭐냐면 3학년 정도만 돼도 그 센터(‘놀자

람')를 답답해해요. 여기 이렇게 잔디 광장이며 키움방이며 저희 여러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놀고 싶어해요

타단지 아이들도 위스데이를 편하게 느껴서 놀러와서 같이 노는 경우도 많다. 커뮤니티 공간이 넓고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다른 단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위스데이에 놀러오는 경우가 많고, 위스데이로 이사오고 싶어하기도 한다. 남양주 별내동에서는 아이파크 단지가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사는 아이들에게도 위스데이는 선망의 대상이라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임대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와 반대로 위스데이 별내는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라는 것이 위스데이 별내의 지역내 인식과 위상을 보여준다.

O : 타단지 아이들도 많이 와요...위스데이 아파트는 좀 편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I: 다른 단지 애들도 여기 와서 노는 거예요. 여기 “오늘 어서 놀 거야” 그러면 “동네 카페에서 놀 거야. 어디 창작소 놀 거야.” 여기 아이파크 사는 애들도 여기 와서 노는 거예요...판 데 놀다가도 여기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개네들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여기 위스데이 이사 오고 싶어 하고, 집에 가서 “우리도 여기 이사 오자.” 부모한테 여기는 심지어 임대고 저기는 자가인데 비싼 아이파크인데도 그렇게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여기가 아이들에게도 되게 편안함을 주는구나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 나. 관계 형성

이런 환경은 자연스럽게 아이들끼리의 교류나 놀이 공동체로 이어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엄마들 네트워크나 아빠들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관계 형성에 주는 이점이 크다. 신발 신고 나가기만 하면 아이들이 이런 저런 놀이나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동네에서 친구들 사귀기가 수월하다. 예전에 살던 곳은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 위스테인에서는 단지내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되고 아이랑 함께 있을 필요도 굳이 없기 때문에 아이 돌보는 일이 상당히 수월해 졌다는 점을 지적한다.

I: 저는 **입주 전에는 동네에서 친구들을 아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그냥 신발 신고 걸어 나가면 바로 앞에서 활동을 애들도 저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리적으로 되게 좀 편안함이 있어요.

K: 저도 물리적 거리가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살 때는 저는 아파트가 아니었으니까 저도 **어쨌건 차타고 나가서 어딘가 모임 장소로 가야 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안에 있으니까 **애가 어디에 있진 그냥 어디에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 물리적 거리가 되게 좋아졌죠.**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다 보니까 아이가 주말에 파자마 파티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부모들이 자유시간을 얻을 수 있고, 육아부담을 덜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는 학업이나 교육 같은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돌아가면서 아이

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기도 한다.

N: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아서 주로 주말이나 이제 금요일 되면 당장 저녁 누구누구 형아 집에서 먹으면 안 돼요. 오늘 밤 누구 집에서 자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의 이득을 많이 보죠..그런 것들에 있어서 **엄마 아빠의 시간을 확보하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아이들끼리 친구가 되면 그 부모님들하고도 교우가 터지면서 지난 겨울 방학에는 이제 친구 아빠죠. 친구 아빠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방학에 역사 이렇게 수업을 좀 같이 하겠다. **자기애들 가르치면서 그럴 때 낮에 좀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가 되는 거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부모들끼리 네트워크가 아이들 간의 교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한다. 특별히 육아 관련 모임이 없어도 부모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연결점이 생기고 아이들 친구관계도 넓어지기도 한다. B는 아이들 모임이 없었지만 동아리 참여를 계기로 엄마들 간에 연결점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 친구 관계도 넓어진 경험을 말하고 있다.

B: 두 아이 있지만은 둘 다 어떤 특정 모임이 없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동아리들이 이제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하면 거기서 엄마들의 연결점이 생기는 거예요...**그럼 그 엄마도 만나면서 또 이제 그 친구들 많이 생기고..

맞벌이여도 공동체 활동이나 육아모임, 육아네트워크에 들어갈 기회가 많다는 것도 장점 중의 하나다. J의 경우는 예전에는 맞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녀도 엄마들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어려웠고,

또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어도 공동육아 모임에 들어갈 기회나 공동육아 모임을 만들어 볼 기회도 없었는데 위스테인에 살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들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육아 관련 고민을 털어 놓아도 주위에서 많은 도움과 의견을 주니까 주변에 의지하면서 불안감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J: 저는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보냈지만 엄마들 커뮤니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또 이런 공동육아 모임 같은 거를 이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이제 방법조차 모르고...엄마들이 이렇게 모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 다들 이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니까...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되기 시작했고...

#### 다. 관계 속의 돌봄

공간적으로 넓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끼리 알고 지내고 공동체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 차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효과도 생긴다. 아이들이 눈에 안 보이고 혼자 나가 놀아도 부모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단지 주민들이 누구네 집 아이가 어디서 뭘 하고 노는지 서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가 보이지 않아도 단독 방에 올리면 아이가 어디 있는지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려주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가 부모 없이 놀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돌봐주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찾는데 엄마한테 전화 연락이 안되면 세대호출 같은 걸 이용해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공동체적인 안전망(또는 감시망(??)) 같은 것이 작동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디에서 뭐하고 노는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

D: **공동육아가 별게 아니고..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되고..단독방에 올라오거든요. 혹시 우리 애 보신 분 이라고 올라와요. (전체 웃음) 그러면 개 어디서 봤어요...이제 혼자 뛰쳐 놀러 나간 **아이를 항상 그냥 단독방에서 찾으시고..이게 공동체 주택** 이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뭔가 더 살피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C: 애가 동네에서 돌아다니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보가 와요.** (웃음) ..저기 있다고 막 오고 좀 있으면 저쪽에 있다고 막 오고 그러니까 애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알고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애들을 내 아이 처럼 다 돌봐주세요. 내 눈앞에 있는 아이들을 다 이렇게 돌봐주시니까 약간 좀 **안심이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K: 여기는 이런 게 있어요. 엄마랑 연락이 안 돼요. 이제 휴대폰이 없거나 아니면 휴대폰이 이제 막혀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대 호출을 해요...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어쨌건 간에 이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엄마들 귀에 들어가죠.**

F: 거기에 나가는 것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나서기 보다는 그냥 **혼자 아이가 나가서 놀아도 별 걱정 없이 지켜보실 수 있는 거죠.**

## 라. 공유 공간과 돌봄

공간이 주는 이점과 공동체 관계가 주는 이점들은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돌봄 형태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스테인에는 넓은 잔디광장 뿐만 아니라 창작소, 키움방, 돌봄센터(놀자람), 스캐야, 도서관, 공유부엌 등 다양한 공유공간들이 갖추어져 있고, 이러한 환경들이 아이들의 돌봄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기간구조를 형성해 준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오면 집으로 가는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놀이터나 창작소, 도서관, 키움방 등에서 놀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랑 부모들이 동네 주방에 모이게 되면 또 동네주방에서 같이 요리해서 애들 저녁 먹이고 집에 가는 코스가 형성되기도 한다.

C: 어린이집 갔다가 오면 애들이 놀이터도 가지만 여기 창작소에서 피아노 치고 놀고 여기 도서관 와가지고 애들 그림 그리고 책 보고 보드 게임하고.. 그러다가 여기 키움방 와서 또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리고 여기 (동네)주방에 저녁에 그러다 보면 **삼삼오오 이제 사람들이 모여거든요. 또 아빠들이 막 모이고 막 이러면 저녁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저녁 먹을까요 하면 여기 (동네주방에)서 같이 요리해가지고 애들 저녁 다 먹이고** 그러고서는 집에 들어가고 약간 이런 코스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좋은 조건들과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주말에도 어디 멀리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기보다는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갈지가 스트레스였고, 또 애들 데리고 어딘가를 가는 게 부모들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 모두 부담이 되는 일이었는데, 위스테인 살면서는 굳이 키즈카페나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아는 동네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점에 매우 만족스러워 한다. 그래서 C는 “어디 가서 이렇게 애를 키우냐” 이런 얘기를 주위 아빠들과 많이 말한다고 하고, M는 위스데이의 환경이 “어릴 때 제가 놀았던 그런 환경과 제일 유사한 환경”이라고 말한다. 위스데이는 현대사회가 잃어버린 커먼즈, 커머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C: 애들하고 굳이 어딜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키즈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멀리 외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 잘 되어있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애를 키우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다른 분 공감) 애들 이렇게 같이 놀게 하고 마음 놓고 밥을 해서 같이 나눠 먹고 ..잔디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뛰놀게 하고.. 애들이 너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잘 되어있다.

C: 경제적으로 도움이 저는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서울에서 살았으면 애를 키움방 같은 데 놀리게 하려면은 키즈카페를 또 가야 돼요...가서 또 밥을 먹여야 되고 간식을 사 먹여야 되고 거기 나오면은 또 어디 가려면은 또 돈 들고...애들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려면 참가비, 참여비 이런 걸 또 내야 돼요.

M: 그때랑 지금이랑 엄청 비교가 돼요. 완전히 차이가 다르죠. 실제로 제 지갑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오고 저는 키즈카페 거의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주말만 되면은 어디 가야 되지? 돈 안 들고 갈 수 있는 데는 거의 없거나 아니면 멀거나 아니면 불편하고 어딘가를 또 간다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 되게 큰 부담이고 시간을 내야 되는 거니까 확실한 거는 아이들이 시설 좋은 키즈카페에서 모르는 애들이랑 노는 거랑 동네에서 그냥 여기 동네 앞에 놀이터 여기서 다 아는 동네 친구

들이랑 노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 제가 놀았던 그런 환경과 제일 유사한 환경이 지금 마련돼 있는 게 아닐까..아이들 풀어놓고 그냥 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 어느 것과 구분할 수 없는 큰 가치인 것 같아요.

## 마. 조부모들의 손자녀 돌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위스데이 별내는 입주 당시에 부모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같이 입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세대분리형 타입에서 살기도 하고, 별도의 세대로 입주해서 살면서 손주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위스데이의 돌봄 환경은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돌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사실 노년에 어린 손자녀를 보는 일은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주민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다보니 손자녀를 돌보는 일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W: 우리 딸내미도..나도 도와주고 \*\*도 도와주고 **엄마 좀 도와달라...**  
 그래 이제 이렇게 딸하고 사위하고 만나가지고 여기 왔어요...근데 여기 와서는 보니까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누구네 **할머니** 누구네가 **그 이름 다들 알고 있어요.** 내가 **한 집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 또 공동체도 잘 돼가 있고 동아리도 잘 돼가 있어요. **근데 좀 재미있어 보여요.** 잔디도 그렇고 애들이 여기 한 오후에 되면은 저기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지.

U: 진짜 여기 천국이예요. 여기서 이 팀이 있어요...꿀꿀이들 천지 여 꿀꿀이들 천지예요...우리 15팀 아이들 중에 내가 열... 다 아는데 1동

에서는 \*\*, \*\* 누구누구 살고 2동에서는 \*\* 누구 살고 3동에서 누구 살고 다 그렇게 알 정도로

W: \*\*이가 이제 얼굴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디 있다고 서로 찾아주는 거야 이제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이 안에서 벗어나가지만 않으면 애들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그 애기가 얼굴을 다 아니까 잇어 먹어도 누구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러면 저기 있어요. 그럼 찾기 쉽게 찾고 또 **내 손주 아니라 다 애들이 다 내 손주 같고**. 뭐 이제 애들 하나 사주고 만나면은 내 손주만 사주는 게 아니라 너도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친하니까 애들도 막 사이도 좋고..

U: 이제 80대 중반이 돼서 이제 **애하고 같이 보내려면 좀 사실 체력으로 이제 딸리죠**..체력이 딸리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면은 또 그 아기를 같이 봐주고 어찌고 이제 그럴 이제 환경이 안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를 같이 이제 같이 놀아주고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귀찮은데도 마을도 한 바퀴 돌고 걷기도 하고..아이를 돌본다는 거 체력적으로 힘들지만은 건강 면에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가 없었다면 맨날 소파에 누워서 뒹굴거리다가..그럴 텐데 아기가 있음으로 해서 건강이 잘 확실히 정말 그거 내가 너 아니었으면은 얼마나 내가 게으름 피고 그렇게 있었을 텐데 아기 때문에 부지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움직이는 기회가 더 많으니까 도움이 되죠.

## 바. 코로나 시기의 돌봄 경험

잘 알다시피 코로나의 확산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돌봄의 공백을 초래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들도 빈번했다. 또 아이들은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위스테이의 환경은 코로나 시기의 돌봄 문제에 대처하는 데서도 효과적이었다. 우선 위스테이의 공간 환경이 주는 이점으로 인해 아이들이 집에만 갇혀 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단지 내에서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도 타고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어떤 규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지향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K: 아이들이 이렇게 다 마스크는 쓰고 있었지만 그래도 **집 밖에 나가서 이 공간에서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도 타고** 하면서 되게 코로나에 외부에서는 아이들이 집 안에만 있고 어디 나갈 곳이 없고 해서 되게 힘들어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L: 어떻게 전체적인 아파트 전체의 어떤 규칙으로서 그렇게 한 것 같지 않고.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편하게 애들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서 놀게 하고..**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잘 알고 있는 가정의 부모의 집들 아이들하고 어쨌든 어울리게 되잖아요.**

더구나 코로나 시기에도 서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도와주는 경험들도 있었다. 아이가 아프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웃 주민이 아이를 응급실까지 데려다 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 사실 평상시와는 달리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코로나 시기임에도 이러한 도움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D: “한 번은 이제 애가 고열이 나는 거예요. 한 4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애가 축 축 쳐지는 게 느껴지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차가 없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단톡방에 올리자마자 두세 분이 올 수 있다고.. **저희를 데려다 주신 분은 이제 유치원생 아들을 가진 아빠였는데** 엄마는 일 나가셨고 애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아이가 있는데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서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응급실을 갔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애초에 준비했던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어려움은 있었다고 한다. 계획한 것들은 많았는데 유아무야된 것들도 있었고, 대신 몇몇 아는 부모들끼리 활동하거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위스데이의 공유공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집에 혼자만 있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런 실험적인 시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를 계기로 시니어 돌봄활동가가 양성되기도 했다.

E: 코로나 때라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뭔가를 **계획을 많이 했지만.. 조금 유아무야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대신에 좀 안전한 범위 내에서 그냥 알음알음 그냥 **아는 부모님들끼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만남을 갖는다든지 이 정도 수준으로..

○ : 코로나 때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저희 이 공간들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아이들 연극 수업도 하고 체육 수업도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도서관도 있으니까 좀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이제 학교에 가지 않아서 좀 혼자 있지는 않고 좀 이렇게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었어요.

○ : 코로나인데 이제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니까 학습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생각보다 되게 활발하게 뭐가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그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실험적인 것들로 근데 그게 좀 이제 상징이 된 거죠. 이렇게 아파트에서 시니어분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돌봐주는 분들은 활동가가 좀 양성이 된 편이에요.

## 사. 틈새돌봄

위스테인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큰 도움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틈새돌봄이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불가피하게 잠깐 동안이라도 아이를 보살피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공백이 발생할 때 위스테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다.

G은 위스테인 살기 전에는 아이를 두고 어디를 간다는 걸 생각도 해보지 못했었는데, 위스테인에 살면서 아이를 키움방에 잠깐 맡길 수 있었던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아이가 잠깐이라도 익숙한 곳에서 편하게 엄마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조금 큰 아이들에게는 스캐어나 동네책방이 틈새돌봄을 메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원이나 학교를 하면 스캐아로 모여서 놀기도 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엄마 아빠를 기다릴 수 있다 보니 부모들이 퇴근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걱정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스데이 별내의 돌봄 공간과 환경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때 부딪히게 되는 틈새돌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 정말 급할 때 저도 **이사 오기 전에는 아이를 놓고 어디를 간다는 결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그때 되게 아이가 어렸는데 제가 정말 급하게 잠깐 여기를 이렇게 나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키움방에서 잠깐 아이를 1시간 정도 이렇게 처음으로 그때 맡겨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좀 안정적인 공간에서 내 아이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있을 수 있다는** 그리고 아이도 되게 ..소극적이고 그런데 되게 불안이 있는데 여기는 계속 사는 공간이고 본인이 이제 놀던 공간이니까 좀 편하게 잘 있더라고요...그때 **아 진짜 느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돌봐줄 수 있다는 그게 있는 것만 해도 좀 엄청 크다**라는...

C: 스캐아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애들이 **하원을 하면 스캐아로 모여요...** 상주하고 계시는 분이 뭐 간식거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거기서 책도 보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애들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놀기도 하고..**엄마 아빠를 거기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애들 키우는 거가 모든 뭐가 준비가 되어 있다.

I: 아이가 엄마가 일할 때 “나 어디서 뭐 하냐.” 했을 때 “그냥 마을 가서 놀아. 이렇게 스캐아가 있어. 책방 가 있어. 어디 가 있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초반에 오히려 큰애가 제가 한 며칠 동안 일을 나가서 아이가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으라고

했더니 오히려 무섭다고 하고 책방 가 있고 그냥 자기 혼자서 돌아다니고 그게 더 편안함을 느꼈을 때 제가 되게 육아하면서 “되게 좋다.” 그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키움방이나 스캐아, 동네책방이 아니더라도 돌봄 네트워크가 형성되다 보니 필요한 경우 이웃들에게 아이를 부탁할 수도 있다. 아이를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간혹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주변에 부탁할 사람이 많아서 육아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한다. 초기에는 위스테인 차원에서 돌봄에 관심 있는 주민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매칭해 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서로 많이 안면들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별적으로 삼삼오오 돌봄의 공백을 메우게 되었다고 한다. 위스테인 (네이버)카페에 글을 올려서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한다.

C: 애 픽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간혹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부탁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이렇게 여기 안 왔으면 이렇게 애를 키울 수 있었을까..

O: 맞벌이 분들은 되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아이들 등원하기 전에 좀 봐줘야 된단든지 좀 등원할 때 해줘야 된단든지 짧은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필요한데..아이 돌봄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매칭을 해드리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은 이제 굳이 매칭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삼삼오오 이미 안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잘 되게 틈새 돌봄의 공백을 알아서 되게 잘 메꿔지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N: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글을 올리기도 하고 문의 하기도 하고 “저 돼요 저가 봐줄게요”(전화 시능하듯이).

P: 혜택보다는 뭔가 내가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길 수 있다는게 되게 크거든요

R은 아이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틈새 돌봄이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아이를 키우는 친구 얘기 들어보면 맞벌이의 경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아프면 빨리 퇴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런 일을 몇 번 겪다보면 일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스데이는 틈새돌봄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일-가정 양립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 같다고 말한다.

R: 제 주변에 육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중 키웠던 아이 개는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기는 했는데 그 아이가 개 말에 의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전화 올 때 라고 하더라고요. 애를 보내놨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아프니까 아이 하원 시키라고 하는 이게 한 어 처음 입학시키고 되게 진짜 비밀비재하게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 하는 그 면역 체계가 또 달라서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한두 번쯤은 이웃에게 부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위스데이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 아. 참여가 없는 경우

위스데이가 아이키우기 좋은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분들이 매우 만족해 하고 있지만 모든 가구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참여를 안 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부모가 관심이 없고 참여를 안 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한다. 아이들끼리 관계도 잘 형성이 안되고 하다보니 이런 경우 아이들도 동네책방이나 창작소, 놀자람, 스깨아 등 앞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공간들이나 프로그램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E: 저희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이런 공동체의 유익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전체가 다 이 유익성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한참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부모가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아이들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도 꽤 있거든요.

E: 아예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그러니까 부모가 안 하면 아이들도 안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가야지 어쨌든 도서관을 가든 뭐 하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생 같은 경우도 어쨌든 부모가 이거에 관심이 좀 있어야 아이도 관심 있게 보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관심이 아예 없는 이제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실질적으로는 참여가 거의 없어요.

### 3. 초등 돌봄/(사)교육에 대한 고민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미취학아동과는 돌봄의 성격이 달라지고, 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게 된다. 우선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놀자람’이라는 방과후 돌봄센터의 경우 위스케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지만, '놀자람'은 별내동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위스데이 아이들을 전부 포괄할 수 없다. 그래서 '스캐야'(스스로 깨우치는 아이)라는 돌봄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백개의 학교'라는 마을학교를 운영한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 받아서 자체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을학교를 운영 중에 있고, 마을학교 강사도 입주민들이 맡고 있다. 마을 학교가 일차적으로는 아이들 돌봄과 교육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의지만 있으면 지자체 지원 같은 것을 받아서 주민들이 직접 일을 벌이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된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H: 지금 **초등 대상으로 저희 마을학교 하고 있잖아요.** 지자체 예산을 좀 따서 마을 학교로 해서 애들이 방과 후에 돌봄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저희 조합 내에서 운영하고** 있죠...여기 돌봄센터는 따로 있고..초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마을 학교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E: 여기 '놀자람'이라고 해서 공공 지원받는 돌봄센터가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만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이제 이 별내동에 있는 아이들을 같이 이제 받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못 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G: 전에 살던 동네는 정말 진짜 가벼운 관계고 아이들 얘기만 했다면 여기서서는 이런 **지원 사업도 받고 그런 걸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요...**입주민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부모들도 그걸 통해서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G : 마을 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공모 사업이 나오면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을 해요...마을 안에서 이제 입주민들 대상으로 강사로 성장할 수 있게끔..** 강사도 마을의 입주민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런데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는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마을학교 같은 프로그램은 보통 3-4 학년 정도 까지 참여를 많이 하고 고학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참여도가 떨어지는데 이때부터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학년 아이들의 참여가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정말 저조했었는데, 지난 4년 동안 어려서부터 마을학교를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자라다보니 이 아이들은 고학년이 되어도 낮설어하지 않고 계속 마을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학교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모임을 꾸려서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돌보는 경우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E: 고학년은 학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보통은 한 3~4학년 정도까지가 이용하는 것 같아요.**

G: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청소년이 없었어요.**

F: 경험을 해본 친구들은 **5, 6학년이 되어도 이걸 낮설어하지 않아서 계속 마을학교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E : 마을 학교도 있지만 이제 주민들 내에서 마음에 맞는 주민들이 아이들을 몇 명 또 결성을 해가지고 책 모임을 한다든지 그리고 도서관 내에서도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 4. 공동육아

### 가.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

위스데이 별내는 육아 공동체나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나 욕구가 위스데이 입주의 계기가 된 경우들이 많았다. 아이를 같이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나 공동육아에 대한 욕구, 육아 공동체나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사들이 있는 경우에 돌봄 환경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그렇기에 사회 활동 경험이나 공동육아 경험이 위스데이 별내 입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위스데이 별내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육아친화형 아파트를 표방했고, 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했기 때문에 공동육아를 하던 사람들이 입주하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공동육아에 대한 뚜렷한 지향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서는 공동체 아파트라는 새로운 시도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입주한 경우도 있었다.

위스데이 별내는 사업 시작 초부터 공동육아를 하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다. 위스데이 별내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조합원들 중에는 이런 대안적인 형태의 주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H는 아이 셋이 어느 정도 큰 경우인데, 이미 2012년부터 공동육아 협동조합 활동을 해 왔으며, K·I는 입주 전에 같이 공동육아를 해 온 경우이다. 이들은

당시에 ‘소행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당시에 ‘소행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위스테이 별내로 오기도 했다고 한다. K·I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D의 경우는 공동육아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공동체를 표방하는 새로운 주거실험이 사회적으로 잘 안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스테이에 입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H: 저는 아이들을 공동 육아로 이렇게 어린이집이랑 방과후를 이렇게 키웠거든요...그때 유행하던 소행주라고 있어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하어튼 그런 공동주택을 좀 알아보다가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공동육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았던 것 같아요.

K: 저희는 여기 I이랑 저랑은...공동육아 함께 크는 배꼽 친구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원래는 신내동에 있는 소행주라고 하는 행복 주택 같은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조건이 안 됐어요.... ‘\*\*\*’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여기를 소개시켜줬어요.

D: 저는 오랫동안 시민사회 활동을 했었어 가지고...굉장히 좋은 시도고 취지가 좋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공동체 아파트의 새로운 시도 이런 개념이..뭔가 한국 사회에서 잘 자리 잡으면 좋겠다..집에 대한 개념보다는 어떤 활동과 존재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이제 왔는데..

N은 이전부터 교회 청년부를 통해 잘 알던 부부들과 함께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같이 아이를 키우려는 시도를 했었다. 그런데 가까운 지역에 여럿이 모여 사는 게 쉽지 않아서 잘 추진되지 않고 있었는데, 위스테이 별내를 알게 되면서 모임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같이 입주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M의 경우 공동육아에 대한 뚜렷한 관심이나 시도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막연하게나마 '성미산' 사례와 같은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은 있었다고 한다. J의 경우는 워킹맘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항상 공동육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던 차에 위스데이 별내를 알게 되어 입주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N: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있는 공동체를 찾고는 있었어요...2년 단위로 움직일 때 비용과 예산이 당연히 그건 제일 큰 그거긴 하지만..같이 키울 수 있는 어른들이 있으면 좋겠다...잘 어울려서 한창 아이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그런 것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이 이제 끝렸죠.

M: 사실 저도 아파트 공동체는 처음이지만 성미산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막 이렇게 로망이 있었거든요.

J: 공동육아 모임 이런 어린이집 이런 거를 이제 너무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그 환경에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다 충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계속 이제 목마름이 있었고..그게 또 별내동이라고 하니까 이제 딱 여기를 결정하게 된 거죠...

공동육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던 것은 아니지만 항상 육아에 대한 아쉬움이 있던 경우 위스데이가 지향하는 가치에 끌려서 오게 된 경우들도 있다. P는 자주 이사를 다니다보니 이사를 갈 때마다 새롭게 어린이집 알아보기도 어렵고, 또 주위 엄마들과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

받기도 어려운 경험에 대해 말한다. G는 공동육아나 공동체 활동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우연히 위스테인 별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설명을 듣다보니 아이 키우기 좋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P: 아이가 이제 4년마다 이제 이사하고 하면서 어린이집 알아보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많이 연락 놀이터에서 **잠깐 얘기하는 정도지 뭔가 관계를 많이 맺고 이러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G: 학교 가기 전에 뭔가 좀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자 하던 중에 남편이 우연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뭐 할 수 있는 광고판을 보고.. 공동체 이런 거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설명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 나. 돌봄위원회

1차 조합원 중에는 공동육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입주 전 입주예정자 모임에서부터 공동육아 준비위원회가 꾸려져서 입주를 준비하는 활동을 해왔다. 현재는 아파트 협동조합의 돌봄위원회로 바뀌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돌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아파트 돌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역할을 맡고 있다. O의 경우 위스테인 입주 하기 전부터 공동육아를 해 왔고, 그런 경험 때문에 위스테인 준비 단계에서부터 공동육아 소모임에 참여해 왔다. 그리고 현재는 방과후 돌봄센터인 '놀자람'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위스테인 별내에 거주하면서 공동육아 경험과 활동이 생각지도 않게 직업으로 이어지게 된

경우라고 한다.

H: 이제 **공동육아 준비(추진?)위원회**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돌봄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돌봄위원회가 지금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거죠.

O: 저는 여기 입주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공동육아 지원 사업을 3년 동안 했었어요...그래서 공동육아 했던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왔고..공동육아를 경험이 있다라는 이유로....공동육아 소모임을 해보세요...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지금은 돌봄센터에서 교사로 있거든요...생각하지 못하게 이제 저의 이제 직업으로도 연결이 되고..**

C는 공동체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항상 공동육아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위스데이에 입주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육아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위스데이의 대표적인 아부모임인 '위꿀아'에서 활동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이다.

C: 저는 사실 아이를 되게 좋아해서 **육아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공동체 마을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봤던 건데..공동육아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공동육아로 공부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게 공동육아구나 (웃음)**

공동육아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는 입주 준비단계에서부터 공동육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아파트 단지내 시립어린이집을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추진했었는데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결과적으로 실패

했다고 평가한다.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추천한 원장이 탈락하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와 거리가 먼 원장이 오게 되면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현재 마을 주민들은 단지내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다. 단지내에 산새꽃이라는 어린이집이 정원은 70명인데 35명 밖에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외에도 돌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돌봄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I가 말하는 것처럼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무산되었지만 ‘다함께 돌봄센터’는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지만 주민들의 참여로 공동육아 방식으로 운영되고 ‘놀자람’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이지만 내부적으로 공동육아 방식으로 놀자람이라는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스깨아’라고 스스로 깨친 아이들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입주민들이 같이 만들어서 운영한 경우이다. 방과후 돌봄센터는 공공의 지원을 받는 것이어서 별내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의 30% 정도가 타단지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돌봄센터에 다닐 수 없게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스깨아라는 별도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스깨아는 아이들의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치원이나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또는 엄마 아빠 기다리면서 스깨아에 모여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간식을 먹기도 한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 아파트 전체의 돌봄 활동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I: 초기에 ‘공동육아 추진위원회’라는 게 생긴 거예요...공동육아를 아파트에서 하려고 그런 모임이 계속 가다가..여기 (공동육아) 어린이

집이 무산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방과 후 교실 돌봄센터 있거든요. 거기 방과 후 활동 계속하다가 이제 거기에 같이 우리 모임이 그걸 만들게 됐고..

O: 공동육아 같이 했던 사람들이랑 공동육아 소모임 했던 멤버들하고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었거든요...스께아라고 스스로 깨친 아이들이라고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그거를 저희 입주민들이 같이 만든 거거든요...여기 아파트의 기조가 협동조합 아파트고 육아 친화 아파트고..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일을 벌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일은 되게 일을 판을 벌리기는 너무 좋은 구조인 거예요.

## 5. 아빠 육아돌봄

위스데이가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에 대한 돌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빠들의 육아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스데이의 환경은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 측면도 있고 줄이는 측면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늘어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아빠들 중에서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

우선 위스데이 별내의 대표적인 아빠 육아모임으로 위꿀아라는 모임이 있다. C는 공동체 마을이나 육아에 관심이 많고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위스데이에 살기 전에는 아빠들하고 같이 육아를 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9년 돼지띠 아이들 아빠들이 육아를 같이 하자고해서 모이기 시작했고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 식으로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거의 매주

만날 정도로 모임이 아주 잘 활성화된 경우라고 한다. 모임에는 등 떠밀려서 온 분들도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아이들 돌보는 과정에서 아이들 놀아주는 방법도 배우는 등 서로 배우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즐겁고 편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C: 위꿀아라고 위스테이 꿀꿀이 아빠 모임...**아빠들하고 같이 육아를 한다라는 생각을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근데 여기 와서 이제 육아를 같이 합시다 해서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아빠들끼리 이제 육아를 하고 엄마들은 좀 쉬게 해주자 약간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거예요...**이제는 거의 매주 만나는 거예요...**아빠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키움방이 우리 아기들 받은 다 키웠다** 그런 얘기를 막 해요...

C: 원래 육아를 잘하시고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진짜 완전 육아에 관심이 없는데 날 왜 여기다가 보냈어 (전체 웃음) **투덜투덜하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아이하고 어떻게 놀아주고 어떻게 말을 하고 해야 되는 거를 잘 몰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게 잘 되시는 아버님들이 애들하고 놀아주고 애들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이런 거를 **계속 같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런 걸 못했는데 **여기 와서 많이 배운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배우면서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M의 경우는 현재 3년째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고 있고, 일주일에 이틀 회사에 출근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 맞벌이부부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아이돌봄과 가사 일을 자신이 맡고 있는데, 위스테이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살았다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 같다고 말한다. 단축근로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는 있지만 모든 걸 혼자

다 감당하고 돌봐야 했다면 엄두도 나지 않았을 텐데, 위스데이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나가 놀수도 있고, 또 같이 모여서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만약 다른 곳에 살았다면 자기는 투잡쓰리잡 뛰는 한이 있어도 엄마가 일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게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이 연령대가 안 맞아서 위풀아 공식 멤버는 아니지만 행사 같은게 있으면 꼭 참여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M: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아기 단축근로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픽업도 제가 하고 저녁 아이들 식사도 제가 하고.. 맞벌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결과적으로 제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여기서 하니까 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냥 살았으면 다른 데서 살았으면 엄두도 안 냈을 것 같은데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제가 육아기 단축 근로한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아이랑 함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다 같이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고 그 이외의 시간들은 어쨌거나 동네에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케어해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빠로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부분을 도움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데서 살았으면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다른 데 살았으면 오히려 맞벌이하지 말고 엄마한테 더 최대한 많이 케어를 부탁을 하고 저는 투잡 쓰리잡 뛰었겠죠. ...직접적인 도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도 아마 안심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동네에서 좀 더 믿을 데 있으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M: 꿀꿀이 아빠들이 행사하면 저도 이제 꼭 가죠. 저도 이제 객원 멤버라고 이제 나름 이제 순화해서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덕을 보는 거죠. 거기서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많이 영향도 받고 자극도

받고 그래서 덕을 보고 있고 엄마 같은 경우에도 누가 뭐지 돌봄 활동 하면서 어머니도 이제 막 나름의 스튜디오 하고 엄마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거를 통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위꼴아 같은 모임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스런 분위기도 존재한다. 예전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일 없는 아빠같이 보일까봐 꺼려했었는데, 위스테이 살고부터는 전반적으로 아빠들 육아 참여도가 높다보니 아이랑 같이 놀이터에 노는 것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위스테이 주민 전체 활동이 많다는 것도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주민 전체 활동에 참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 관련 모임에 참여하는데도 심리적 장벽이 많이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육아를 같이 나눠서 하다 보니 지금은 아이 학교 상담도 같이 가고 아이 발달에 대한 고민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크게 안정된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 예전만 하더라도 어린이집 애 보내면 내가 약간 일 없는 아빠 같아 약간 이런 거를 좀 느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워낙에 아빠들이 육아가 많고 육아 참여도가 되게 높으시고..그러니까 본인도 그냥..아이랑 놀이터에 놀고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서 육아를 같이 하는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아이 학교 상담 가고 하는 것도 꼭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도 사실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떤 발달에 대해서 고민 대화를 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되게 크더라고요...아이들 양육에 관해서 대화가 좀 된다는 게 되게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리프레시도 되고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F: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그래도 위스데이 와서는...**주민 전체 활동이 많다 보니까..이렇게 문 밖을 나서는 데에 조금 거리낌이 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1학년 또래 모임도 입학 전에 진행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때도 아버님들이 꽤 많이 나오셨어요...**문 밖으로 나서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아빠들도 쉬운 발걸음을 떼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위스데이에 위꼴아 같은 아빠모임은 소수이고, 또 모든 아빠들이 육아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크면 아빠들의 육아 참여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우선 위꼴아는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 자녀가 있는 아빠들한테는 공공의 적이기도 하다. 6개 그룹 인터뷰를 하는 동안 1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들에서는 모두 위꼴아에 대해 언급할 정도로 위꼴아는 위스데이를 상징하는 아빠육아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아빠모임을 아이들 연령대별로 만들어 보려는 고민이나 시도가 있지만 그렇게 성공적인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고, 총대 메고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잘 안 되기도 한다. 그래서 위꼴아 멤버인 C는 이런 아빠모임이 전파가 돼서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육아로 아이들을 키우는게 훨씬 힘도 덜 들고 편하고 재밌는데 이걸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의 아빠들을 초청하고 행사도 열고 해서 확산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A: 저희도 **따라가고 싶은데 이게 단결이 쉽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D: 여기(위꼴아)는 총대 맨 아빠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 같아요...**딱 총대 메고 뭐가 해보자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들 지쳤어. 자기 애 케어하기도..

C: 작년부터 올해 이제 우리 위아래로 연령층에 **아빠 모임을 더 만들자 이게 목표예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이걸 해본 사람만 아는데 혼자 아이를 케어해서 이렇게 아이를 보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 무한 체력을 당해낼 수가 없는데 (웃음) **공동육아를 해서 아이들이랑 모여서 같이 육아를 해보면 너무 편한 거예요.** 애들한테도 더 좋은 경험을 해줄 수 있고 **그게 오히려 더 편하고 재밌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다른 연령층의 아버님들을 계속 초빙을 하고 있어요.** 행사도 열거든요..그게 이제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노력 중이에요.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도 확인된다. 아이들이 크면 아빠들 육아 참여는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는 요리 교실 같은 단발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게 되면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가정 내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정도이다.

G: 초등은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아빠 모임은 없긴해요.

E: 그전에는 아빠들이 아이 한 명씩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요리 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단발성으로 있었거든요...**아빠들이 아이를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그런 자발성은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가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E: 초등학교 이상 올라가니까..아빠들이..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아이들하고 소소하게 놀아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스데이의 환경과 공동체 육아가 전반적으로 육아부담을 낮춰 주다 보니 아빠들 육아 참여가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참여가 소극적인 경우에도 공동체 육아나 모임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대체로 아빠들은 시간이 되거나 가끔 같이 참여해야 하는 경우 참여에 긍정적인데, 왜냐하면 공동체 육아가 잘 되고 활발해야 아빠들도 육아부담이 줄고 자유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K: 참여가 그래도 이렇게 뭘 하자고 하면은 “나는 안 할래.” 이런 건 아닌 거예요..내가 참여는 안 할지언정 이렇게 하는 거에 반대는 안 한다던가, 아니면 또 근데 시간이 되면 내가 해준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L: 부정적일 수가 없죠....그렇게 공동체에서 애들 데리고 나가면 사실 남자들 입장에서는 프리잖아요. (웃음)

L: 가끔 “같이 해야 돼.” 그러면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같이 참여하고.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걱정이 없잖아요. 공동육아 애를 이렇게 마을에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나는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시간적으로나 어떤 마음 으로나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하긴 하죠. 왜냐하면 해야지 또 나한테는 또 자유 시간이 오니까 그런 거죠. (웃음)

J: 남편의 마음만 더 안정적으로 해준 것 같아요. (웃음) ..여기 와서 여기에 행사를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더 놓였을 것 같아요...그래도 ..아이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오늘은 누구 아빠 나왔어 누구 아빠 나왔어.” 하니까 그러니까 아빠도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은 나와주는 것 같아요. (웃음)

N은 위스테이 별내 입주 후에 육아참여도가 오히려 줄어든 경우이다. 입주 전에는 엄마는 육아, 아빠는 가사를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었는데, 위스테이 별내 살고부터는 역설적이게도 육아에 대한 부담이 주니까 엄마가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다시피 하고 자신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주말에 아이들을 보려고 해도 아이들이 알아서 잘 노니까 손도 털 가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의 심적인 부담이 줄고 안정감 같은 걸 얻게 되니까 자신도 일에 더 집중해도 부담이 덜한 상황이라고 한다.

N: 약간 역설적이긴 한데 오히려 여기 들어와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고 엄마는 아직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웃음).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에 더 시간을 더 내게 됐어요...그전까지는 아이들 엄마가 아이를 보고 이제 저는 살림을 좀 더 청소를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했다면..지금 와서는 **아이들에 대한 그거 조금 주니까.. 좀 더 일에 몰입하게 되고** 그렇다고 혼자 너가 애 다 봐 이건 아닌데 주말 되면 저도 아이 육아에 동참하긴 하지만 **주말 되면 아이 육아에 동참하려고 해도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변화는 있어요.**

N: 엄마도 어쨌든 그런 엄마들끼리 모임..어쨌든 같은 애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 같다.  
거기에 대해서도 나도 오케이 그럼 나는 일 더 해야지 뭐 이렇게 약간  
좀..엄마의 부담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심적인 부담이..

## 6. 고령자 돌봄과 일자리

### 가. 고령자들의 돌봄 인프라

2장에서도 언급듯이 위스데이 별내에는 생애주기별 돌봄의 차원에서 육아 돌봄 이외에도 다양한 돌봄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년 돌봄이다. 위스데이 별내 60플러스센터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공동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 돌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시도되고 있지는 못하고 한계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좋지만 주변 환경을 보면 교통도 불편한 점이 많고, 무엇보다도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 병원 몇 개 있을 뿐 대형 병원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 주민센터나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한다.

U: 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울타리 안에서는 여기가 천국이다. 근데 밖에는 그렇게 그렇다고 볼 수 없는 환경이죠...**단지 바깥에는 일단 이제 지금은 지하철이 개통이 돼서 조금 나왔지만 교통 문제, 뭐 병원 대형 마트 병원은 이제 소형 개인 병원들은 좀 있는데 이제 **대형 병원이 없고...주민센터 같은 것도 멀고 보건소는 어디 가 있는가 모르겠고**

또 입주 당시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는 거의 실행된 것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야심차게 준비를 했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방문 진료 같은 것도 구상을 했지만 아직까지 시도를 못하고 있다. 조합차원에서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V: **최초의 여기 꿈도 많았었는데...**이제 연세도 드시고 그러면 **방문 진료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내 집에서 살다가 죽거나...**내가 사는 곳인데 노후의 생활을 여기서 정착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삶의 질 이런 것들도 한번 꿈꿔보자.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방문 진료나 이런 것까진 아직 안 되고 있고...**

V: 현재로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고...그걸 시스템적으로 조합에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순회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 진료를... 계획하고 그게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아직까지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 나. 고령자 일자리

고령자 돌봄과 함께 고령자들을 위한 일자리도 중요한 관심 주제다. '60플러스 행복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공과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노년애 소소하게 일을 하면서 마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생겨나서 운영되고 있다. 가령 아파트 근거리 배달이라든가 커뮤니티 시설 청소·관리를 마을 어르신들이 맡아 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소득이 주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입주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돈이 궁해서라기보다는 노년에 소일거리 삼아 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V: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바로 여기 **일상터라고 60 플러스 행복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남양주 시니어 클럽하고 CJ 일상생활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여섯 분이 거기서 일을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택배 집하. 배송은 안 하고 집하하는 일 그전에는 '할배달'이라고 해서...한 700m 내외 업소에서 700m에 가까운 거리는 어르신들이 가방 메고 배달해주는 그런 일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일자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또 커뮤니티 관리 센터로 해서...목공소, 창작소, 도서관, 체육관 이 청소를 일반 민간들한테 청소 안 시키고 그래서 조합원들이...**커뮤니티 관리 시설은 우리 손으로 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전반적인 청소 용역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벌써 생겼잖아요...**일자리를 창출하는 경로당 그것을 모색해 가고 있고**

U: 이제 우리는 이제 조금 서민이지 **극빈층은 아닌 그런 경우니까.** 이제 꼭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만 생활이 유지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뭐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이제 운동 겸해서** 우리 마을에 각 부분들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데... 이제 청소 일주일에 두 번...

V: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말 그대로 극빈자는 아니고...**좀 중상위층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제가 볼 때는 중산층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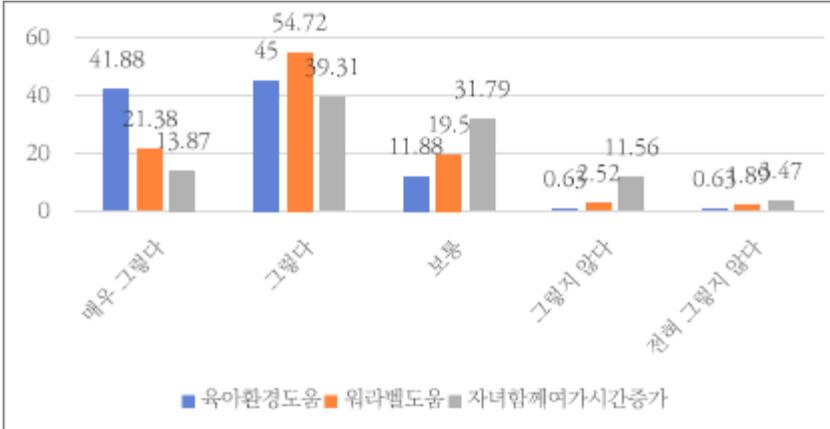
여기서 일자리 찾으러 다니고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벌써 부터 노후를 즐기고 그런..

## 제2절 육아 만족도/스트레스

### 1.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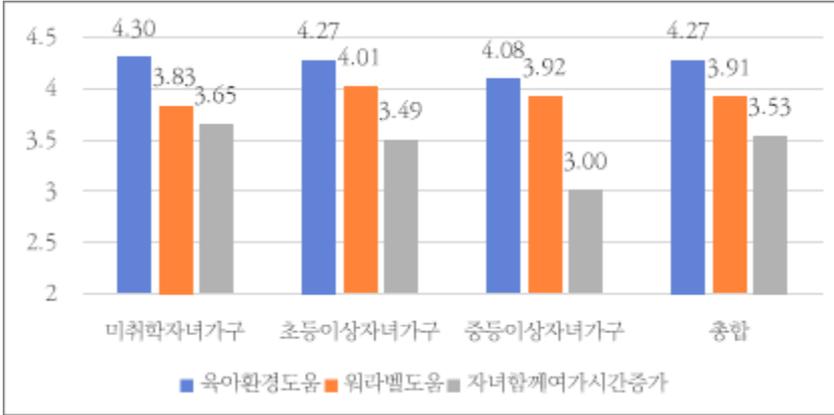
위스태이의 환경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가 41.88%, 그렇다가 45%로 육아환경에 대한 평가가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위스태이 별내의 육아 및 돌봄 관련 환경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5% 정도 되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와 함께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위스태이 별내 입주 전에 비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는 앞의 두 질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긍정적이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정도이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15%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2] 위스데이 별내 환경이 육아에 주는 도움



자녀연령별로 위스데이의 환경이 육아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본 결과는 집단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스데이의 환경이 육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자녀가 어릴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다.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장 높았지만 이 또한 집단간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에서는 자녀 연령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위스데이의 환경적 요인보다는 자녀연령에 따른 자연스런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3] 자녀 연령별 위스테이 별내 환경이 육아에 주는 도움



주: 설문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공동체 이웃관계는 육아만족도나 워라벨, 자녀와 보내는 시간 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위스테이의 육아 돌봄이 이웃과의 긴밀한 관계나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웃과의 관계는 육아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공동체 이웃관계, 즉 서로 얼마나 대화를 하며 지내는지, 이웃 간에 방문이나 초대가 얼마나 활발한지, 도움을 주고 받은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가 육아만족도와도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스테이 환경이 육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경향은 공동체 이웃관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 관계는 전반적인 육아만족도와도 어느 정도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웃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은 경험은 위스테이 별내의 육아 및 돌봄 관련 환경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과도 상관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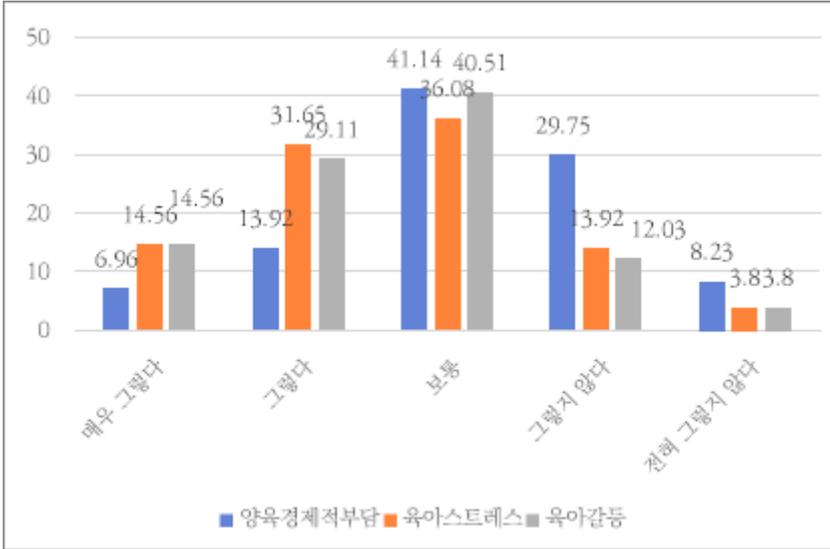
〈표 4-1〉 이웃관계와 육아 간 상관관계

obs=167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	도움 요청하거나 받은 경험
육아만족도	0.37	0.35	0.37
육아워라벨	0.34	0.31	0.42
육아도움	0.79	0.70	0.60
자녀와여가시간	0.26	0.23	0.35

위스데이의 전반적인 육아 환경과 공동체 돌봄, 아빠들의 육아 참여 등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부모들이 육아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은 줄었는가? 조사에서는 위스데이 입주 후 육아 부담을 경제적 부담('입주 후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과 육아스트레스('입주 후 육아부담과 육아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육아로 인한 가족 간 갈등('입주 후 육아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줄어들었다')의 차원에서 물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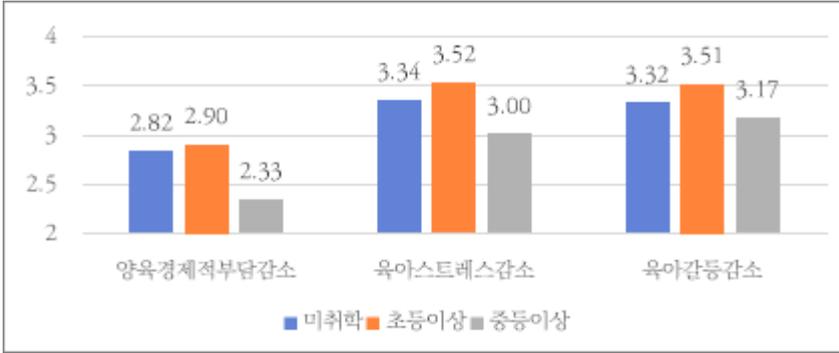
우선 경제적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20% 정도에 불과하였다.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거의 30%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반면 육아부담과 육아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비중은 45% 정도에 달했으며,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17%에 불과했다. 육아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중도 대략 45%였으며, 갈등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위스데이의 육아 환경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서적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14] 입주 후 육아부담 감소



자녀 연령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육아부담의 감소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부담과 육아스트레스, 육아갈등 세 가지 차원에서 모두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아직 부모의 육아를 많이 필요로 하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아직은 육아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학교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 등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이 요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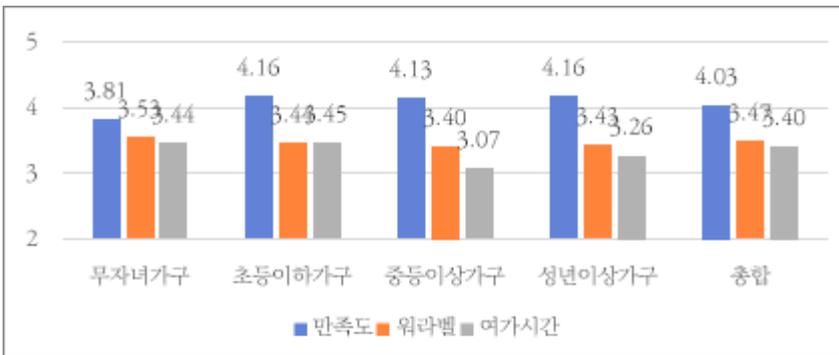
[그림 4-15] 자녀 연령별 입주 후 육아부담 감소



주: 설문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나 워라벨, 여가시간 활용 등을 자녀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무자녀 가구보다 유자녀 가구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자녀 가구 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워라벨이나 여가시간 활용등에서는 자녀의 유무, 자녀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6] 자녀 연령별 위스데이 별내 생활 만족도



주: 설문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공동체 이웃관계와 육아에 대한 부담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위스테인의 육아 돌봄이 이웃과의 긴밀한 관계나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웃과의 관계는 정서적 측면에서 육아 스트레스나 육아로 인한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공동체 이웃 관계, 즉 서로 얼마나 대화를 하며 지내는지, 이웃 간에 방문이나 초대가 얼마나 활발한지, 도움을 주고 받은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육아스트레스나 육아갈등의 감소가 더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은 경험에 따라, 그리고 급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육아스트레스나 육아갈등의 감소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공동체 이웃관계에 따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이웃관계와 육아에 대한 부담감 간 상관관계

obs=153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	도움 요청하거나 받은 경험	급할 때 아이 맡길 수 있는 이웃
양육 경제적부담	0.20	0.13	0.33	0.21
육아 스트레스	0.37	0.32	0.46	0.42
육아 갈등	0.36	0.30	0.46	0.41

## 2. 육아·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육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서로 간에 신뢰감이 생겨서 마음도 편하고, 아이 발달에 대한 고민이나 정보를 나누면서 육아에

대한 걱정도 덜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를 알고 있는 어른도 많고 아이가 아는 어른도 많다는 점에서 오는 안정감도 매우 크다. 그리고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신뢰감도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G: 저는 엄청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아이를 같이 키우고 진짜 함께 키우고 같이 이렇게 공동육아하는 엄마들의 아이들도 진짜 내 아이 같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뢰가 있으니까 서로 되게 마음도 편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나이 때는 뭐 이렇대 하면서 서로 그런 것도 얘기하고 이제 아이들의 발달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게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내 자신도 좀 바라보게 되고 그런 부모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F: 저도 만족도가 많이 높고요. 저 같은 경우에 삶에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안정인 것 같은데... 일단 살고 있는 곳에 그 아이를 알고 있는 어른이 많고 아이가 또 아는 어른이 많다는 게 되게 안정성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더라고요...지켜보는 눈들도 많고 또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신뢰감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정감을 줘서 삶이 조금 더 윤택하지 않을까(웃음)

육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육아 때문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다고 한다. G은 첫째 아이 키울 때는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고 육아에 대해 물어볼 데도 없어서 힘들었다고 한다. 아이 키우는 데서 오는 자책감도 심하고,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는 강박도 있었는데 위스데이 살면서부터는 자신이 부족한 것들을 옆에서 채워주기도 하고 주위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들으면서 강박도 줄어들게 되면서 아이

대하는 것도 편해졌다고 한다. 육아의 힘들음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 스트레스를 많이 덜어주었다고 한다.

G : 저는 이제 제가 첫째를 키울 때 되게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친구들도 다 결혼을 하기 전이었고..육아가 되게 힘들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게 되게 힘든데 그거를 나눌 수 없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혼자서 다 아이들이 왜 우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거를 뭐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별로 없고 그런 게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서서는 그런 걸 육아의 힘들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분위기잖아요...

G: 솔직히 덜한 거 같아요. 육아 스트레스가.(웃음) 육아 스트레스가 제가 진짜 좀 그런 게 심했거든요...자책감 이런 게 되게 심했었는데 여기에 되게 이렇게 저 말고도 이제 좋은 어른들이 많고..내가 좀 이렇게 아이한테 이래도 다른 어른들이 좀 채워주는 것도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강박도 많이 없어지고 그냥 아이를 대하는 게 전보다 확실히 많이 편안해졌어요.

O는 첫째를 낳고 나서 난 육아는 아니구나라고 느꼈었다고 한다. 그리고 공동육아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도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였다고 한다. 그런데 위스테인에 살면서 주변 이웃들과 같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면서 육아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자신과 아이 모두 즐겁게 안정감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O: 사실 공동육아를 할 때도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라기보다는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제 육아 동지를 찾으려고 사실 공동육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저대로 이제는 일을 하고 즐겁게

할 수 있고..사실 이제 아이들이 정말 안정감 엄청 누리고 있구나 그거를 많이 봐요.

O: 육아 스트레스는 완전히 해방됐죠..첫째를 낳고 아 난 육아는 아니구나 그거를 느꼈거든요..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덜게 되었던 경우도 있다. F는 조부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곤란했던 적들이 있는데, 위스테인에 와서는 조부모에게 급하게 도움 요청할 일이 없어지다보니 짜증내거나 스트레스 표출하는 것도 많이 줄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가정적으로도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P의 경우는 둘째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홀로 아이 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첫째 아이랑 트러블이 많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스테인에서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심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아이랑도 잘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는 1학년이 되면서 놀자람에서 지내면서 많이 좋아했고, 지금 4학년이 되어서는 위스테인에서 운영되는 수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F: 저는 사실 조부모님들이 다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도움을 못 받았어요. 출산하고도. 근데 애들이 아프고 이럴 때는 확실히 손이 필요하니까 막 연락을 동동거리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와주시고 하셨는데 여기 와서는 그렇게 연락 급하게 드린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이렇게 짜증 내고 스트레스 표출하는 것도 많이 줄기는 해서 가정적으로도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P: 저 같은 경우는..애 둘을 케어했어야 했는데 **애가 초등학교 큰 애가 들어가면서 되게 많은 트러블이 생겼어요.** ..둘째가 태어났고 저랑 관계가 되게 나빠졌던 시기인데 그때 여기서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멀리 가기 힘든데 여기서 하고 또 약간 눈에 보이는 데서 아이를 돌봐주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면서 되게 많이 힐링이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프로그램 지원 사업 받아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때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러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큰 아이가 이제 1학년 되면서 거기서 놀자람이라고..놀자람 보낼 수 있게 됐고** 아이가 그것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고 지금은 4학년인데 요즘은 또 이제 오후에 수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육아를 맡고 있는 아빠의 경우도 위스테인은 육아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다. 예전에는 주말에 애기들 데리고 어디 갈지 스트레스가 컸는데, 위스테인에서는 크게 맘먹지 않고 집밖에만 나가도 아이들이 동네에서 즐겁게 잘 놀 수 있어서 육아로 인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M: (예전에는) 주말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같이 막 상의를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런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은 사실 큰 의지가 아니고서도 그냥 아이들 동네에 풀어놓으면 잘 노니까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 제3절 돌봄 경험과 주거/일자리 의식

#### 1.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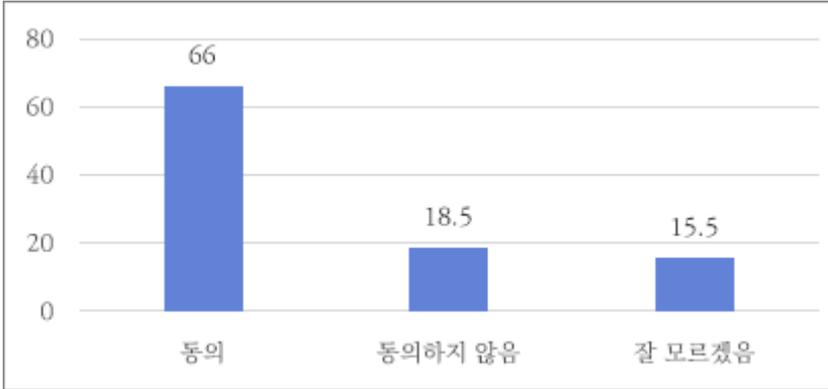
3절에서는 공동체 육아·돌봄 경험이 내집마련 계획이나 향후 이사계획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 사회는 내집마련 규범이 매우 강하다. 집 한 채가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사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생애설계에서 내집마련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해 왔다. 그런데 위스데이 별내는 기업형 임대 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었고, 사업 계획상 8년 장기임대로 설계되었다. 그러므로 입주후 8년이 되는 시점에서 장기임대는 종료될 예정이다. 8년 이후에 일반적인 민간 아파트처럼 분양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 소유로 전환해서 계속 임대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입주민들의 공동체 생활과 육아·돌봄에 대한 경험이 분양전환/임대유지에 대한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향후 내집마련 계획이나 이사계획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2028년 의무임대 종료 후 사회적협동조합 소유로 임대를 유지하고자 할 때, 동의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 335명 중에 임대유지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6% 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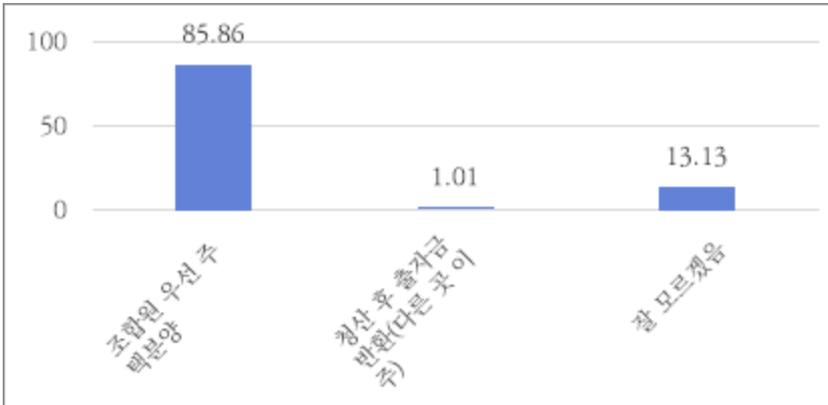
다음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주거모델을 선호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99명중 85.9%로 거의 대부분이 조합원 우선 주택분양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조합 청산 후에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응답은 1명에 불과했으며, 13.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sup>11)</sup>

11) 앞의 문항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2명,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그림 4-17] 협동조합 소유/임대에 대한 의견



[그림 4-18] 선호하는 주거 모델 응답



현재 위스테이 별내 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내집마련에 대한 욕구도

52명이었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호하는 주거모델에 대해서는 99명이 응답을 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들 중에 일부가 선호하는 주거모델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있어서 조합원 우선 주택분양 방식의 분양전환을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돌봄 경험과 거주의향

### 가. 계속 거주의향

인터뷰 내용에서도 위스데이 별내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는 아이에게 고향을 만들어 주고 싶은 바람도 크지만 스스로도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친구가 많아져서 다른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말한다. 집을 이용해서 재테크를 한다는 것에 비하면 현재 이웃들간의 관계가 주는 만족감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C: 아이가 태어나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아이한테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다'**였어요...진짜 저희 어릴 적에는 동네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과 하교의 추억이 이렇게 있잖아요...이 동네는 약간 이렇게 '응답하라'처럼 되겠는데 약간 이 생각이 드는게 (웃음)..육아를 하면서 이제 아빠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재밌는게 연령이 다양한데 친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친구가 많아졌지만 저한테도 친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분들하고 너무 재밌게 막 지내고 있어서 굳이 이사를 가고 싶지가 않은게 계속 사는 게 재밌는데..**여기가 잘 돼서 계속 오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희망이 있을 뿐이지** 뭔가 다른 데 가서 내가 저길 가서 **내가 차익을 얻겠어 (웃음) 재테크를 막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B와 G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그것이 주는 안정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곳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안하게 사느니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더구나 집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마음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B: 저는 막 집에 대한 욕심도 없고...**불안하게 옆집에 워아랫 집에 어떤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불안을 안고 사는게 오히려 우리의 어떤 생활에서 또 마이너스적인 스트레스가 될 거 같습니다...** 이제 살 수 있다면 계속 살고 싶은 마음으로 정했습니다...**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좀 사회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 이거죠..**

G: 여기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계속 살고 싶기는 해요...그리고 뭔가 약간 이제 **사람들이랑 신뢰가 생기니까 좀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다 보면 어떻게든 뭔가 되겠지 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P의 경우는 부모님이 아직 집장만 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기도 하고, 자신도 임대주택에 살면서 다달이 임대료를 내는 것이 고민이 되었다고 한다. 은퇴 후에 소득이 끊겼을 때도 과연 임대료를 내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아이가 워스테이 별내를 너무 좋아하고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이가 매우 내향적인 성격이지만 여기에 살면서 많이 편하고 자유로움도 느꼈다고 한다.

P: 저는 5남매인데 저만 엄마가 “너만 집이 없다.”(웃음)..저는 여기 처음 들어올 때도 다달이 내야 된다는 돈이 있을 때 그게 고민이 좀 있었어요...내가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 사용료를 낼 수 있을까...

아이가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큰아이가 저희 다 극 I인데 아이가 이렇게 어른들 보면 막 반말하면서..되게 자유로움을 좀 느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요 공간과 어른들과 또 이제 동생 친구들을 되게 사랑하는 아이여서 계속 여기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 나. 내집마련에 대한 고민

위스데이 별내에서의 생활이 만족도가 높아도 내집마련은 여전히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집 한 채가 주는 안정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집마련에 대한 고민을 덜어내려면 내집마련 없이도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다. 그러므로 위스데이 모델이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감을 계속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일 거라고 지적한다.

A: 사람들이 왜 집을 사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엔 그게 안정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위스데이라는 모델이 그 주거 안정감을 계속 줄 수 있다라면은** 꼭 개인이 그걸 사지 않더라도 유지해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요.

임대주택에 대한 시선과 노후안정 같은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된다. 내집마련 욕구에는 당장에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라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집 없는 사람들도 노후에 안정적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나 편견이 줄어들 수 있는지, 만일의 사태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추어질 수 있는지 등이 주된 고민거리라고 지적한다.

F: 저는 고민은 되는 것 같은데요...어떤 당장에 안정적인 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보다는 사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측면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늘 이제 그 불안함이 같이 공존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만 된다면 내 집 마련이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근데 아이들의 뭔가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상황 아니면 저의 노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는 항상 그게 고민의 요소는 되는 것 같아요...지금의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안에 있으면서도 되게 괴리가 조금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를 생각했을 때 내집마련은 필요한데 위스테인 거주가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위스테인 별내를 사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앞에서 설문조사 결과에서 조합원 우선 분양 전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D: 노후를 생각했을 때 이런 분들이 계신 거 같아요...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 이 아파트에 대한 만족감은 확실히 있다 보니까 여기를 사고 싶은 거야. 만약에 개인으로 사더라도 이 위스테인을 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만족감은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D: 근데 아무래도 개인 분양은 비싸지니까...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는 다 있으니까 지난번에 조합원 마련할 때도 같이 교육 들었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어쨌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고민이 된다...

E는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다 위스데이 별내에 입주한 경우인데, 자기 집을 소유하더라도 만족감이 크지 않았다고 한다. 내집마련에 대한 열망이 대부분 다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출금 갚기 급급하고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가소유는 만족감이 높지 않다고 말한다. 내집마련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굳이 내집마련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E: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근데 저는 자가가 있다가 팔고 여기를 들어온 케이스잖아요...자가가 있어도 어쨌든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출금을 갚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져 사실은 그 돈을 갚느라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집이 있지만 그 집이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사실은 많지 않았거든요...**이렇게 되게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그냥 내 돈에 맞춰서 집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오히려 불편해요...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자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면. 굳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다음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다. 분양전환

아이가 커서까지 공동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바람이 커서 조합소유의 임대주택 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분양 전환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양전환을 염두에 두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D: 여기도 주거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4년 이후에는 우리가 소유해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제 개인 분양에 니즈가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게 좀 이슈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간절하거든요. 빨리 조합에서 사서 쪽 가야 된다....아이가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공동체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여기서 갖고 싶다..**

E: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냥 이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아무리 대출을 풀로 해준다 해도..이제 이자를 감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엄두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사한 사람들도 꽤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사를 나간 경우 대부분 내집마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M은 주변에 이사 나가는 경우들을 보면 자신도 청약 같은 것을 넣어 보기는 하는데 사실 여기를 벗어나서도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청약을 넣어보는 것도 8년 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지 이곳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내집마련에 대한 욕구가 더 커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M: 저희도 아직 이제 8년 이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항상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년 동안 이사한 분들 꽤 되더라고요. 생각보다...“어 왜 이사 가지?” 싶은데도 “4년만에 4년도 안 돼서 이사가시지 여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드나?” 이런 생각 들다가도 **대부분 다행히...잘 돼서 나가시는 거거든요...집 장만해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그래서 저도 넣어보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저도 과연 이제 “내가 벗어나서 잘**

더 행복할까?”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아직 위스테인이 이제 최초이고 처음에 이제 시작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8년 이후가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서 불안정성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건 있는데 지금 사는 환경이나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내 집에 대한 더 욕망이 더 크다거나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요.

분양전환을 할 경우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금을 조금 더 보태면 내집마련이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젊은 층은 그래도 내 집 내 집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여기가 저가로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쌀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다 좀 보태면..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여기서 계속...지금처럼 임대로 가겠다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분양 전환을 할 경우 현재의 공동체적 분위기가 많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다. U와 W는 분양전환을 할 경우 단합된 분위기가 깨질 것을 우려한다.

U: 근데 나는 이런 분양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의 이 질서 단합된 이런 분위기가 깨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걱정되거든요.

W: 공동체라는 그 개념이 좀 뭐 이렇게 흩어지지 않을까, 뭉치는 것보다 흩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봐요.

분양 전환을 하게 되면 구성원이 바뀌게 될 텐데 기존 멤버와 새로운 멤버가 현재와 같은 커뮤니티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동네 주민으로서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양 전환보다는 임대 유지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오히려 분양 전환을 하게 되면 여기서 계속 거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답한다.

R: 저도 굳이 집을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되게 안정적으로 내 주거를 지킬 수 있다, 살 수 있으면 좋겠더라는 생각이 더 강해서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저렴 적정한 임대 가격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는 생각이 들고...**만약에 이게 개별 분양이 되면 현재 남아 있는 공동체는 어쨌든 지금처럼 유지되는 공동체는 지금의 성격 이거나 지금의 모양이 아니게 될 것 같더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에 살기로 결심했던 계기 그리고 여기서의 삶의 만족도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라 **저는 만약에 개별 분양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반대로 난 여기 계속 거주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S: 소유의 문제라보단 약간 커뮤니티성이라는 약간 그래도 정체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저도...동네 주민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R: 서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이런 게 있을 거더라는 그냥 뭔가 안전망 같은 게 있을 거라는 이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될 부탁해도 선의로 이제 그걸 받아들여주실 것 같고 쉽게

나눔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개별 분양이 되면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떠나게 되는 구조일 거 그 분이 안 되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채워질 거고 그렇게 기존에 있던 멤버와 새로운 멤버가 다시 그런 형태의 커뮤니티 틀을 만들 수 있을지는 사실 저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커뮤니티 모습이 아닌 다른 형태로 그 삶의 모습이 바뀔 거고 그랬을 때 제가 느끼는 만족감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V는 처음에 입주할 때는 분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주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무주택자 자격으로 분양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4년 동안 거주하면서 지금은 그럴 필요성을 잘 못느낀다고 한다. 현재 상태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집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살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한다.

V: 최초 입주 때부터 1년 2년 3년 갈수록 이런 시스템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여기서 뭐 내가 더 이사가서 딱 데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최초 들어올 땐 그거 짱아요. 무주택자로 일단 분양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년 전만 해도.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잖아요. 도서관 가 있지 체육관 있지 뭐 말 그대로 천국인데(웃음)

V: 만족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흘러가요. 이게 처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아파트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곳 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다른 이사 가서 살겠다 이런 생각이 절대 안 드는 것 같아. 계속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누리는 분들은 천국이에요..

## 라. 노후 돌봄

노후의 돌봄 욕구도 현재와 같은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위스테인 별내에 입주하게 된 것은 자녀 양육 때문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여기서 함께 늙어 가고 싶은 욕구가 크다. 위스테인 별내가 만들어 가고 있는 돌봄 공동체의 성격 때문에 여기에 계속 살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돌봄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어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한다.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자신을 위해서는 여기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K: 정말로 애가 공부를 정말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제 고민이라면. 근데 그 고민을 제외한다면 **노후 여기서 보내고 싶은 거죠...왜냐하면 이제 돌봄은 계속 이어지고 이제 내 상황에 맞는 돌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같이 만들어 나갈 어떤 네트워크가 생성돼 있잖아요 같이 늙어갈 거니까...**이렇게 여기 있고 싶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I: 이렇게 위스테인 문화 없이 딴 데서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싫더라고요....그 전에는 애를 위해서 제가 이사를 갔던 건데 지금은 여기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아이가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사갈 순 없겠다 이렇게.

## 2. 돌봄 경험과 일자리

협동조합 방식의 아파트 공동체는 경력단절 문제나 지역일자리 창출 같은 문제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스깨아'라는 돌봄공동체는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G는 출산 이후에 사회생활은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스깨아'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경제 같은 것도 알게 되고 자신감도 얻게 되면서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전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D: '스깨아'라고 해서 '스스로 깨우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예 협동조합도 있고..스깨아가 이제 처음에는 이 돌봄 협동조합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카페를 여신 거예요...사실은 보편은 **엄마들이 경력 단절 엄마들도 많단 말이예요**...스깨아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만들고 이런 게 그래서 많이 확장되길 원하는 거예요...**육아도 육아지만..엄마들 일자리도 기여하는 것 같아요.**

G: 출산하면서 이제 직장을 관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사회생활이 이제 끝났겠다 생각을 했어요**...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 그랬을 때 생각나는 게 뭐 그냥 카페 파트타임, 뭐 편의점 알바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그래서 진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용돈 벌이라도 하려면.. 그런 걸 해야 되나 딱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엄마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저는 약간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스깨아'라는 공간에서 이제 **아이들 보는 일도 하고 이렇게 되게 작은 일부부터 시작을 했고**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꼈고...지금은

약간 이 정도 환경이면은 내가 다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긴 해요...예전에는 이제 막연하게 직장생활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한...1~2년만 더 있으면 그래도 내가 직장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지역 일자리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직장이 멀리 있으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협동조합 일자리들이 지역의 다른 불안정한 일자리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상당부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D: 아이를 키워보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아이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나인투스식은 못하는 거예요...제가 한동안 당근 지역 일자리 그걸 등록을 했는데..그런 걸로는 또 안정적이지 않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그래서 저는 처음에 스캐아에서 일하게 됐을 때 되게 기뻐거든요...이 지역에서 지역 일자리를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A: 경력 보유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마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근거리에서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하고..제가 여기서 일하지 않고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었더라면은 첫째도 둘째도 어찌면 좀 첫째 낳고 그냥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스태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이 남양주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적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 대상으로 협동조합 등에 대한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창업 등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도 생기고 불안감도 덜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와이프가 지금 어쨌든 일을 잠깐 안 하고 있는데...건축 설계를 하는데 건축 설계 일이 너무 빡세고 보통 정시 퇴근을 잘 못하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내가 그 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서 저는 그러면 이 동네에 건축사무소를 차려 가지고 그걸 좀 해보면 안 되겠느냐...저는 큰 그림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스데이 별내 사실은 협동조합이 남양주시 지역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입지나 위치들이 있는데 그 입지나 위치들을 생각해본다 라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F: 거주하면서 아무래도 사회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거든요... 입주민들이랑 같이 들으면서 안목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하는 일 이렇게 그쪽 분야밖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구나, 사회적 기업에 내가 취업을 할 수도 있구나, 여성 기업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안목도 넓어지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둬도 좀 덜 불안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같아요.

G: 저도 같은 맥락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걸 아예 몰랐었거든. 여기 와서 알게 되고 여성 일자리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좀 자신감이 생긴 거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고 사실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놀자람’ 같은 경우도 공공의 지원을 받는 다함께 돌봄 센터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방식인데, 많은 경우 공공의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백개의학교’처럼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그렇게 잘 활성화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참여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 놀자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딱 이렇게 구축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약간 그 직업적인 면으로도 약간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뭔가 이렇게 끌어들이고 돌봄과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나라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약간 가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지속적 있지 않을까 싶어요.

C: 그게 있었어요... ‘백개의학교’도 했을 때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렇게 탄력은 못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M: 초기에는 사람에 기대서 이제 어떻게 되지만 고민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이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좀 더 이제 주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지금은 이분들에 의해서 가지만 본인이 요구하는 게 있고 아쉬운 게 있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이제 박혀야죠.

## 제4절 소결

4장에서는 공동체적 관계 형성과 공간적 구성이 어떻게 돌봄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돌봄 활동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지 살펴 보았다. 위스데이의 공동체 육아 돌봄은 우선 공간과 환경이 주는 이점이 많이 언급된다. 그동안 공동육아나 공동체 육아, 육아 돌봄은 공동육아 모임이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일반적인 형태였고, 마을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공동육아의 공간과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었다. 위스데이 아파트는 아파트 설계부터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공간적 장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환경은 육아 공동체, 네트워크, 이웃관계 등이 형성되는 데에도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간 환경 자체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모이고,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래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남과 모임, 교류가 형성된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육아 스트레스도 많이 줄고, 경제적 부담도 줄게 되는 효과들이 나타난다.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놀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도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예전 살던 곳에서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하고 어딘가 갈 곳을 고민해야 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신경쓰면서 살아야 했는데 위스데이 와서는 그럴 필요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서 육아부담도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돌봄 활동이 단순히 가정 내로만 갇히지 않고 공동체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경향들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고된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관계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어른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공동체적 관계와 돌봄 활동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들을 창출하기도 하고, 경력단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비록 재생산 활동의 커머닝 과정을 통해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재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새롭게 복원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재생산 활동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5장

## 공동체 육아·돌봄과 출산 의향

제1절 출산 의향

제2절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제3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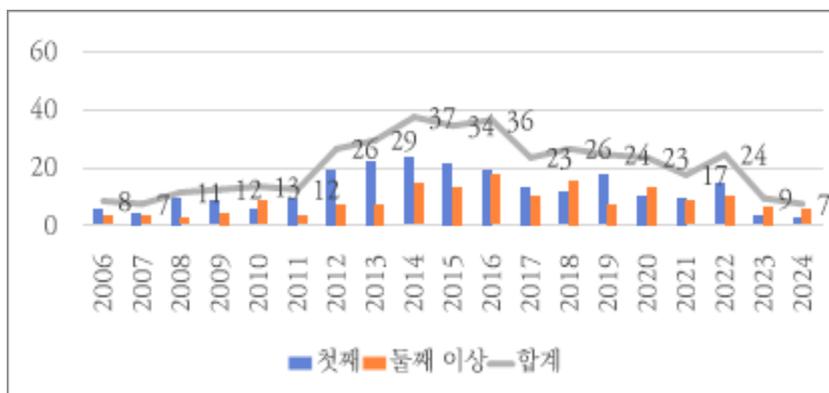
## 제 5 장 공동체 육아·돌봄과 출산 의향

### 제1절 출산 의향

#### 1. 출생 자녀 수

위스테인 별내 입주가구의 출생 자녀 수는 2006년 이후 출생(미성년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378명이며, 첫째아가 223명, 둘째아 이상이 155명이다. 대체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조합원 모집이 진행되던 2017년 전후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입주 전에 어느 정도 출산이 이루어지고, 아이를 키우던 중에 위스테인 별내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입주하게 된 경우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입주후 출산을 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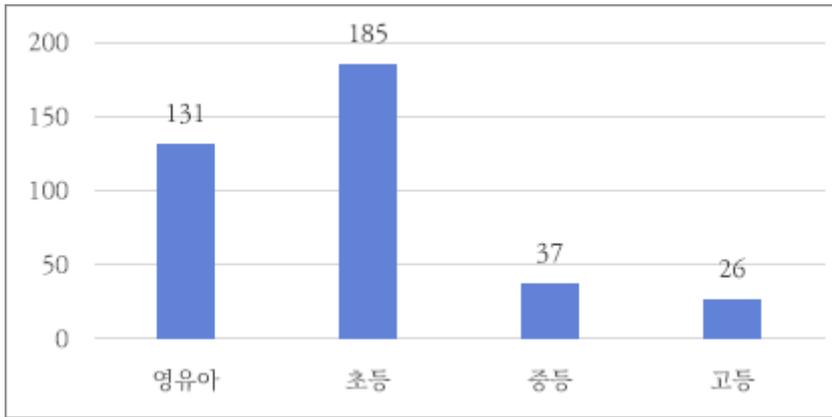
[그림 5-1] 입주가구 출생아 추이



출처: 위스테인 별내 사회적협동조합(2024b).

자녀 연령구조를 보더라도 초등학교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생 비중이 전체 미성년 자녀 중에서 48.81%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 비중이 34.56%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이전 출생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생 비중은 전체의 16% 정도에 불과하다.

[그림 5-2] 미성년 자녀 연령 구조



출처: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협동조합(2024b).

가구대표자의 연령이 50세 이하인 경우로 국한해서 가구형태별 자녀 수를 살펴보면, 50세 이하 전체 가구 중에 자녀가 없는 가구가 33.63%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녀 가구는 29.13%, 두자녀 가구는 31.53%를 차지하고, 세자녀 이상 가구도 5% 정도이다. 부부가구로만 한정해서 살펴보면 무자녀 가구의 비중은 17.67%인 반면, 한자녀 가구는 36.95%, 두자녀 가구는 38.15%, 세자녀 이상 가구가 7% 정도를 차지한다. 무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 주로 1인 가구나 기타 가구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표 5-1〉 가구형태별(가구대표자 50세 이하) 자녀 수

(단위: 명, %)

가구형태 (50세이하)	무자녀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	네자녀	총합
부부가구	44 (17.67)	92 (36.95)	95 (38.15)	17 (6.83)	1 (0.40)	249 (100.0)
기타가구 (한부모포함)	24 (60.00)	5 (12.50)	10 (25.00)	1 (2.50)	0 (0.00)	40 (100.0)
1인가구	44	0	0	0	0	44
총합	112 (33.63)	97 (29.13)	105 (31.53)	18 (5.41)	1 (0.30)	333 (100.0)

출처: 위스테인 별내 사회적협동조합(2024b).

가구대표자의 연령이 30-40대인 경우로 국한해서 연령집단별 가구당 평균자녀 수를 살펴보면, 전체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자녀 수는 30대 초반 0.85명에서 40대 초반 1.40명까지임을 알 수 있다. 부부가구만으로 좁혀서 볼 경우에만 평균자녀 수는 30대 초반 1.08에서 40대 후반 1.58명까지 분포해 있다. 부부가구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구만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평균자녀 수는 30대 초반 1.56명에서 40대 후반 1.80명까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혼 후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유자녀 가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자녀 수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5-2〉 연령집단별 가구당 평균자녀 수

구분	전체가구	부부가구	부부가구(유자녀)
30대초반	0.85	1.08	1.56
30대후반	1.23	1.25	1.64
40대초반	1.40	1.49	1.61
40대후반	1.31	1.58	1.80

출처: 위스테인 별내 사회적협동조합(202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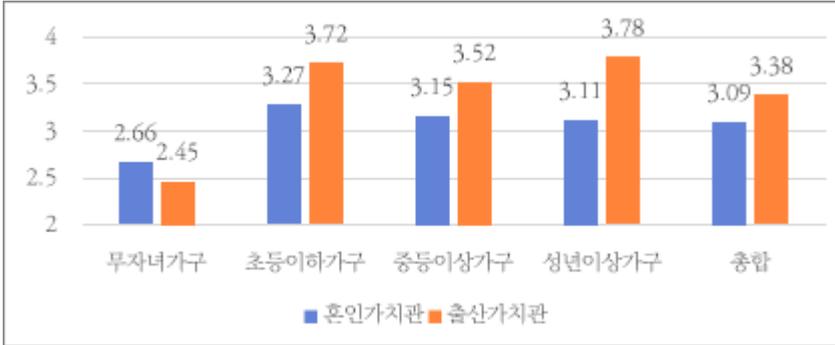
## 2. 설문조사

위스테인 별내 입주민들의 출산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입주자들 상당수가 육아에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고,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미 입주 전에 출산을 한 경우도 많다. 아이를 낳고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위스테인을 알게 되어 입주한 경우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위스테인의 육아친화적인 환경과 공동체 육아·돌봄 경험은 출산 의향이나 출산 행위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입주민들의 육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나 부담은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육아 환경 요인은 출산 의향이나 출산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위스테인 별내에 거주하는 가구 중 응답자가 50세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자녀가치관('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과 혼인가치관('혼인은 반드시 해야 한다')을 살펴보면, 유자녀 가구에서 혼인 의향과 출산 의향이 높은 편이다. 특히 유자녀 가구에서 출산 의향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자녀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볼 때, 무자녀 가구에서는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질문의 평균수치가 2.45에 불과한 반면,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평균값이 3.5이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질문은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간에 가치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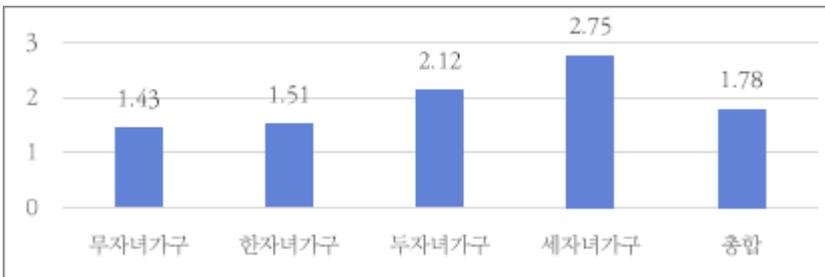
[그림 5-3] 자녀 연령별 혼인 출산 가치관



주: 설문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희망하는 자녀 수가 몇 명인지 물어본 결과로는 전체 평균이 1.78명이었으며, 실제 자녀 수와 희망 자녀 수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희망 자녀 수보다 실제 자녀 수가 적은 편이다. 단, 자녀가 셋인 경우는 실제 자녀 수보다 희망 자녀 수가 더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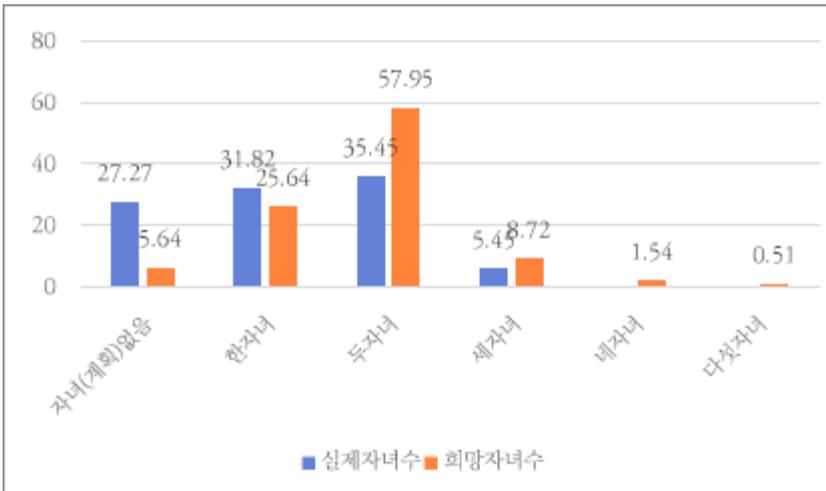
[그림 5-4] 자녀 수별 희망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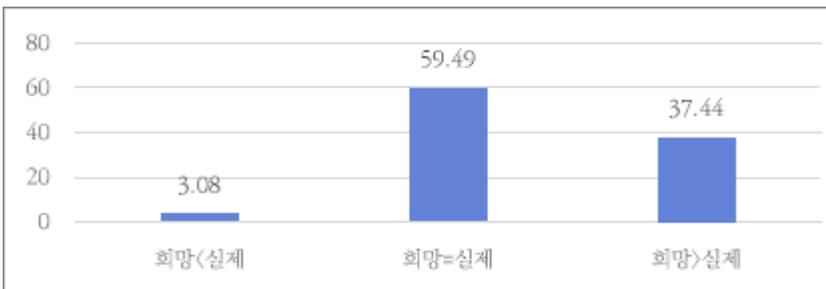
아래 그림은 실제 자녀 수와 희망 자녀 수의 상대도수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희망 자녀 수의 상대도수는 두자녀가 58%로 가장 높고, 한자녀가 25%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자녀 가구와 한자녀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위스테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경우 실제 무자녀를 원하는 경우는 5.64%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현재는 무자녀이지만 향후 자녀를 희망하는 비중이 크다. [그림 5-6]을 보더라도 실제 자녀 수가 희망 자녀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37% 정도에 달한다.

[그림 5-5] 실제 자녀 수와 희망 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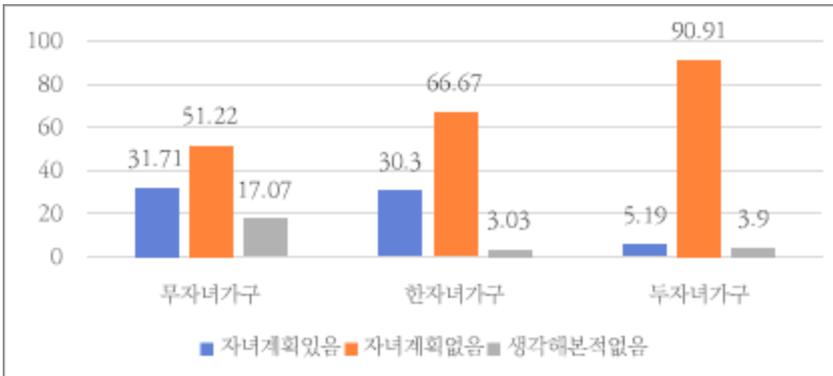


[그림 5-6] 실제 자녀 수와 희망 자녀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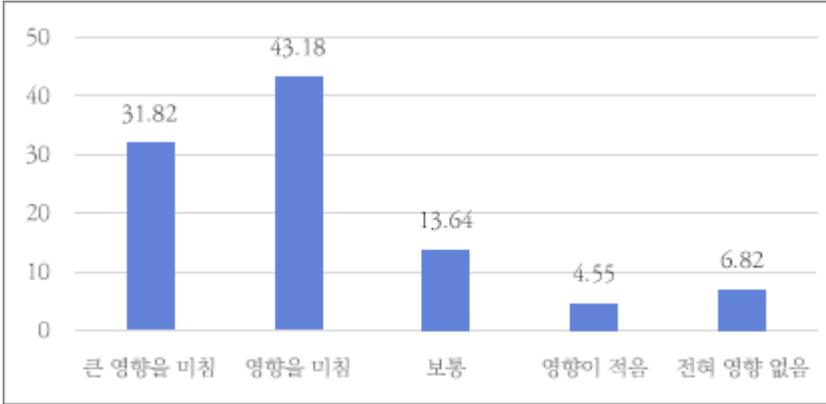
그러면 앞으로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될까?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했을 때, 무자녀 가구와 한자녀 가구에서는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30% 정도씩 나왔으며, 두자녀 이상 가구에서는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5% 정도에 불과했다. 자녀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두자녀 이상 가구에서는 90% 이상, 한자녀 가구에서는 67% 정도였으며, 무자녀 가구에서는 51% 정도였다. 무자녀 가구에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응답도 17% 정도에 달했다.

[그림 5-7] 자녀 수별 자녀 계획



다음으로는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obs=44명)에 한해서 위스테인 별내 거주가 출산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았다.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44명 중에 위스테인 거주가 자녀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경우는 75% 정도에 달했던 반면,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1% 정도에 불과했다. 응답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자녀 계획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스테인 별내 거주가 자녀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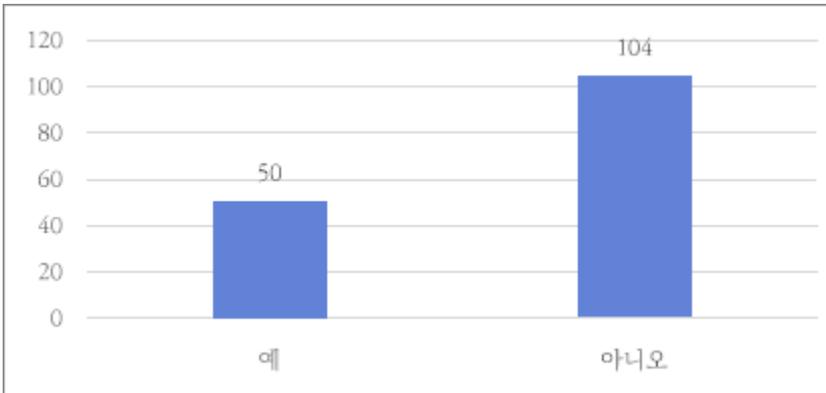
[그림 5-8] 위스데이 별내 거주가 자녀 계획에 미친 영향



주: Obs=44(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입주후 출산 경험을 물었을 때는 응답자 중에 50명이 입주후 출산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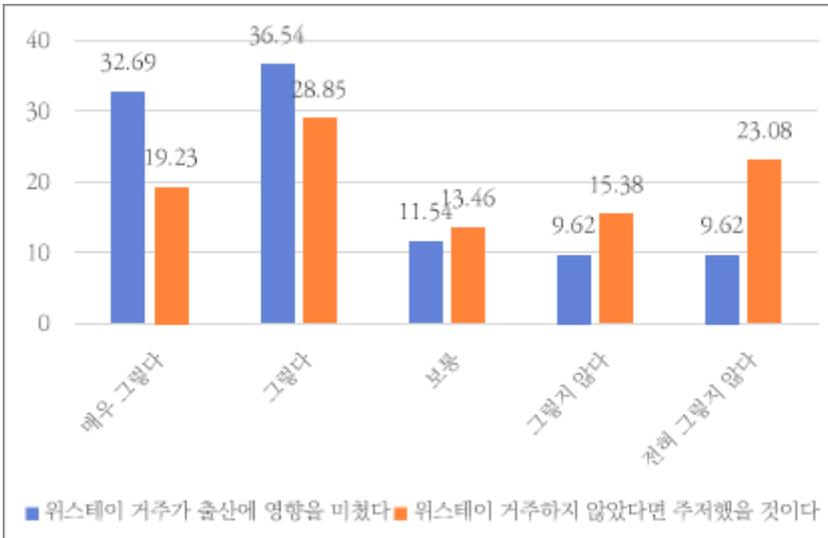
[그림 5-9] 입주 후 출산 경험



12) 2020년 이후 79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중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0명 정도이다.

그렇다면 위스테인 별내 입주 후에 출산을 경험한 가구의 경우에 위스테인 별내 거주는 출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위스테인 별내 거주가 출산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았을 때, 입주후 출산 경험이 있는 응답자 52명 중 70%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19% 정도였다. '위스테인 별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출산을 주저했을 것' 같은지 물어보았을 때에는 50%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40% 정도였다. 위스테인 별내 거주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70% 중에서도 50% 정도는 위스테인 별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출산을 망설였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0% 정도는 위스테인 별내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출산을 했겠지만 어느 정도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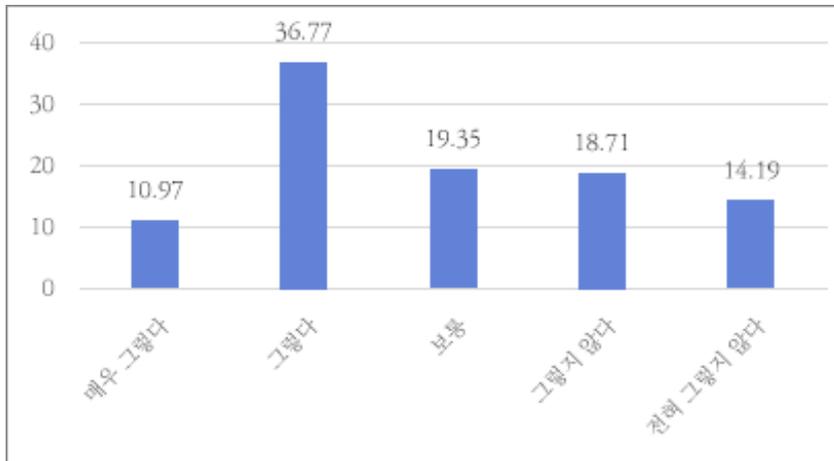
[그림 5-10] 위스테인 별내 거주가 출산에 미친 영향



주: Obs=52(입주 후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위스데이 별내 입주자들중 상당수는 이미 입주 당시에 어느 정도 출산이 종료된 경우들이었다. 조합원 모집 당시에 이미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는 경우가 많았고, 육아에 대한 고민이 많던 와중에 입주 신청을 한 경우들이었기 때문에 입주 당시에는 이미 신체적으로 출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입주후 출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55명을 대상으로 '좀 더 이른 나이에 위스데이 별내에 입주했다면 자녀를 더 가졌을 것 같'은지 물어 보았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47% 정도는 나이가 더 젊었다면 위스데이 별내 거주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응답했으며, 33%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미 출산시기를 지나서 위스데이 별내 입주가 실제 출산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위스데이 별내의 공동체·육아 환경이 잠재적으로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1] 입주 후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잠재적 출산 의향



주: Obs=155(입주 후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그렇다면 위스데이 별내의 이웃관계나 육아환경 등은 출산 계획이나 출산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웃관계, 육아환경, 육아만족도, 출산 계획, 출산 결정 간에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향후 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사례수가 적은 편이지만 공동체 관계나 육아환경은 출산 계획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육아에 대한 만족도(0.46)나 일-생활 균형(0.44), 육아스트레스 감소(0.40), 육아로 인한 가족 간 갈등 감소(0.56)가 출산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에서도 육아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감소한 것이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3〉 이웃관계와 출산 계획

구분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	도움 요청하거나 받은 경험	전반적만족도
위스데이 거주가 출산 계획에 미친 영향	0.44	0.24	0.34	0.32

주: Obs=24(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표 5-4〉 육아와 출산 계획

구분	육아 만족도	육아 도움	육아 스트레스 감소	육아 갈등 감소
위스데이 거주가 출산 계획에 미친 영향	0.46	0.44	0.40	0.56

주: Obs=24(자녀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다음으로 입주후 출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공동체 관계나 육아환경은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육아 스트레스의 감소(0.53)나 육아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의 감소(0.59)가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0.43)나 육아만족도(0.51), 이웃 간에 도움을 주고 받은 경험(0.46) 등도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위스데이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출산을 망설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육아만족도(0.60)나 전반적인 만족도(0.48)와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5-5〉 입주 후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이웃관계와 출산 결정

구분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	도움 요청하거나 받은 경험	전반적 만족도
위스데이 거주가 출산에 영향을 미침	0.21	0.28	0.46	0.43
위스데이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출산을 주저했을 것이다	0.20	0.17	0.35	0.48

주: Obs=46(입주 후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표 5-6〉 입주 후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육아와 출산 결정

구분	육아 만족도	육아 도움	육아 스트레스 감소	육아 갈등 감소
위스데이 거주가 출산에 영향을 미침	0.51	0.26	0.53	0.59
위스데이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출산을 주저했을 것이다	0.60	0.29	0.32	0.34

주: Obs=46(입주 후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입주후 출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55명을 대상으로 공동체 관계나 육아환경이 잠재적인 출산 결정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이 경우에도 육아스트레스 감소나 육아 갈등 감소, 육아

만족도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잠재적으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연령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자녀 계획이 있지는 않지만 육아스트레스(0.38)나 육아갈등(0.40)이 줄어들었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육아(0.43)나 전반적인 생활(0.44)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좀 더 일찍 위스케이 별내에 입주했다라면 자녀 출산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이웃 간에 도움을 주고 받은 경험(0.38)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나타난다.

〈표 5-7〉 입주 후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이웃관계와 출산 의향

구분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 이웃	이웃 간 방문 또는 초대	도움 요청하거나 받은 경험	전반적 만족도
이른 나이에 위스케이 입주했다면 자녀를 더 가졌을 것이다	0.31	0.23	0.38	0.44

주: Obs=104(입주 후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표 5-8〉 입주 후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육아와 출산 의향

구분	육아 만족도	육아 도움	육아 스트레스 감소	육아 갈등 감소
이른 나이에 위스케이 입주했다면 자녀를 더 가졌을 것이다	0.43	0.20	0.38	0.40

주: Obs=104(입주 후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 2. 영유아 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

아직 젊고 아이가 1-2명인 가구의 경우는 실제로 육아에 대한 만족감이 출산 의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 참여한 젊은 부부들은 대체로 실제 출산 의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는 아파트 단지가 집처럼 느껴지니까 넓은 집에서 산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보니 여기서는 애를 더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원래 살던 곳은 집도 좁고 아이가 바깥에서 놀 수도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는 아이를 더 낳아 키울 엄두를 내지 못했을 텐데 위스데이에서는 아이를 더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위스데이 별내를 추천을 많이 한다고 한다.

C: **만족감이 사실 굉장히 높아서 지인들한테도 별내로 오세요,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웃음) 너무 **만족감이** 높아서 아쉬운 게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해요. 크게 아쉬움이 없고 **여기면 애를 더 낳아서 키워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C: 여기서 키우면 집이 **이 아파트 단지가 집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넓게 느껴져요. 집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애를 더 키워도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좁은 집에서 막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키우니까...계획은 넷이었는데 (웃음)..제가 만약에 원래 살았던 곳에서 했으면 애를 밖에 내놓을 수도 없는데 애를 또 낳으면 애를 어디서 어떻게 키워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싫었어서..

B는 남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 쌍둥이 낳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더 낳아서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원래 아이를 셋 낳아 키우고 싶었던 했지만 육아가 너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아서 위스데이가 아니었으면 엄두를 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의지도 되고, 서로서로 봐주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아이들 예뻐해주고 하니까 이런 분위기와 환경이면 더 낳아서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B: 더 낳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전체 웃음) 딸이라면... 지금은 아들 둘인데. 아들 쌍둥이 나올까봐 조금. (전체 웃음) 근데 낳 의향이 있어요. 진짜로.. 원래 셋 낳고 싶었는데요. 근데 멋모를 때 이야기이고 이제 키워보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은 동료들이 있으니까..엄마 모임도 있고 서로서로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아랫집 할아버지도 저희 애 예뻐해 주시거든요. 이 정도의 분위기고 환경이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한 2년 나 죽었다 하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A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두 아이 모두 입주 후에 출산을 하게 된 경우이다. A는 신혼 초에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생활하는게 너무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서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스테이로 이사오고 나서 생각들이 많이 달라져서 입주 후에 첫째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이다. 위스테이 생활이 주는 안정감이나 만족감,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신뢰와 의지가 되면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한다.

A: 저는 여기 입주해서 두 아이가 다 생긴 케이스여 가지고...결혼 한 초반 신혼까지는 우리 아이 셋은 낳아서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랬는데 이제 실제 한국에서의 생활들이 너무 사실 쉽지 않고 둘 다 일하느라 너무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저희 위스테이 오고 나서는 진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이 안에서의 생활의 어떤 안정감, 만족감 이런 것들도 한 몫을 차지할 거고..아까도 이제 신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긴 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 이웃들이 생기게 되니까 아이에 대한 약간은 우리 부부가 다 챙기지는 않아도 되겠다라는 아내가 지금 임신하고 있으니까 아이랑 같은 반에 있는 한 보호자께서

너무 힘들면 얘기해라 내가 픽업해가지고 같이 좀 놀아줄 테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시고..기대하지 않았던 또 생각하지 않았던 미처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는 거 같아요.

### 3. 추가 출산 계획이 없는 유자녀 가구

하지만 자녀 계획을 달성(2-3명 이상인 경우는 대부분)한 경우에는 육아에 대한 만족감이 실제로 출산 행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F는 그동안 위스테인에 살면서 좋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아이들 지내는 거 보면 너무 좋아보여서 도전해볼직 하지만 8년 임대기간이 이제 4년 밖에 남아있지 않고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만약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위스테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면 추가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F: 저는 원래 둘만 계획을 하기는 했었는데요...4년 차를 살다 보니까 좋다는 것을 느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4년밖에 남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계획을 못 하는데 만약에 영구 임대라고 하면 (계속 위스테인에 거주할 수 있다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좀 아이를 좀 빨리 낳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직하다...아이들 지내는 거 보면 너무 좋아 보이고 또 그것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마을 어른들이 충분히..굉장히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I는 아이가 더 어렸을 때 위스테인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면 아마도 더 낳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고 한다. 아이가 영유아일 때 빌라 단지에서 키울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여기 살면서

아이가 지내는 걸 보면 더 낳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자녀 계획이 끝나서 아이를 더 갖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I: 저도 (아이의) 영유아 시절을 여기서 이렇게 환경에서 보냈으면 더 낳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영유아를 이제 빌라 단지에서 키웠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무조건 다 내가 옆에 있어야 되고 막 차 키도 있고 막 이렇게 환경이 그러니까 잔디광장에서 큰 애 놀고 있으면 이렇게 애들이 다 와서 막 여기서 디 놀아주고 여기서 보냈으면은 실제 낳을 수 있지 않았을까?

두 아이를 키우면서 더 이상 출산 계획이 없는 경우 위스태이 환경이나 분위기는 출산 의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 조차도 의도하지 않게 아이를 갖게 되었을 경우에는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G의 경우 셋째 계획이 전혀 없지만 의도치 않게 셋째가 생긴다고 했을 때 예전이라면 절대 출산을 하지 않았겠지만 여기라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한다.

G: 저는 아직도 셋째 계획은 전혀 없긴 한데 예전에 셋째가 생긴다면... 극단적으로 정말 병원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당연히 지금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환경이 좋아서 뭐 이렇게 좀 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게

추가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령 J의 경우처럼 현재 딸이 둘이고, 또 딸 낳을까봐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J: 원래 계획은 두 명이었어서.. 생각 별로 없어요 (웃음)..저는 딸이 둘인데 또 딸 낳을까 봐 (웃음)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도 위스테인 환경이 추가 출산으로 이어 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M의 경우 자녀 셋을 키우고 있고 이미 자녀 계획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은 없지만 위스테인에 살면서 적어도 아이 셋 키우는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원래 계획은 1-2명이었는데 현재 셋을 키우고 있고, 셋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보니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왕 셋 낳아 키울 거였으면 좀 참았다가 위스테인에 이사온 다음에 낳아서 키울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M: 이미 자녀 계획을 초과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와서 더 변할 건 없지만 저는 반대로 사실 살면서 느끼는 게 좀 참았다가 이사 온 다음에 더 낳을 걸. 왜냐하면 이제 막내 애들이 막내가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부담 없이 잘 크고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오고 나서 아이들이랑 같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 들긴 하죠...저는 덩크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한 명 아니면 많아봤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었 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셋인데도 어려움 없이 잘 크고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는 영향을 안 주더라도 후회는 안 들게 하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갈수록 아이는 늘어났지만 그게 이제 갈수록 부담은 더 줄어들었거든요. 심리적인 불안 약간 부담감? 훨씬 더 수월했어요. 점점 키우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만족도가 네 있죠.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더 이상 출산이 어려운 경우에도 마음으로는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보니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한다고 한다. D는 40대 중반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추가 출산은 상상도 해 본적이 없지만 그래서 마음으로는 더 키워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한다.

**D: 40대 중반에 애를 낳아가지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상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전체 웃음)..저는 계획은 없는데 해볼 수 있을 거 같아요...만약에 제가 체력적으로 괜찮았고 뭔가 그랬으면 더 낳아서 더 관계를 만들고 싶었을 것 같아요.

N은 현재 자녀가 셋이고 원래 넷이 목표였기 때문에 좀 더 젊었다면 추가 출산을 고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은 없고 주위에 친구들에게 여기서 같이 아이들 키울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낳으라고 조언을 많이 한다고 한다.

**N: 원래는 넷을 만들고는 싶었지만..저도 좀 더 젊었다면 더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연장 원래 목표대로 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 그래서 주변에 같이 사는 친구들 중에는 빨리 낳아라 왜냐면 여기 애들 지금 이렇게 많이 애들이 있을 때 같이 커서 하는 게 낫지 고민하다가 나중에 늦둥이 갖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는 하죠.**

E는 아이가 셋이고, 이미 입주할 때 막내가 5살로 어느 정도 출산 연령이 지난 후에 입주를 한 경우이다. 그래서 본인은 더 이상 아이를 낳아 키울 상황이 아니지만 주변에 후배들에게 위스태이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한다고 한다.

E: 첫째 아이만 키우고 있는 집들은 둘째까지 생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저희가 이제 다 낳고 들어왔지만...저는 사실은 후배한테도 우리 아파트 되게 좋은데 너도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가지고 애 낳고 키우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사실은 그만큼 이제 출산한 이후에 엄마 아빠들이 ..함께 연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P의 경우도 나이 때문에 추가 출산 계획은 없는 경우이다. 본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예전에는 아이 키우는 시간과 돈이 고민이 많이 됐고, 그리고 전세값 때문에 돈을 빨리 모아야 한다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살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담이 덜하고 크게 신경을 안쓰게 되다 보니까 막내가 동생 낳아줘 그러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는 된다고 말한다.

P: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애를 더 낳지는 않겠지만 보면은 애를 사실 낳을까 말까 고민할 때 애를 키우는 그 시간과 돈이 제일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다른 데 살 때는 사실 다른 전셋값이나 그런 걸 되게 신경 쓰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내가 돈을 얼마를 더 빨리 모아야겠다 그래야 집세를 올려주거나 그거 신경을 썼는데 여기 와서는 우선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은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런 걸 금액에 대한 부담이 조금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별로 없으니까 좀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가 동생 낳아줘 이러면 약간 약간(웃음)..마음 편함이 있긴 한 것 같아요.

#### 4. 1인 가구와 무자녀 기혼가구

그렇다면 위스테인 별내의 공동체 관계나 육아환경은 1인 가구나 무자녀 부부가구의 혼인 의향이나 출산 의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S는 1인 가구로 입주해서 3년 정도 살다가 1년전에 결혼을 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다. 아내는 결혼 전에 고양시 위스테인 지축에 살고 있었고, 신혼집을 지축으로 할지 별내로 할지 고민하다가 별내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위스테인이라는 협동조합형 아파트가 추진된다는 얘기를 듣고 입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입주 당시에 뚜렷한 혼인계획이나 출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결혼을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결혼을 염두에 두고 위스테인 별내 입주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거주하면서 단지 내에 아이들 키우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 키우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아이를 낳을 수는 있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 위스테인 별내의 육아환경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요인이 직접적으로 자녀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S: 혼인에 대한 희망은 있었지만 계획으로 이제 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웃음)..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이르면 나중에 좀 큰 집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혼인을 위해서 여기를 막 해야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저희 동 친구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애들 키우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애들 끼리 너무 잘 놀거든요. 그리고 애들끼리 친한 집은 집끼리도 거의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게 다 보여가지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만약에 육아를 하게 되면 그런 거는 굉장히 좋겠다 그런 행사도 워낙 많이 열리고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자녀 계획이) 당장은 없고요. **당장은 없는데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애 키우기에는 확실히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 보면 주말이나 이렇게 **애들 막 잔뜩 가서 뛰어노는 게 너무 보기 좋거든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R은 결혼한 후에 입주한 경우이고,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별내에 협동조합형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입주하게 되었고, 당장 자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자녀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일 큰 평형으로 신청해서 지내고 있다. 당장에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자녀가 태어나면 여성으로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지내에 아이들 키우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다른 곳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위스데이의 육아환경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고 한다.

S도 마찬가지로 아내랑 자녀 계획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도 육아부담을 생각하면 당장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아무리 공동체 차원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와 환경이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출산을 미루고 있다.

R: 저는 결혼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냥 저도 84 제일 큰 타입이었는데.. 84를 결정한 이유는 꼭 **나중에 우리가 자녀를 갖게 되거든 그 아이의 방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큰 타입으로 결정을 한 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저도 지금 **당장의 가족 계획은 딱히 막 이렇긴 한데**

아무래도 여성이고 아이들을 키운 모든 부모들이 하는 말이 한 3살까지는 엄마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더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실 그거에 대한 약간 내가 아직 저는 제 일이 좋고 내가 하는 일을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잊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계획을 안 세우고 있었던 건데 위스테인에 와서 저렇게 활동하고 노는 아이들을 보면 여기서는 약간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기서 동네에서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게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지만 그렇게 놀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 부모한테도 그만큼의 여가 시간이 생기는 거라 다들 아이를 위한 그러니까 육아 친화적인 아파트여서 아이들이 좋겠지만 부모들도 엄청 좋을 수 있다. 어디 주말에 어디를 굳이 안 데리고 나가 놀아도 이 동네에서 해결해 주니까 엄청 좋은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좋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S: 육아 부담은 확실히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육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돈 문제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하잖아요...이제 당장 와이프도 애를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하다가도 지금은 아니지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일단 할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육아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바쁜 거예요...최소한 여기는 이런 것들 애들끼리 막 노니까 옆집에서 서로 도와주고 이런 건 좀 가능해 보이네.(웃음) 이런 것들은 조금 그나마 좀 나아 보이지만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잖아요...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이슈구나 이게 자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커리어가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본인들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Q는 현재 혼자 살고 있고, 재능 기부자로 위스테인 별내에 입주한 경우이다. 협동조합형 아파트나 사회적 경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고 우연히 광고를 보고 끌려서 입주 신청을 하게 된 경우이다. 혼자 지내고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결혼을 해서 여기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당장 결혼 계획이나 자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저도 이제 결혼 안 한 상태로 들어왔고 **결혼을 해서 여기 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녀 계획이나 결혼 계획이나 이런 게 뚜렷한 건 아니어가지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T는 결혼 후에 위스테인 별내에 입주한 경우이고, 주변 지인들한테 협동조합형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입주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계속 서울에 거주하다가 남양주별내로 이사온 후에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가 아이키우기 좋은 곳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환경적 요인이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위스테인의 환경적 요인은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에도 만족스럽지만 그러한 환경적 요인과 혼인·출산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T: 저도 이미 결혼해서 살다가 이제 이사 온 거라 **결혼이나 이제 출산에 생각이 어떤 환경 때문에 바뀌고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애랑 개랑 키우는 사람들이 되게 좋더라는 걸 말을 많이 하거든요(웃음) 근데 저희는 둘 다 없지만 저희도 좋아요. 좋은 환경은 어떤 세대든 다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인터뷰에 참여한 무자녀 부부들은 모두 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인생의 문제이고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자녀가 있다면 위스태이 별내에 입주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클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환경적 요인 때문에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R도 결혼 전에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자녀 계획이 달랐을까 생각해 보지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유로운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은 중요한 원인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한다.

**S: 자녀가 있으면 여기 더 들어오고 싶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에서 와서 자녀가 생기고 싶다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R: 아이를 낳을 거면 아이와 그 뭔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조금 트여야 되는데 전혀 딱 막힌 계속 서울의 빌라촌처럼 앞날이 그러니까 뭔가를 계획할 수 없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고 글썄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면 생각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거는 근데 분명히 그런 좀 여유로운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거가 굉장히 좀 크다고는 생각해요.

## 제2절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인터뷰 과정에서 전반적인 출산 의향과 함께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견해도 물어보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해서 돌봄이나 일-가정양립, 주거문제가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정부가 내집마련과 연계된 출산지원정책도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스데이 별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는 위스데이 별내의 공동체 육아돌봄이 저출산 대책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다루어보았다.

### 1. 돌봄 문제

우선 정부의 저출산 대책 또는 정책의 실효성이 잘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아이를 키우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와 닿는 정책이 없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불신감·불안감도 정부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

M: 이거는 그냥 되게 부수적인 어 이런 거 있었네 하면 나도 좀 해볼까 이 정도지.. 정부에서 내놓는 그런 대책이라는 게 딱 봤을 때 “그럼 우리도 아이 낳아볼까?”..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무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당사자인 저희들도 키우면서 아이 낳으면 이런 혜택이 있었어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결혼

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데 우리 그러면 이제 연애하지 말고 진지하게 결혼해보자.”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리고..정책이 정부가 누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게 계속 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저기 안심을 할 텐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경제적 지원만 있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책들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아이 키우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더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1억을 준다고 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엄마 아빠가 아이 키우는 일을 전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는 환경에서는 아이를 정말 못 키웠을 것 같다고 말한다. 즉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돌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C: 왜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뭘 더 준다고 해서 애를 키우는 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 확보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정부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거의 다 이제 뭘 더 줄게 애 하나 더 낳아 이런 건데 줬봤자 힘든 건 매한가지거든요...**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애를 낳으라고 해야 되는데 뭘 1억 줄게 애 더 낳아 그럼 네가 키울거야? 이렇게 되는 거** (전체 웃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해요. 현실적이지 않다.

D: **비용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관계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거기에서 좀 마음 놓고 이제 안전하게 아이를 이제 낳고 키우고 이런 확신이 생기지 그런 비용 절감이나 이런 정책은 좀 한계가 분명하다.

N: 위스데이 오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키즈카페도 가고 데리고 놀아줘야 되고 집 밖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집 밖이면 차고, 모르는 사람이고, 위험한 장소고,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려면 엄마 아빠가 다 전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럼 엄마 아빠 또 싸우고, 뭐 아무튼.** (웃음)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엄마 아빠의 힘 말고는 기댈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위스데이에 왔을 때 장점은 엄마 아빠 말고도 다른 동네 어른과 친구들 또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안전하게 놀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게 그나마 쉽구나.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거 없으면 애 진짜 못 키우겠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언제까지고 엄마 아빠가 애 데리고 놀아줘야 되고 애의 어떤 일정을 늘 함께해 줘야 되고 그거 되게 큰 것 같아요.** 주거 안정이 일 번이라면 두 번째는 결국 **에는 이게 돌봄으로 귀속되는 것 같긴 한데 아기가 놀 환경이 없는 거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되는 거..**정부가 쏟아내는 대책은 실효성을 아직은 별로 못 느끼겠어요.

R의 경우처럼 아직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맞벌이하는 상황에서 아이 낳기 망설여지는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아이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한다. 주위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부부가 온전히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 거라 생각되어서 망설여진다고 말한다.

R: 다 비슷하게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아이를 낳고 뭐 예를**

들면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맞벌이하는 구조에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친정 부모님 근처에서 살거나 시댁 근처에서 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양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마저 안 된다고 하면 그 두 부부가 온전히 책임지기에는 너무 박센 거죠. 하루하루 주말 이런 게 그래서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2. 주거 문제

주거문제도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된다. 인터뷰 참가자들 중에서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공간적으로 협소해서 이사를 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실제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부담되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위스태이 별내는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서 평수가 매우 넓은데, 이 정도로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 아이키우기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P: 지금 출산이랑 결혼이랑 다 주택이 가장 큰 것 같아요..그래서 주택도 임대주택 보편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되게 작잖아요. 크지 않고 살 만한 공간 저 여기 들어와서 좋았던 게 그냥 29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부담되지 않게 사실 생활비 보다는 이런 주거에 대한 들어가는 부담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S: 지원 정책으로 나오는 아파트나 공간들이 사실 신혼부부 육아를

하기 위한 집으로 지금 너무 작거나 되게 좁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출산 해법은 될까라는 퀘스천이 되게 많고요... 위스테인이 조금 놀랐던 게 평수가 넓잖아요. 임대주택 치고는 굉장히 넓은 편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은 다 4인 가족에 맞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정책은 다 2인, 2인 위주의 그런 1인, 1인 독거 거기에 다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 언밸런스는 확실히 좀 있는 느낌이에요... 위스테인 정도의 최소한 여기는 60, 60 정도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60에서 80 이런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집마련과 연계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견해도 물어보았다. 최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장기전세시프트 정책으로 20년 임대후 자가 전환을 출산과 연계시키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위스테인 별내에서의 경험에 비추어서 정부의 이러한 출산지원정책들이 어떻게 와 닿는지 물어보았다.

A는 현재 자기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출산과 내집마련을 연계하는 정책에 관심이 많이 갔을 것 같다고 한다. 주거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시류에 편승해서 혜택을 원했을 것 같다고 한다. Q는 현재 혼자 살고 있는데, 주변 선배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사다리로서 좋을 것 같다고 평가한다.

Q: 좋은 것 같아요.(웃음) 저 친한 언니가 그 신혼부부 주택 그거를 처음에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좀 협소해서 이제 아이를 키울 때는 이제 다시 청약을 해서 이사를 갔는데 일단은 그 발판이 됐으니까 그 정책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A: 저는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주거지가 기반이었고 그 주거지가 전세든 월세든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더 컸을 거고 그 시류에 당연히 편승해야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텐데...

게다가 주위에서도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으니 지원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A는 현재 둘째 아이를 출산 예정인데, 그렇다보니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놓치면 바보다 같은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고 한다. 다른 인터뷰 참가자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고 한다.

A: 아마도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애를 낳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너희, (전체 웃음)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 주변에서 엄청 많아졌거든요...그거 놓치면 진짜 바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 위스테이 별내는 금전적 혜택이나 이득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것 같다고 한다.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실제로도 이런 정책들을 접하게 되면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적 혜택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공동체 관계나 신뢰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 같다고 한다. 이웃에 대한 신뢰감, 공간에 대한 신뢰감, 살아가는 삶의 안정성 같은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스테이를 떠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책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박탈감을 안겨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A: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신뢰감이라는 것 이제 이웃에 대한 신뢰감, 공간에 대한 신뢰감, 살아가는 삶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어떤 자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혜택일 수 있겠지만..감당하기 어려운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 또한 다른 박탈감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B: 사실은 흔들려요. (전체 웃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흔들리는데 못 가겠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올지 몰라서. 사람이 저는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는 이제 4년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두려움 반 설렘 반인데 지금은 조금 계속 이분들과 친해지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그쵸. 그 혜택보다 더 큰 걸 본 거죠.

### 3. 저출산 대책으로서 공동체 육아돌봄

그렇다면 저출산 대책으로서 위스데이 모델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공동 육아나 공동체육아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까? 위스데이모델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단순히 주거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위스데이 별내를 차별화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아이를 키우는 환경과 분위기,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위스데이 별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N은 위스데이 별내는 '느슨한 공동체'를 표방하여 왔고,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또 단순히 집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집만

주는 형태의 지원정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N: 커뮤니티가 있는 위스테이가 그래도 더 그것도 크니까요. 그냥 단순히 집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사는 그때 우리가 표방했던 게 느슨한 공동체를 만들자 이런 거였거든요. 되게 박세게 막 친해지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거 시프트 이런 것도 그때 관심은 있었지만 그냥 이걸 집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닥...

하지만 위스테이 별내 모델이 저출산 대책으로서 가지는 의미는 좀 복합적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무엇보다 위스테이 별내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입주민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투자가 요구되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J는 정부가 이런 아파트를 그냥 지어서 공급한다고 이게 잘 유지될 수 있는게 아니라고 강조한다.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면 위스테이 별내 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도 저절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이런 공동체 육아가 잘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의 엄청난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J: ‘이런 아파트를 많이 만들면 저출산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거 약간 반대인 게 이런 아파트들은 지어지면은 굴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움직여야 또 이게 운영이 되고 하는데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딱 들어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로.. 외부 사람들은 여기 살면 무조건 아이들은 누가 돌봐주고 밥은 잘 해먹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저희들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스데이 별내 모델이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이게 결코 쉬운 해법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위스데이 별내와 동일한 사업형태로 추진된 위스데이 지축과 비교해봐도 차이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위스데이 별내와 달리 위스데이지축은 커뮤니티활동이나 공동체 돌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참여와 주도가 아니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렇다보니 위스데이지축의 경우에는 공동체활동이나 공동체 육아돌봄이 별내와 비교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별내는 의지를 갖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렇다보니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도 훨씬 크고, 입주민들의 태도도 훨씬 적극적이라고 한다.

L: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당장 가까이 있는 지축 위스데이만 봐도 잘 안 되고 있어요.

J: 보충 설명하자면은 여기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만들었던 말이에요. 근데 .. (위스데이 지축은) 조금만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히려 자본을 투자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돌봄 교실은 저희가 꾸며서 저희가 선생님 구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는 그냥 기관을 하나 딱 놓고 세팅해 놓은 거죠

L: 세팅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공간이 있고... 그런 니즈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세팅 자체는 사실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그런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더 강력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

I: 우리가 다 공간에 참여하고 컨설팅에 참여하니까 애정이 훨씬 더 있고 그리고 눈앞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이제 그쪽은 우리가 컨설팅에 참여하니까 그게 ‘더함’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조율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이런 건 안 하겠다 하고 그냥 거기는 알아서 조직을 한 거에서의 참여도의 주민들 그 시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어요.

이와 함께 공동육아나 공동체 육아 자체가 출산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동육아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고민들의 결과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나 공동육아에 대한 고민들이 출산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다만 공동체 육아돌봄으로 인해 아이 키우기가 수월해지게 되면서 한 명 낳을 거 두 명 낳게 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한다. 앞에서도 육아스트레스의 감소나 육아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의 감소가 출산 의향이나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육아친화적인 환경이 추가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 공동체 공동육아가 저출산 해결법이다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진 공동육아라는 거는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고민들인 거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야겠다라고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살펴볼 가치는 있지만 해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드네요.

I: 하나 낳을 거 두 명 낳을 수 있겠다 이런 건 있죠.

#### 4.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하지만 출산과 육아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개인의 인생,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보고 출산을 결정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정책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은 낳을 것이고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안 낳을 것이기 때문에 출산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정책 자체는 출산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환경적, 정책적 요인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의향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O: 사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는 사실 정책하고는 무관하거든요...어떤 멋들어진 어떤 정책이 있어도 낳을 사람은 낳고 안 낳 사람 안 낳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둘째가 저도 이제 우연히 생겼는데 그때도.. 정책을 보고 해서 낳은 게 아니라 얘기를 낳고 보니까 둘째에 대한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원래 다둥이가 셋까지 다둥이였는데 이제 둘째도 다둥이로 또 해주네?” 약간 이제 그 후에 그거를 보는 거지..

S: 정책 그렇게 애를 낳고 나서 부담은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애를 낳고 싶지는 않은 (웃음)

저출산 현상은 보다 근본적인 사회변동과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심화되는 경쟁이나 불안감의 증가 등 현대사회의 변화 자체가 저출산이라는 현상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희망을 갖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성공을 꿈꾸는 사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는 생각

자체를 갖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또 SNS 같은 공간에서 남들에게 돋보여야 하는 압박감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지적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불안감이나 경쟁, 과시욕 등 사회변화의 양상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저출산은 하나의 트렌드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 저출산 문제의 어떤 원인을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죠...원인은 모르겠는데 시대적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 시대적 분위기가 뭐냐. 불안인 것 같아요...사람들은 내가 중소기업 다니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 하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요즘은 단정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 에너지의 기반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불안인 것 같아요. 그럼 모두가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인 거죠. **불안이 에너지가 돼서 성공을 꿈꾸는 사회니까. 이제 저출산은 저희 세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 불안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이 시스템을 멈출 수 있는 거에 대한 교육들. **요즘 사람들 보면 뭔가 희망을 갖고 내 성공을 꿈꾸는 게 아니고 이 불안을 꼭 내 건전지 삼아서 나아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시대적 분위기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이제 어쨌든 교육이다.

J: SNS 때문에 경쟁 사회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 보여 주는 식의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가 더 돋보여야 되는 거죠. 제 친척 동생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거의 30대 중반이 돼가고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안 하나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나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SNS 활동 친구들 만나는 거 들여보면은 뭐 포기가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

### 제3절 소결

인터뷰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요인들은 출산 의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출산 행위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출산 행위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은 더 이상 출산 계획이 없더라도 주위에 많이 추천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위스데이 별내의 경험은 출산 의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출산 의향이 없는 경우 환경적 요인이 바뀐다고 출산 의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사회변화의 양상, 혹은 개개인의 인생계획, 가치관 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환경적 요인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출산 의향이 있어도 망설이고 주저하는 경우, 또는 추가 출산을 고민하는 경우 위스데이 별내의 실험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추가 출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6장

##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제2절 시사점



## 제 6장 결론 및 시사점

### 제1절 결론

지난 20여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현상의 구조적 원인에 주목하여 저출산 대책으로서 보편주의적 보육정책을 도입·시행하여 왔으며, 청년을 저출산 대책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청년일자리나 주거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정책들은 사회적 재생산의 주요한 두 가지 축인 주거와 돌봄을 별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돌봄정책은 보편주의적 보육정책의 강화라는 정책 기조 하에서 지원 수준을 강화하고, 정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지만 보육서비스의 질과 같은 문제에 지속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정작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외면을 받기도 하였다. 주거와 돌봄이라는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이 단순히 출산대책으로서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표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재생산의 과정이 전면적으로 재구성될 것이 요구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아파트형 사회주택인 ‘위스테인 별내’ 사례를 통해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시도가 어떻게 주거문제뿐만 아니라 육아와 돌봄, 출산 의향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설문조사와 그룹인터뷰조사를 통해 ‘위스테인 별내’의 공동체 활동과 이웃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공동체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긴장이나 갈등 등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들의 경우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공간적 환경이나 육아네트워크, 공동체 관계 등이 어떻게 결합하면서 육아돌봄의 커머닝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동체 육아·돌봄이 아빠들의 육아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전반적인 결과로서 육아스트레스나 가족 간 갈등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동과 공동체 육아·돌봄의 활동이 출산 의향(자녀 계획)이나 출산 결정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입주민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위스데이 별내 입주자들은 입주 당시 주거안정성이나 주거비 부담 경감, 양육환경에 대한 기대 등으로 입주를 결정한 경우들이 많았다. 8년 간의 장기임대가 주는 안정성, 그리고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주거공간과 여유로운 커뮤니티 공간 등이 입주를 하게 된 중요한 계기들이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환경이나 공동육아에 대한 기대도 주요 고려 사항이었다. 입주 전 주거문제, 육아 환경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주거와 돌봄이 주요한 이슈였고, 그 중에서도 불안정한 주거상황과 주거비 부담 등이 주요 관심사이다.

입주 후에는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방향하에 이웃과 관계를 맺거나 교류를 하는 등 친밀한 공동체 관계를 만들어 왔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이 많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거나 서로 초대·방문하는 등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웃관계가 친밀할수록 이웃,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의사도 높게 나타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나 무자녀 가구보다 유자녀 가구 집단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이웃관계나 공동체 활동 참여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노력들은 집과 가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 준다. 또한 1인 가구나 무자녀 가구 등도 이웃과 긴밀하게 교류를 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기회들이 있다.

둘째, 위스테인 별내의 공간적 구성과 환경, 공동체 이웃관계는 육아·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가 밖에 나가더라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고, 타단지 아이들도 위스테인 별내로 놀러올 정도로 이곳은 아이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서로 다른 집 아이들도 돌보는 분위기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틈새돌봄이나 돌봄공백이 발생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공공의 지원을 받는 키움방이나 돌봄센터도 있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돌봄 활동이 아이들의 교육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듯 공동체 활동과 이웃관계를 토대로 형성되는 돌봄 커먼즈가 존재하고, 지속적인 커머닝의 과정을 통해 돌봄 공동체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돌봄 커먼즈는 돌봄의 방식을 새롭게 구성하기도 하는데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부모들이 모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공유부엌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의 활용도도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돌봄 환경과 돌봄커먼즈는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가정내에 고립되어 돌봄이 이루어 졌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육아활동이 돌봄 공동체의 존재로 인해 아빠들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확인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육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육아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경제적 부담이 크게 주는 것 같지는 않지만 정서적·심리적 차원에서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가족 간 갈등도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스테인 별내의 거주경험은 출산 의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출산을 고려하게 된 배경에는 위스테인의 거주경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75% 달했다. 반면 출산 계획이 위스테인 거주경험과 무관하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입주 후에 출산을 경험한 가구(응답자 중 52가구) 중에 위스테인 거주가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경우도 70%에 달했으며, 더욱이 위스테인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출산을 망설였을 것 같다는 응답도 50%에 달했다. 출산이 어느 정도 완료된 후에 입주를 한 가구가 많아서 실제 출산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출산을 염두에 두고 있던 경우에는 자녀 출산이나 추가 출산을 고려하기도 하고 실제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출산 의향이나 출산 결정에는 공동체 이웃관계나 공동체 육아돌봄에 대한 만족도, 육아스트레스 감소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스테인의 주거환경과 돌봄 커먼즈가 1인 가구의 혼인·출산이나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출산 결정에는 환경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아직 출산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환경적 요인만으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제2절 시사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삶의 질 향상이 저출산 대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되었다. 출산 행위 자체가 워낙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동안 미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까지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도입·실시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기보다는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정책방향이 설정되었던 점은 일견 타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너무 일반론적이고 추상적인 접근이어서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연구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생산 활동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공간과 지역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그동안 주거와 돌봄이 별개로 다루어져온 것과 달리, 사회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주거 공간과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과 돌봄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거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거문제는 단지 살 곳만 해결하면 되는 도구적·기술적 문제가 아니며, 돌봄문제는 단지 국가가 양질의 서비스만 잘 제공하면 되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근본적인 인구학적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생활표준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출산태도나 의향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출산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동안 돌봄활동은 저렴한 돌봄노동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커머닝의 과정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앞에서 1차에서 4차까지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거와

돌봄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이슈였다. 이러한 정책 흐름 자체가 주거와 돌봄이 사회적 재생산을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와 돌봄은 각각 별개의 이슈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각각의 영역에서 혼인과 출산의 장애물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도구주의적 접근을 취하여 왔다. 주거문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이었고, 보육과 돌봄은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차원에서만 다루어져 왔다.

특히 주택정책의 경우 정책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정부는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권을 안정시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43만호를 2027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출산율 개선 효과는 논쟁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약 8%로 높은 편이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중 상당수가 '분양전환용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등이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김우림, 2021)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미임대 비율이 8.2%에 달하는데, 주택 평수가 작거나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이 보장되어도 집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할 경우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 전까지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지속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재생산 활동 자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피해야 할 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재생산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돌봄 문제에 대한 접근 또한 단편적이고 도구적인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단순히 공공임대 주택 공급만으로는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자가소유 규범을 바꾸기도 어렵고, 결혼·출산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자체가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정도로 국한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아무리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보육·돌봄정책의 경우에도 재생산 활동 자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회피하고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보상이나 일-가정 양립만으로는 생산과 재생산의 경계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기 어렵다. 즉 공공임대주택, 재생산·돌봄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재생산의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생활표준(standard of life)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접근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돌봄활동 등 기존의 정책들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거와 돌봄을 접목한 위스테인 별내의 실험이 출산 의향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주거문제’와 ‘돌봄문제’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접근법을 제공하는 것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으로 바라보는 사회주택의 실험이 어떻게 돌봄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혼인·출산 의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면 사회주택의 확산을 통해 현재의 사회적 재생산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강세진. (2021).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31(2), 19-64.
- 국토교통부, LH, 대한주택보증공사. (2015.2.25.) **기업형 임대주택 설명회 자료**.
- 권순형. (2017).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④**. 새사연 이슈진단.
- 김도균. (2018).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도균, 박충훈, 김수정. (2017). **경기도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경기연구원.
- 김우림. (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남철광, 강세진, 박하연, 서동규, 권순형, 정용찬, 정성현, 박송이. (2021).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 및 확산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LH.
- 박인권. (2021).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국토**, 478, 11-18.
- 박인권, 김진언, 신지연. (2019).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과 도전들: '경의선 공유지'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29(3), 62-113.
- 박윤혜, 백일순. (2021). 돌봄의 위기와 대안으로서의 커먼즈. **공간과사회**, 31(1), 208-245.
- 백영경. (2017).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ECO**, 21(1), 111-143.
- 사회혁신기업 더함. (2021). **위스테인(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소개**. (발표자료)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공개용 데이터(4차 가구용).
- 오르나 로젠펠트. (2017).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모델, 경향, 과제** (사회주택 포럼 역). (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한국도시연구소.
- 위스테인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2024a). **위스테인 별내 소개자료**.
- 위스테인 별내 사회적협동조합. (2024b). **입주자 주민등록자료**.
- 윤여일. (2022). 도시 속 공터는 어떻게 공유지가 될 수 있는가: 경의선공유지,

- 배다리공유지, 솔방울커먼즈를 상호비교하여. **공간과사회**, 32(4), 45-89.
- 이희숙. (2021). 사회주택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공간과사회**, 31(2), 65-102.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2023.3.28.)**.
- 정원각. (2024.3.14.). **[사회적경제기업, 그 생생한 현장을 가다] 미래의 주택 협동조합 위스데이 별내사회적협동조합**. LIFEIN.
- 최경호. (2024). **어쩌면, 사회주택: 당신의 주거권은 안녕하십니까?**. 자음과모음.
- 최명식. (2022). 도시 커먼즈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동산. **공간과사회**, 32(4), 90-122.
- 최명식, 박윤미. (2019).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수준과의 관련성에 관한 분석. **도시 행정 학보**, 32(1), 1-30.
- 페테리치 실비아. (2013). **혁명의 영점** (황성원 역). 갈무리.
- 프레이저 낸시. (2020). **좌파의 길: 식인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장석준 역). 서해문집.
- 홍덕화. (2018). 생태적 복지 커먼즈의 이상과 현실: 한 살림서울의 돌봄사업을 중심으로. **ECO**, 22(1), 243-276.

Aulenbacher, B., F. Decieux, & B. Riegraf. (2018). The economic shift and beyond: Care as a contested terrain in contemporary capitalism. *Current Sociology Monograph*, 66(4), 517-530.

Bakker, I. (2003). Neo-liberal governance and the reprivatization of social reproduction: Social provisioning and shifting gender orders. In S. Gill and I. Bakker. *Power, 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Palgrave Macmillan.

Bakker, I. (2007). Social reproduction and the constitution of a gendered political economy. *New Political Economy*, 12(4), 541-556.

Federici, S. (2019). Social reproduction theory: History, issues and

- present challenges. *Radical Philosophy*, 2(4), 55-57.
- Fitzpatrick, T. (2003). *After the new social democracy: Social welfare for the 21st centur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Hayden, D. (1982). *The grand domestic revolution: A history of feminist designs for American homes, neighborhoods, and cities*. MIT Press.
- Kip, M., Jepson, R., Huron, A., Laione, C., Foster, S., Bloom, G., Martínez López, M. A., Mehan, A., Smets, P., Eskelinen, T., Paul, A., Ramos, J., Bernardi, M., Dolan, T. E., McDougall, C., Goldbard, A., Waters-Lynch, J., Botta, M., Linton, M., ... Stokfiszewski, I. (2015). Seizing the (Every)Day: Welcome to the Urban Commons! in Dellenbaugh, M. et al(eds.). *Urban Commons: Moving Beyond State and Market*. Birkhäuser Verlag AG, 9-24.
- Power, E. R., & Mee, K. J. (2020). Housing: an infrastructure of care. *Housing Studies*, 35(3), 484-505.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부록 1] 설문지

## 위스테인 별내 생활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위탁을 받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도균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 진행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위스테인 별내 거주자들의 생활 만족도를 파악해 아파트형 사회주택의  
공동체 육아·돌봄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위스테인 별내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요시간은 약 15분 내외로 예상됩니  
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정확하  
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  
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비밀이 확실히 보  
장될 뿐만 아니라 수치로 부호화하여 개인이 식별되지 않습니다. 본 자료는 통계 산출 목적으로  
만 사용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안  
조치한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되며,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조사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고, 응답 도중에 설문 참여를 중  
단할 수 있으며, 동의 철회 및 참여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본 조사의 자  
발적 참여와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응답해주신 분들  
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 8월

책임연구원 : 김도균(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사수행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참여 및 개인정보 동의서
<p><b>[개인정보 수집 항목]</b> 응답자 성별, 연령, 학력, 소득·자산·부채 등 사항</p> <p><b>[개인정보 수집 목적]</b> 국민의 분배 및 조세에 대한 인식과 태도, 경험한 복지 형태 등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p> <p><b>[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b> 상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p>
<p>■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p> <p>■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p> <p>■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한국사회 분배인식 조사'의 조사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 안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8월 일</p>

## I. 기초 항목

1. 귀하와 세대원의 출생년월 및 성별, 직업, 학력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작성자와 관계*	출생년월	성별	직업**	학력*** (취학여부)
예) ①	예) 1975.2.	예) 여	예) ④	예) ⑩

\* 아래 1-1. 작성자와의 관계 항목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 아래 1-2. 직업 선택지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 아래 1-3. 학력 및 취학여부 선택지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1-1. 작성자와의 관계

- ① 본인 ② 배우자(파트너/애인) ③ 자녀 ④ 본인의 어머니  
 ⑤ 본인의 아버지 ⑥ 배우자(파트너/애인)의 어머니  
 ⑦ 배우자(파트너/애인)의 아버지 ⑧ 손자녀 ⑨ 조카  
 ⑩ 본인이나 배우자(파트너/애인)의 형제, 자매  
 ⑪ 본인이나 배우자(파트너/애인)의 조부모 ⑫ 친구나 이웃  
 ⑬ 기타( )

**1-2. 직업 선택지**

- ① 무직(미취학 포함) ② 학생 ③ 자영업/경영직 ④ 사무직  
⑤ 관리·전문직 ⑥ 판매·서비스직 ⑦ 기술직/기능직  
⑧ 자유직(프리랜서 포함) ⑨ 단순노무직 ⑩ 농림어업 종사자  
⑪ 전업주부 ⑫ 마을일자리 ⑬ 사회적경제 일자리 ⑭ 기타( )

**1-3. 학력(취학여부) 선택지**

(자녀 세대원의 경우 ①~⑦ 중 선택해주시고, 그 외 세대원의 경우  
최종학력 기준으로 ⑧~⑫ 중 선택해주세요.)

- ① 미취학 ② 어린이집 ③ 유치원 ④ 초등학생 ⑤ 중학생 ⑥ 고등학생  
⑦ 대학생 이상 ⑧ 초등학교 졸업 ⑨ 중학교 졸업 ⑩ 고등학교 졸업  
⑪ 대학교 졸업 ⑫ 대학원 이상

**2. 현재 거주 중인 주거 타입은 무엇인가요?**

- ① 60A ② 60B ③ 74A ④ 74B  
⑤ 84A ⑥ 84B ⑦ 84C ⑧ 84D

**3. 귀하는 언제 입주 지원을 하셨습니까?**

- ① 1차(설립동의자) ② 2차(2020년 입주)  
③ 2021년 이후 입주  3-1번 문항에 응답

**3-1. 입주시기는 언제입니까? ( )년**

**4. 주거 공급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① 특별공급(설립동의자) ② 특별공급(재능기부자)  
③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고령자) ④ 일반공급(추가모집 포함)

**5. 위스데이 별내 단지 내에 친인척(부모님, 배우자 부모님 등)이 거주  
하고 계신가요?**

- ① 예 ② 아니오



5. 입주 후 마을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가끔 있음 ④ 자주 있음 ⑤ 잘 모르겠음

6. 입주 후 마을 이웃들의 집에 방문하거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가끔 있음(2~3달 1회 이상)  
④ 자주 있음(1달 1회 이상) ⑤ 매우 많음(수시, 주 1회 이상)

7. 이웃 사이에 차별, 따돌림/끼리끼리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있다	있는 편이다	보통	없는 편이다	전혀 없다
○ ————— ○ ————— ○ ————— ○ ————— ○				

8. 마을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적절히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잘 반영되고 있다	반영되고 있다	보통	반영되지 않는다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 ————— ○ ————— ○ ————— ○ ————— ○				

### III. 참여

1. 다음 중 참여하고 있는 활동과 빈도를 선택해주세요.

구분	참여여부	참여빈도(대략) (참여여부 '예'로 응답한 경우에만 체크)
협동조합 교육 참여	□예 □아니오	( ) 75% 이상 ( ) 50%~75% ( ) 25%~50% ( ) 25% 미만
대의원	□예 □아니오	( ) 75% 이상 ( ) 50%~75% ( ) 25%~50% ( ) 25% 미만

구분	참여여부	참여빈도(대략) (참여여부 '예'로 응답한 경우에만 체크)
위원회 활동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5% 이상 <input type="checkbox"/> 50%~75% <input type="checkbox"/> 25%~50% <input type="checkbox"/> 25% 미만
동아리, 소모임 활동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5% 이상 <input type="checkbox"/> 50%~75% <input type="checkbox"/> 25%~50% <input type="checkbox"/> 25% 미만
풍납, 마을잔치 등 행사참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5% 이상 <input type="checkbox"/> 50%~75% <input type="checkbox"/> 25%~50% <input type="checkbox"/> 25% 미만
그 외 개별 주민모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5% 이상 <input type="checkbox"/> 50%~75% <input type="checkbox"/> 25%~50% <input type="checkbox"/> 25% 미만

## 2. 공동체활동 참여 계기는 무엇인가요? (중복 선택 가능)

- 교육기회 확대
- 취미 개발 및 활동
- 육아·돌봄
- 생활정보 습득
- 사회공헌(봉사활동)
- 소득 활동
- 이웃과의 교류
- 기타(                    )
- 참여 안함

## 3.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선택 가능)

- 시간적 여유가 없음
-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
-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싫음

- 원하는 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이 없거나 부족함
- 기타(                    )
- 해당 사항 없음

**4. 우리 마을 혹은 타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 혹은 사회적경제나 사회단체 활동 경험이 있나요?**

- ① 마을 공동체 활동
- ② 사회적경제 종사
- ③ 사회단체 활동
- ④ 전부 참여 경험 있음
- ⑤ 경험 없음 ⇨ 6번 문항으로 이동

**5. 활동 참여 경력/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 년

**6. 마을 내 각 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현재 참여 빈도와 관계없이 향후 의사)**

활동	매우 강함	강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취미취향	○-----○-----○-----○-----○				
공동육아, 돌봄	○-----○-----○-----○-----○				
마을 기획, 운영, 관리	○-----○-----○-----○-----○				
마을 내 갈등 해소	○-----○-----○-----○-----○				
안전, 미화	○-----○-----○-----○-----○				
사회공헌 (봉사, 캠페인)	○-----○-----○-----○-----○				
마을 장터	○-----○-----○-----○-----○				
강의, 강좌	○-----○-----○-----○-----○				
마을 일자리	○-----○-----○-----○-----○				

6-1. 현재는 없으나 향후 꼭 되었으면 하는 활동이 있다면? ( )

7. 위스테인 별내의 공동체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활성화됨	활성화됨	보통	약함	매우 약함
○	○	○	○	○

8. 다음 질문에 대해 주세요.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위스테인 주민들 간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다.	○	○	○	○	○
위스테인의 공동체 활동에 거리감을 느낄 때가 있다.	○	○	○	○	○
위스테인의 공동체 활동 참여가 부담스럽다.	○	○	○	○	○

### IV. 의식 조사

1. 위스테인 별내 조합원으로서 자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많이 있다	있다	보통	없다	전혀 없다
○	○	○	○	○

2. 본인을 비롯한 이웃 간 배려도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나요?

많이 있다	있다	보통	없다	전혀 없다
○	○	○	○	○

3. 단지 내 이웃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세대 내 에티켓 부족(층간소음, 실내흡연 등)
- ② 공용시설 에티켓 부족(단지 내 흡연, 고성방가 등)
- ③ 사생활 간섭 및 침해
- ④ 자녀 양육 관련 문제(왕따, 비행청소년 등)
- ⑤ 공동체, 이웃에 대한 무관심
- ⑥ 마을 운영/관리 미흡, 불투명성
- ⑦ 모임, 공동체의 사조직화
- ⑧ 기타 ( )

**3-1. 갈등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중복 선택 가능)**

- 당사자와 즉시 대화
- 카페 등 공동체 채널 내 게재/공론화
- 소통위원회(구. 갈등조정위원회) 신청
- 아는 이웃과 공유하여 공동대응
- 신고 등 공공행정 활용
- 무대응 / 방관
- 기타 ( )
- 아직까지 경험한 바 없음

**4. 앞으로 위스테인 별내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우선순위 2가지 선정)

1순위 ( ) 2순위 ( )

- ① 조합원 이익을 위한 공동사업
- ② 환경, 안전, 봉사 등 공익적 활동
- ③ 단지 내 일자리 창출 및 마을경제 활성화
- ④ 지역과의 소통을 통한 긍정영향력 확대
- ⑤ 자녀들을 위한 교육·돌봄 인프라 향상
- ⑥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사업
- ⑦ 조합원간 더욱 돈독한 이웃/친목 관계 도모
- ⑧ 주거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전개

- ⑨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 ⑩ 기타 ( )

5. (현재 출입제한이 있는 동네체육관, 동네창작소와 같은 시설을 포함하여)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밖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다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한가요?

- ① 공유하고 싶지 않다.
- ② 지정 시간에만 공개 및 사용 허용
- ③ 조합원의 초청에 의해서만 사용 허용
- ④ 사용비 부담을 원칙으로 일부 개방
- ⑤ 사용비 부담을 원칙으로 전면 개방
- ⑥ 조건 없는 전면 개방
- ⑦ 기타 ( )

6. 기회가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위스데이 별내 거주를 적극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7.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다	보통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	○	○	○	○

8. 현재 삶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안정적	안정적	보통	안정적이지 않다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
○	○	○	○	○





6. 위스데이 별내에서의 4년 간의 주거로 일상의 모습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만족도	매우 높아짐	높아짐	보통	낮아짐	매우 낮아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건강관리 투자 빈도	○-----○-----○-----○-----○				
여가활동 빈도	○-----○-----○-----○-----○				
가족(자녀)과의 시간	○-----○-----○-----○-----○				
고정 지출금의 여유	○-----○-----○-----○-----○				
안전 체감도	○-----○-----○-----○-----○				
공유 및 나눔 인식	○-----○-----○-----○-----○				
공동체 소속감	○-----○-----○-----○-----○				
공용공간 개선활동 참여	○-----○-----○-----○-----○				
기타 심리적 여유	○-----○-----○-----○-----○				

7. 향후 위스데이 별내 거주 지속의 의사가 있나요?

- ① 예  8번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9번 문항으로 이동

8. 지속 의사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선택 가능)

- 합리적인 임대료
- 입지적 특성
- 단위세대에 만족
- 커뮤니티 시설에 만족
- 공동체 활동/프로그램
- 친한 이웃의 존재
- 교통, 교육 등 인프라 편의

-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
- 자녀 양육 환경에 만족
- 기타(                    )

**9. 이사계획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선택 가능)**

- 주택 품질 불만족
- 주거공간 협소
- 교통환경 불만족
- 내 집 마련 계획
- 임대료 불만족
- 자녀 성장에 따른 교육 필요성
- 병원/쇼핑/문화 환경 불만족
- 커뮤니티 시설 불만족
- 공동체 활동 불만족
- 기타 (                    )

**10. 2028년 의무임대 종료 후 사회적협동조합 소유로 임대를 유지하고자 할 때, 동의하십니까?**

- ① 동의
- ② 동의하지 않음 ⇨ 10-1번 문항으로 이동
- ③ 잘 모르겠음

**10-1.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주거모델을 선호하십니까?**

- ① 조합원 우선 주택분양
- ② 청산 후 출자금 반환(다른 곳 이주)
- ③ 잘 모르겠음
- ④ 기타 (                    )

11. 귀하는 주택 및 주거 환경에 대한 다음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혹시 모를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	○-----○-----○-----○-----○				
주택·부동산 소유는 사람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내 집 마련이 어렵다.	○-----○-----○-----○-----○				

**VI. 경제 활동**

1. 월 가구소득 및 지출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칸에 체크해주세요

월 가구소득	지출규모	월 기구지출
	10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5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35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800만원 이상	

2. 귀 가정의 경제활동은 어떤 형태인가요?

※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7시간이상 경제활동시 전일로 봄

- ① 맞벌이(전일+전일) ② 맞벌이(전일+파트, 파트+파트)
- ③ 외벌이(전일) ④ 외벌이(파트) ⑤ 경제활동하지 않음(은퇴 등)

### 3. 위스테인 별내 이사 전과 후 각 항목별 지출 변화가 있나요?

※ 해당칸에 √ 표시를 해 주세요. 지출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주세요

구분	감소	동일	증가
교통비			
주거비(임대료/대출)			
관리비(에너지사용료 포함)			
자녀 1명당 돌봄비용(영유아)			
자녀 1명당 교육비(초중고)			
식비			
여가비(문화, 취미)			
일반생활비(의류, 소모품 등)			
차량유지비			
저축			

### 4. 현재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이 있나요?

- ① 있다  4-1번 문항에 응답  
 ② 없다  
 ③ 모르겠다

#### 4-1. 원리금 상황이 어느 정도 부담되시나요?

매우 부담	부담	보통	거의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	○	○	○	○

### 5. 귀하의 가구는 현재 주택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 Ⅶ. 여가 및 가족 생활

1. 가사를 위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 가사도움서비스  
 반찬(구매/배송)서비스  
 이용하지 않음

2. 주간 외식횟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포장, 배달, 외식 등)

- ① 주 10회 이상 ② 주5회~9회 ③ 주2회~4회 ④ 주1회 미만  
 ⑤ 거의 사먹지 않음

3. 최근 6개월(2024.2.1.~2024.7.31.)동안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은 하루 평균 얼마입니까?

구분	30분 미만	30분~1시간	1시간~2시간	2시간~3시간	3시간 이상
평일	①	②	③	④	⑤
휴일	①	②	③	④	⑤

4. 최근 6개월(2024.2.1.~2024.7.31.)동안 가족이 함께한 여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5. 현재 일과 여가 활동, 가정생활 등을 병행하는 데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6. 마을 돌봄 사업이 넓혀졌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1인 가구 커뮤니티 지원
- 시니어 은퇴 이후의 활동, 삶 디자인
- 시니어 재가돌봄, 서로돌봄 모델
- 시니어 믿을 수 있는 대안적 요양시설
- 반려동물 가구 양육, 커뮤니티 지원
- 상조회, 상조 문화 조성
- 누구나 자기 돌봄 방법, 문화조성

7. 위스태이 별내에 살면서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Ⅷ. 혼인 및 출산 가치관** ※가구주 나이가 50세 이하인 가구만 작성해 주세요

1.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혼인은 반드시 해야 한다	○-----○-----○-----○-----○				

2 희망 자녀 수는 몇 명인가요? (    )명

3.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나요?

- ① 있음 ⇨ 3-1번 문항에 응답
- ② 없음
- ③ 생각해 본 적 없음

3-1. 위스데이 별내 거주가 출산 계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4. 입주 후 출산 경험이 있나요? ※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만 작성해 주세요

- ① 있음 ⇨ 4-1번, 4-2번 문항에 응답
- ② 없음 ⇨ 4-3번 문항에 응답

4-1. 위스데이 별내 거주가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4-2. 위스데이 별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출산을 주저했을 것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4-3. 좀 더 이른 나이에 위스데이 별내에 입주했다면 자녀를 더 가졌을 것 같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IX. 자녀 양육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만 작성해 주세요**

**1 귀 가정에서 자녀의 기본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중복 선택 가능)**

- 아동의 부모
- 아동의 조부모(친가, 외가)
-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 혼자 또는 다른 아동과 지냄
- 관내 어린이집
- 아파트 내 어린이집(산새꽃어린이집)
- 유치원
-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
- 학원(예체능포함,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
- 형제, 자매와 있음
- 아동 스스로 있음

**2 귀 가정은 (지난 3개월 간) 자녀 양육을 위해 월평균 얼마나 지출하셨나요?**

※ 지출이 없는 항목은 공란으로 비워주세요

※ 지출액은 아래 번호를 참고한 뒤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구분	지출액
1)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료 (수업비, 특별활동비 등)	예) ①
2) 공교육비 (초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 방과후 학교 등)	
3) 사교육비 (학원, 학습지, 과외비 등)	
4) 돌봄비용 1 (조부모 또는 기타 친인척 )	
5) 돌봄비용 2 (비혈연,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6) 돌봄비용 3 (위스тей 돌봄활동 비용)	
7) 총비용 (= 1)+2)+3)+4)+5)+6))	

- ① 20만원 미만
- ② 20만원~40만원 미만
- ③ 40만원~60만원 미만
- ④ 60만원~80만원 미만
- ⑤ 80만원~100만원 미만
- ⑥ 100만원~150만원 미만
- ⑦ 150만원~200만원 미만
- ⑧ 200만원~250만원 미만
- ⑨ 250만원 이상

**3. 자녀들이 (방과 후에) 동네카페, 동네책방 등에서 지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인가요?**

- ① 없음
- ② 30분 미만
- ③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④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⑤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⑥ 3시간 이상

**4. 현재 자녀에게 영어, 수학, 논술 등 교과 관련 사교육을 하고 있나요?**

- ① 그렇지 않다
- ② 1개 하고 있다
- ③ 2개 하고 있다
- ④ 3개 이상 하고 있다

**5. 위스데이 별내에 살고 있는 아이 친구(또래의 형, 누나, 동생)의 부모를 알고 있나요?**

※ 아이 이름을 알고 인사를 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 ① 20명 이상
- ② 10명 이상

- ③ 3명이상
- ④ 1~2명
- ⑤ 없음

6. 급한 경우에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이 있나요?

- ① 20명 이상
- ② 10명이상
- ③ 3명이상
- ④ 1~2명
- ⑤ 없음

7. 돌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때 귀하를 대신해 돌봄을 맡을 사람이 있나요?

- ① 예 ☞ 7-1번 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7-1. 돌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누구에게 돌봄을 부탁하나요?

- ① 가족이나 친척
- ② 지인(위스टे이 별내 외부)
- ③ 이웃(위스टे이 별내 내부)
- ④ 무료 서비스(기관/도우미) 이용
- ⑤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기관/도우미) 이용
- ⑥ 아이돌보미(정부지원서비스)
- ⑦ 베이비시터
- ⑧ 가사도우미
- ⑨ 기타( )

8. 자녀와 함께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위스데이 별내 입주 전에 비해 늘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8-1. 자녀와 함께 여가시간(저녁, 휴일 등)을 주로 보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선순위 3가지 선정)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집 ② 잔디광장 ③ 놀이터 ④ 키움방 ⑤ 동네체육관 ⑥ 동네창작소  
 ⑦ 동네카페 ⑧ 가까운 공원, 산책로 ⑨ 별내동 내 ⑩ 별내동 바깥  
 ⑭기타( )

9. 입주 전 관심과 인식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입주 전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	○	○	○	○
입주 당시 육아환경에 대한 기대가 입주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	○	○	○	○

10. 위스데이의 환경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11. 위스데이의 어떤 환경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3가지 선정)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아이가 놀기 좋은 시설, 환경(잔디광장, 놀이터, 키움방, 창작소, 빈 공간 등)

- ②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많음
- ③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음(아는 어른이 많음)
- ④ 마을 돌봄 교실(놀자람, 스캐아, 모야 등)을 운영
- ⑤ 어울릴 수 있는 마을 행사(세시절기 행사, 놀이축제, 풍날 등)가 많음
- ⑥ 부모 교육, 부모 모임(입학 전 부모모임) 등
- ⑦ 기타( )

12. 위스데이 별내의 육아 및 돌봄 관련 환경이 일-생활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13. 아이 돌봄을 위해 마을에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3가지 선정)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마을 내 돌봄센터
- ② 부모(양육자)모임
- ③ 부모(양육자)교육
- ④ 아이들모임
- ⑤ 건강한 간식공급
- ⑥ 건강한 반찬공급
- ⑦ 주말프로그램
- ⑧ 긴급돌봄
- ⑨ 필요하지 않음
- ⑩ 기타의견 ( )

14.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쯤 되나요? 평일과 주말을 구분해 대답해주세요.

※ 배우자가 없는 경우 1)만 응답해 주세요.

구분	평일(1일 평균)	주말(1일 평균)
1) 응답자	시간    분	시간    분
2) 배우자	시간    분	시간    분

15. 입주 후 변화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입주 후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	○-----○-----○-----○-----○				
입주 후 육아부담과 육아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				
입주 후 육아로 인한 가족간 갈등이 줄어들었다.	○-----○-----○-----○-----○				

16. 위스데이 별내의 남성 양육자 육아모임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7. 위스데이 별내 입주 후 남성 양육자의 육아·돌봄 시간이 늘었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18. 위스테이의 남성 양육자 육아모임이 활발해지기를 원하시나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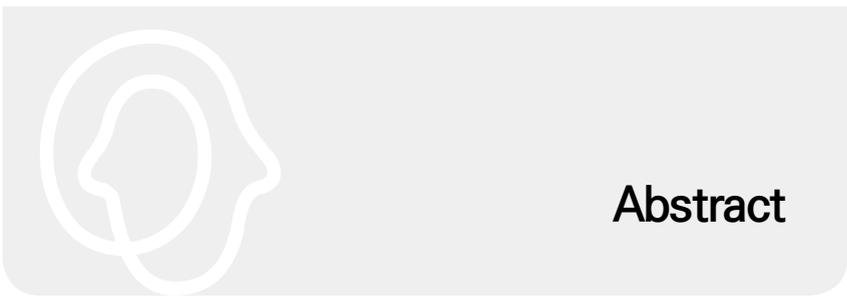
19. 청소년 자녀(14세 이상)와의 관계 ※ 청소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세요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낀다	○	○	○	○	○
자녀의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	○	○	○
자녀와 충분히 대화한다	○	○	○	○	○

20. 다음 질문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 이 문항은 주양육자께서 응답해 주세요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부담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다	○	○	○	○	○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느낀다	○	○	○	○	○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때문에 종종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다	○	○	○	○	○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때문에 직장에 지각·조퇴·결근을 한 적이 있다	○	○	○	○	○
일 때문에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	○	○	○	○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된다	○	○	○	○	○
자녀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	○	○	○	○





## Abstract

### **Social housing and the community child care :** A case study on the 'We Stay Byeolnae' in Namyangju-si

Project Head: Kim, Dokyun

####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at the prolonged ultra-low birthrate in Korean society signals a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and to examine how a commons-based approach, integrating social housing and community child rearing and care activities, can offer solutions to this crisis. The case of 'Westay Byeollae' in Namyangju City serves as an example.

Under capitalism, production and reproduction activities have been systematically separated, with workplaces and households divided. This has led to the exploitation of care labor, which remains undervalued economically and socially. Recently, care and reproduction have been perceived as obstacles to economic independence and self-realization, creating a fierce competition to outsource such responsibilities. As a result, care labor has become burdensome and isolating, making child-rearing increasingly difficult to choose.

If ultra-low birthrates are linked to the separation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a solution requires redefining

---

Co-Researchers: Lee, Taeyoung

the boundaries between these domains to reconstruct social reproduction and restore its meaning. This involves challenging the systemic undervaluation of reproduction and care activities within capitalist relations. Policy approaches that solely offer economic compensation for care labor fail to address the structural subordination of reproduction to production. Instead, what is needed is a boundary struggle that reshap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on and reproduction while fostering a commons-based practice to restore the value of car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ooperative apartment 'Westay Byeollae' integrates housing and care to reconstruct social reproduction and restore its social significance. Through a commons-based approach, it aims to bring care labor out of isolation in the private domain into the realm of the community, thereby breaking down gendered divisions of labor and redefining economic and social relationships.

## **2. Main Research Content**

First, the study explores the commons-based perspective on social housing and social reproduction, analyzing the theoretical context where care activities are interpreted as processes of "commoning." It also discusses the urban commons movement and the significance of social housing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public and private housing models.

Second, the study examines the community activities, neighborly relationships, and community Child rearing and care practices within 'Westay Byeollae', Korea's first cooperative-type social housing. Unlike private housing or public rental housing, social housing like We Stay provides not only housing stability but also community-based social networks, creating favorable conditions for care activities.

Third, this study analyzes how community activities and shared care practices influence residents'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childbirth. Throug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s—including interviews with residents—it investigates the impacts of communal Child rearing on reducing care stress, encouraging paternal participation, and fostering positive attitudes toward childbirth.

### **3. Conclusion and Implications**

The case of 'Westay Byeollae' demonstrates the significant potential of combining housing and care to address housing issues while alleviating the burdens of Child rearing and fostering a supportive community environment. Key findings include:

First, residents of We Stay Byeollae engage in loose yet intimate community networks, showing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social relationships.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exhibit particularly high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which help to bridge care gaps effectively.

Second, the community-based environment facilitates shared care responsibilities, reducing care stress and encouraging fath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Child rearing. This support network alleviates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burdens of Child rearing.

Third, the experience of living in We Stay Byeollae positively influences residents' decisions and intentions regarding childbirth. Those who experienced communal Child rearing and supportive community relationships reported reduced stress and stronger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raise children. However, its impact on single-person or childless households was less pronounced.

This study shows that, in order for the goal of improving quality of life under the 4th Basic Plan for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to hold more concrete meaning, attention must be focused on the specific spaces and regions where social reproduction activities actually take place. Furthermore, unlike the conventional separation of housing and care,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to housing and car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residential spaces where social reproduction occurs, as well as the daily lives and caregiving activities that take place there. In the context of

ongoing fundamental demographic changes, it is difficult to expect shifts in birth attitudes or intentions without altering the existing living standards. Approaching the low birthrate issue solely as a matter of cost has its limitations. Care activities have long been dismissed as a problem of cheap caregiving labor, but to overcome this, it is essential to seriously consider approaching care as a process of commoning.

**Keywords:** Social Housing, Commons, Social Reproduction, Boundary Struggle, Housing, Care

